

에어 포

AIR FORCE QUARTERY

1988년 제 1 호 (통권 제204 호)



공군본부

봄 · 봄 · 봄

이제는 아무런 걱정도 없이
이제부터 편안하게
가을이 시작됨처럼 겨울이 시작됨

— 김도현의 봄날 풍경 —



출발! 제24회 서울올림픽

인류의 축제 평화의 제전



'88서울올림픽 국민성원대회 (서울올림픽 중앙추진협의회 사진제공)

완벽한 영공방위, 보장한다 올림픽

■ 빈틈없는 영공초계, 필승의 대비태세 확립



영진

AIR FORCE QUARTERLY



1988년 제 1 호 (통권 240호)

권 두 언..... 정 훈 감 (2)

논 단

한국의 공영방송제도와 외래문화의 유입..... 김 희 기 (4)

노사분규 원인분석과 향후의 경제전망..... 김 훈 식 (16)

핵의 세계 김 갑 석 (24)

국제 테러리즘..... 김 석 우 (30)

서울올림픽의 기대효과..... 탁 효 수 (53)

교 양

세익스피어의 문학세계..... 오 세 남 (62)



정훈교육

- 북한의 공산화과정 연구.....서 흥 교 (74)
북한의 대남전략과 한국안보..... 남 상 열 (88)
북한의 권력구조 개편과 김정일 후계체제 위상..... 홍 성 범 (98)
-

군사지식

- 선제공격개념의 수용문제에 대한 소고..... 권 재 상 (112)
일본의 방위력 증강실태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정 주 석 (126)
소련의 외교형태와 대소근접 모색..... 이 상 선 (138)
-

문예창작

- 시
- 조소경 할머니..... 임 관 영 (151)
 - 고 투..... 최 성 레 (158)
-



영광의 얼굴들

- 총 성 상
준장 박춘택 (공군본부)
- 명예상
대령 주창홍 (공군본부)
대령 허차동 (공군본부)
- 단 결 상
준위 김기봉 (제3579부대)
준위 김병도 (제3659부대)
상사 최학식 (제5315부대)

国防大賞수상

국방·군 발전에 기여한 모범장병



서동열 참모총장이 국방대상 수상자들을 격려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3579부대에서 김기홍준위 환영식이 있었다.

국방대상이란

올해부터 실시되는 국방대상은 군인의 귀감이 되는 장병 특히 국가보위, 국방외교, 국방정책, 국방과학, 국방경제, 전투유공, 교육훈련, 전술교리, 군사정보, 정신전력, 특수전, 수도권방위, 진중예술 등 국방 및 군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발하여 국방대상과 충성상, 명예상, 단결상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 공군본부 동정 ●



■ 미공군 OSI 사령관 공군본부 방문



■ 합동참모본부의장(대장 최세창) 공군본부 예방



■ 합참의장이 공군본부를 방문하여 의장행사를 가졌다.

● 부대 동정 ●

■ 2583부대에서 서동열참모총장 및 우수조종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87년도 최우수 조종사 시상식이 실시되었는데 강을배 소령이 최우수 조종사로 선발되었다.



■ 공군본부에서는 적극적인 장안자세로 경제적인 군운영에 크게 기여한 장안유공자를 선발하여 시상식을 가졌다.



■ 조종사와 정비사 등 전장병이 혼연일체의 노력으로 12개년 무사고 비행안전 시상식이 7654부대에서 거행되었다.



■ 공군 3758부대 연병장에서 1만시간 무사고 비행안전 시상식을 거행했다.



필 승 의 터 전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영군

AIR FORCE QUARTERLY

1988년 제 1 호 (통권204호)



參謀總長統率方針
必勝의 精兵強軍 되자
最上의 即應態勢 確立
科學的 指揮管理 提高
巨視的 空軍文化 暢達

공 군 본 부



정훈감 대령 강국희

만물의 소생과 더불어 '88년의 봄이 열리고 있다.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한결 힘차게 움직이며, 저마다의 가슴엔 희망찬 내일에 대한 기대와 선진국민으로의 자부심이 가득한 듯 하다. 바야흐로 민주화의 꽃을 피우고 올림픽의 찬란한 태양을 맞으며 선진국의 열매를 맺을 만반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민족사는 고난과 시련의 역사였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일찌기 예의와 평화를 숭상했던 우리 민족은 북방이민족과 왜구로부터의 수 많은 외침을 당했으며 36년간의 일제암흑기를 벗어나 현대에 들어와서도 6·25의 동족상잔과 분단의 아픔을 감수해야 했다. 더우기 내적으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후진성 등 악조건을 극복해야 했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을 계속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내외적인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는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국운상승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반도 역사에 시금석으로 기록될 평화적 정부이양으로 이루어진 제6공화국의 출범은 세계인들에게 민주국민으로서의 역량을 과시했고, 안정과 화합 속에 꾸준히 치솟고 있는 경제성장은 선진열강들을 위협하는 「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군(NICS)」으로 부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개최되는 '88서울올림픽은 규모나 참가국 수



에 있어서 최고·최다의 새로운 기록을 달성할 전망이다 보면 우리의 찬란한 전통문화와 발전된 우리의 모습을 온세계에 알리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민족사 발전의 분수령에 서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것이 예정된 필연이 아니라 보다 많은 땀과 노력의 댓가로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전도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요소 못지않게 우리의 진로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도처에서 우리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첫번째 장애요소는 아직껏 산재해 있는 내부적 도전과 갈등이다. 간혹 학원소요나 노사분규 등이 역사발전의 흐름을 흐트러 놓는가 하면 일부 정치인들의 과도한 욕구가 표출됨으로써 안정을 추구하는 여론이 묵살되기도 한다.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면 분열과 대립을 초래하여 급기야 국가발전은 고사하고 국가존립의 기반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때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시련은 국제사회의 견제와 경쟁인 것이다. 자국의 이익추구만이 국가간의 관계를 지배한다는 국제사회의 기본원칙과 한 나라의 이해는 바로 다른 나라의 이해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때문에 한 나라의 급격한 부상은 여타 선진국과의 경쟁을 전제로 한다. 이 때 자연히 발생하는 마찰현

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과 경쟁이라는 새로운 교역질서 속에서 줄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개방적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선진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북괴의 방해공작과 무력도발인 것이다. 앞의 두 가지 장애요소는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데 반해서 북괴의 음모에는 우리의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같은 공산권 사람들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야만적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북괴의 행동을 우리가 예측하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괴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도발해 오더라도 이를 분쇄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길만이 우리의 번영과 생존을 보장하고 선진화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우리 군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우리의 자주적 국방력과 막강한 군사력 건설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88년에 피어날 무궁화꽃의 만개를 기원하며, 2000년대의 주역이 되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영공방위의 최일선에서 진력을 다할 뿐이다.

1988. 3.

정 훈 감

韓國의 公營放送制度와 外來文化의 流入

김 희 기

〈성대 신문방송학〉

I. 서 론

1980년 한국의 放送制度가 公營化된 이후 우리 放送에는 文化메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어 온 바, 일반시청자들은 公營放送이라면 娛樂機能이나 報道·監視機能보다 의식구조나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文化的 효과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시청자의 文化的 水準이나 慾求가 公營化 이전보다 급격히 향상됨에 따라 受容者의 기호에 알맞게 放送이 이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만은 아니고 放送의 目標를 우선 文化的 媒介體로 설정한

후 이를 위한 제도적이고 규범적인 장치를 만든 다음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에게 文化메시지를 주입시키겠다는 정책적인 결정이 先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放送의 公營化과정에 制度의 정착, 規範의 정착 그리고 프로그램의 개선 순으로 전개되어 왔음에 비추어 公營化에 따른 방송매체의 文化的 기능은 일반 시청자를 啓導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위론에서 출발되고 운영되어 왔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한국의 국가발전목표나 일반적 환경을 감안할 때 한국의 텔레비전은 外來文化의 受容과 傳統文化의 伝授라는 기능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文化媒体로서의 임
무가 부여되어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 방송매체는 우리文化와 外來文化間의
文化間 커뮤니케이션(Intercultural Comm-
unication) 접근방법으로 고찰될 필요가 있
고 放送이 우리文化에 外來文化를 어떻게
이식하는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살펴 져
야 할 것이다.

II. 본 론

1. 文化 Program 實態

가. T. V 방송국의 Program 편성현황
현행 言論基本法과 同法施行令에 의하면
프로그램 편성기준을 報道 10% 이상, 教
養 40% 이상, 娛樂 20% 이상으로 규정하
고 있다.

한편 3개 TV방송국의 編成現況을 보면
KBS-1TV는 보도 37.76%, 교양 48.61%,
오락 13.63%, KBS-2TV는 보도 19.34%,
교양 56.25%, 오락은 24.41%이며, MBC-
TV는 보도 18%, 교양 54.02%, 오락 27.
08%로 편성하고 있다. 여기서 어떤 조사
에 나타난대로 放送의 類型別 分類과 편성
기준이 放送內容과 형식적 분류(예: 드라
마, 뉴스, 스포츠, 음악)에 기능별 분류가
(예: 보도, 교양, 오락 등) 혼합되어야 한
다가 67.4 %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특히 기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응답

자는 14.7%가 됐다는 것이다.

여기서 文化 Program을 교양프로에 국한
시킬 것인지 非오락적 프로그램으로 지칭할
것인지의 기준설정의 문제도 있고 이와 관
련하여 스포츠·음악 등을 내용에 따라 文
化的 요소로 판별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우선 각 放送局이 교양프로만 文化프로라
고 하더라도 3개 방송국 모두 40% 이상의
양적 만족도를 보이며 非오락프로를 그 범
주로 할 때는 평균 70% 이상을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文化的 요소나 교
양을 규정한 규범력이 誤導되면 合目的的
인 數值達成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쉽고 다양하고 창의력과 주체성있는 프로
제작을 위축하고 非文化的 要因을 가미하
기가 쉽다.

또 現行 分類基準의 약점을 이용하여 同
한 프로그램이 세 가지 기능을 전부 갖
추거나 일부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을 때 主
觀的인 任意분류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하
여 言論基本法施行令 제24조의 편성기준 비
율이 無意味해져서 放送局이 同 基準의 고
정적 편성비율에 적절하게 접근시킬 수 있
는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예컨대 高等学校 야구경기 중계방송의 경
우 보도로 분류한 것이 13.2%, 교양으로
본 것이 7.7%, 오락으로 본 것이 79.1%
여서 3가지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지만 어
떤 경우에는 교양스포츠로 強辯되기도 한
사례가 있다.

〈표 1〉 . TV 프로그램의 유형별 만족도에 대한 빈도

| | 아주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아주 불만족 | 비고 |
|-------------|----------|------------|------------|------------|------------|------|
| 뉴스 | 1 1.0 | 21 21.4 | 44 44.9 | 22 22.4 | 10 10.2 | N=98 |
| 교양 | | 8 8.2 | 51 52.0 | 38 38.8 | 1 1.0 | " |
| 교육 | 1 1.0 | 8 8.2 | 45 45.9 | 37 37.8 | 7 7.1 | " |
| 연속극 | | 1 1.0 | 24 24.7 | 45 46.4 | 27 27.8 | N=97 |
| 어린이 프로그램 | 1 1.1 | 11 11.6 | 39 41.1 | 40 42.1 | 4 4.2 | N=95 |
| 쇼 | | 3 3.1 | 34 34.7 | 45 45.9 | 16 16.3 | N=98 |
| 코미디 | | 2 2.1 | 18 18.6 | 38 39.2 | 39 40.2 | N=97 |
| 스포츠 | | 44 46.3 | 36 37.9 | 12 12.6 | 3 3.2 | N=95 |
| 영화 (외화) | | 33 33.7 | 44 44.9 | 18 18.4 | 3 3.1 | N=98 |

나. 현행 Program의 유형별 만족도
일반 시청자가 放送媒體의 文化的 기능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는 한마디로 대답할 수 없다.

그러나 T·V Program의 유형별 만족도

에 대한 빈도〈표 1〉를 보면 스포츠는 46.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영화와 뉴스는 각각 33.7%, 21.4%가 현재 수준에 만족했다.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분야는 연속극·쇼·코미디 등 오락물이지만 교양 및

교육프로그램의 경우도 38.7%가 불만을 표시한다. 그중 文化學習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44.9%가 크게 불만족해서 편성기준에서 강조하는 화면이 만족을 주지 못함을 보여준다.

표 1에서 뉴스·교양·교육·어린이프로·영화 등이 보통이라는 中立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교양스포츠나 교육프로그램만 文化프로에 한정하더라도 규범적 強制力을 편성기준으로 부여한 目標의 이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있음을 말해준다. 言論基本法의 立法精神이 갖는 당위성이 일반 여론을 반영할 때 일상생활속의 文化的 媒體의 기능이 살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떠한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TV의 역할에 대하여 同 調査對象者들은 文化暢達 20.6%, 教育과 계몽 19.6%, 情報提供 32.0%이고, 娛樂과 위안 27.8% 순인데 文化暢達은 20%에 그치지만 非오락적 범주를 총괄할 때는 70%가 文化的 기능을 강조하는 셈이다. TV 종사자들은 텔레비전이 오락과 위안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시청자와 유관기관 종사자들은 情報提供이 텔레비전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보아 좋은 대조를 이룬다.

여기서 教養·教育放送 編成比率이 40%이어야 한다는 言基法施行令의 규정이나 방송이 教育的 機能의 수행에 치중해야 한다는 法精神과는 달리 대부분의 조사대상자가 TV의 교육과 계몽을 위한 역할에 크

게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양·교육프로 등 文化的 機能에 대한 法定 과정상의 기대수준이 일반여론과 같지 않고 文化的 機能을 放送媒體에 부과하여 오히려 公益性을 살리자는 硬直된 文化분위기를 조성하고 非文化的 逆機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는 H·Mowlana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 기준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견주어 볼 때 우리가 오락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다른 국가나 방송제도하에서는 교육이나 보도프로그램으로 취급되는 수가 있는데 同一한 프로그램도 오락·교양이 混在하여 교양프로그램의 娛樂化, 오락프로그램의 教養化라는 추세를 상지시키는 면이 있다.

다. TV 外畵의 外來文化的 性格

外來文化프로의 중요한 부분은 외화가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外畵放送量은 전체 방송시간의 10%線으로 그 구성비가 아주 낮은 나라 중의 하나이며 편성시간대도 프라임 타임이나 최적시간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TV를 통한 外來文化的 바람직한 수용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외국영화를 수용하는데는 이를 선별하고 수용하는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대중문화정책을 수립하는 政策立案者나 외화를 선별하여 수입·방영하는 放送社의 정책결정자에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 즉, 어떤 장르, 어떤 내용의 외국영화를 얼마만큼 수입해서 방영하는 것이 이

나라 대중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는 당국자의 문화적 가치기준에 달려 있다.

비록 외화라 하더라도 우리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전한 프로그램을 구태어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 문제는 外畫의 選別이다. 邊仁植氏는 「美國映畫가 매스 아트(Mass Art)로서 한국인에게 끼친 영향」이란 論文에서 존·포드(John Ford)의 서부극 분석을 통해 한국인이 받아들인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美國의 理想(Puritanism)과 現實(Pragmatism)이란 쌍권총을 차고 다닌 美國人의 「서부개척정신」(Frontier Spirit)을 들었다. 또한 「봉사하는 騎士道精神」, 「狀況對決意識」 즉, 「勇氣」, 「小英雄像」, 「叙事詩的인 감흥」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외화가 文化侵犯의 罪人이 되지 않고 은연 중 外國의 政治的 선전을 심어주지 않으며, 과시적 대향소비의 병폐가 없는 외화를 선정할 수는 없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오락적 감동과 지적 만족이란 두 尺度에 맞는 外畫가 있으면 해결된다.

그러면 재미도 있고 充足感도 줄 수 있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德目도 곁들이는 外畫란 어떤 것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첫째, 人間존중 人間本爲를 다룬 감동적인 作品, 둘째, 合理性을 기르고 科學的인 思考를 기를 수 있는 作品, 셋째, 도전·모험·개척(自己内部, 外國, 外界까지 포함)

진취적인 性格과 기상을 기를 수 있는 內容 등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內容을 담은 외화는 많이 있었다. '50~'60년대 유행하던 미국 서부극이 사라지고 스타워즈 등 우주물이 기세를 부리던 '70년대 말 미국의 開拓의 꿈은 우주로 나타났는데 映畫나 시리즈 중에는 이러한 것이 많았다. 그러나 한때 國內에서 空想物이란 理由로 폭력을 다룬 우주물이 아닌데도 지탄을 받기도 했다.

결국 主體的인 外來文化 受容은 逆說的으로 우리 것을 키우는 것, 그리기 위해 다시 逆說的으로 남에게서 배우는 것, 漢方에서 氣를 돋운다는 말처럼 통제보다 우리의 氣를 돋우는 作業이라고 생각된다.

文化는 社會의 거울이고 사회경제적 구조나 政治的 制度를 반영한다. 따라서 텔레비전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시청자들의 사회적 또는 심리적 관심을 반영하는데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文化媒體로서의 방송의 역할도 사회 전반의 의식수준이나 文化생활을 선도한다는 사명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사회구조의 일부로서 주의깊게 文化의식을 통찰하여 각 분야를 연계 조정하는 매체로서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Hoebel의 말대로 우리 文化는 豫定된 것도 아니고 注入式으로 강요된 인식도 아니기 때문에 放送은 목적의식이나 당위성에 치우친 나머지 시청자의 생활 속에 內在

하는 학습된 행위를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사회를 반영하거나 조정하여 自律的이고 창의적인 文化要件을 조성하도록 하는 후원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公營化 이후 放送의 文化的 기능은 프로그램 내용면에서의 大型化, 深層化, 고급 문화의 확산 등 그 질적 향상을 기한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인 문화들에 시청자의 인지태도 행위를 고정 시키려는 의도를 각 프로의 내용에 주입시키려 했고 이로서 文化의 본질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공영화에 따른 도덕적 기준의 향상과 고급문화에로의 향상은 法規範이나 방송정책에 의존할 때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억제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시청자들에게 강한 共感帶를 形成할 수도 있으나 文化의 다양성이나 自律性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放送이 文化施策을 규범적·제도적으로 일반시청자에게 주지시키는 계몽적 역할을 文化的 機能이라고 강조한다면 우리 사회에는 單層의 예술적 符號 만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共有될 것이고 이는 현대적 특징인 文化的 多元性(Cultural Pluralism)을 저해할 것이다. 放送의 社會文化的 役割은 시청자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서로 다른 符號를 사용하여 서로 주고 받는 관계가 성립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교양있고 문화적인 부호가 社會문화의 主從을 이루는 결과를 낳

게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放送의 文化的 役割은 수용자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文化水準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의 기능이 중요한 것이지 文化內容이나 방향을 설정해 놓고 이를 시행하는 기능에 치우치면 文化啓導가 낮아져 문화지체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2. AFKN 放映이 우리 文化에 미치는 영향

가. AFKN 放映實態

'83년 이후 AFKN의 일일평균 방송시간이 15시간에서 19시간으로 부쩍 늘어났으며 프로그램 도입방식도 종전의 AFRTS (American Forces Radio Television Service)제공 프로그램을 항공편으로 수송하여 방송하던 것을 SATNET(Satellite Network)계획에 따라 미국의 주요 네트워크가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인공위성으로 수신하여 방송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 국방성 라디오 TV 업무국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한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국제통신위성기구(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Satellite)에서 받아 예비로 보유하고 있는 地球局의 1회선을 336만 달러에 앞으로 5년간 사용토록 계약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로 인해 AFKN측은 매일밤 11시부터

익일 오후 3시 반까지 약 16시간 가량의 위성중계수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언론정책 관계자나 매스컴 분야 학자들은 급격히 늘어난 AFKN의 방송량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법적 규제조치가 없어 AFKN 방송정책조정기구라든가 심의기구 등의 기구설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왜냐 하면 AFKN의 방송 存立근거가 1966년에 체결된 SOFA협정(韓·美행정협정) 제 3조 2항 (나)호 「...전기통신에 관한 모든 문제는 兩國 정부의 지정 통신당국 간의 약정에 따라 최대의 조정과 협력의 정신으로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에 의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순히 兩國 통신당국의 書面에 의한 협조차원 이외에는 우리 한국의 주권과 입장을 옹호할 만한 의무조항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협정 위에 방송되는 AFKN 텔레비전이 駐韓美軍이라는 특수대상을 상대로 하는 방송이므로 그 性格上 大衆 취향의 오락물이 대부분이고, 게다가 점차적으로 AFKN에 대한 우리나라 시청자층이 두터워져가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AFKN 프로그램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나. AFKN 프로그램의 諸 性向

AFKN 방송의 주대상은 주한미군과 그의 가족이라는 특수계층에 형식적으로 한정되

어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士氣振作과 오락제공 등이 AFKN-TV 프로그램의 주요 방송목적이 되고 있는데 AFKN 프로그램을 性向別로 분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기능별 성향

AFKN 프로그램을 보도·교양·오락의 3기능으로 분류하여 살펴 보면, 우선 보도프로의 경우 일반 뉴스보도프로(예: CNN 'Headline News', AFKN News, NBC News 등)와 심층 보도분석프로(예: ABC 'Nightline')로 나눌 수 있으며 보도내용은 주로 미국 국내소식이나 미국과 직접 관계된 해외소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최근의 한국관계 뉴스로는 KAL기 실종 사건이나 노태우 대통령과 후보의 당선 등 세계적으로 뉴스의 초점이 되었던 내용을 주로 다루었고 AFKN의 로컬뉴스로서 처북괴관계의 군사소식 등 주한미군의 관심사를 보도하고 있다.

보도부문은 SATNET에 의한 방송개편 이후 NBC·ABC·CNN 뉴스를 인공위성으로 수신·방송하게 되므로 가장 活性化된 부문이긴 하지만 AFKN측에서 “주재국의 민감성을 준수한다”라는 Gate Keeping 원칙하에 위성중계로 수신된 뉴스를 Video로 녹화·편집하여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양프로의 경우는 일반 사회교양프로와 교육적 성격이 강한 교육프로로 大別되어질 수 있는데 그 구성은 사회적 화제거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를 다각적으로 접근, 集團討議형식으로 프로를 진행시키는 Donahue같은 討論프로, Nova와 같은 도큐멘터리프로, 公益캠페인 프로, 사회정보제공 프로, 패션관계 프로 등과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끝으로 AFKN 프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오락프로의 경우는 우선 쇼·코메디·드라마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쇼프로의 경우는 「Solid Gold」와 같은 버라이어티 쇼類「Serendipity Singer」 등의 일반 쇼 프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드라마의 경우는 낮시간에 주부들을 겨냥한 이른바 Soap Opera類의 멜로드라마(예: General Hospital, Ryan's Hope), 의료관계드라마(예: Trapper John M. D., MASH), 미국의 청교도 정신과 合理主義 思想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휴먼드라마 예: Bonanza), Starsky & Hutch 등 대다수의 폭력물드라마 등으로 나누어진다.

코메디 프로의 경우는 자니·카슨이 주연하는 다소 수준높은 워트로 구성되어진 「Tonight Show」 등이 있는 반면 토요일 밤시간 내내 방송되는 소위 「Benny Hill」과 같은 大衆性向 코미디物도 있다. 즉, 대체로 AFKN 오락프로의 가장 큰 특징은 회극적인 코미디物과 스포츠·쇼·性(Sex)·폭력이 스토리의 주종을 이루는 멜로드라마, 수사드라마 등의 인간본연의 회극적 감정에 호소한 프로가 주가 되어 있으며

반면 이성적 메시지를 심층적으로 다룬 드라마는 드문 것 같은데 이는 AFKN의 특수성때문일 것이다.

② 時間帶別 性向

AFKN 프로를 시간대별로 분류해 볼 때 한국의 TV보다는 수용자의 시청시간대를 그리 세분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체로 평일의 경우 이른 아침시간대(6~8시)는 보도類(예: Today Show, First Camera)가 주로 나가고 있으며, 그 다음 아침시간대(8시 30분~9시 30분)는 주한 미군가정의 어린이대상 교육프로(예: Sesame Street, Electric Company)가, 낮시간대에는 주부대상인 멜로드라마類와 저녁시간대에 방영된 프로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저녁의 가족시청시간대에는 스포츠 중계나 일반 폭력성향이 짙은 드라마나 코메디, Solid Gold 같은 쇼 프로가 나가고 있다. 심야시간대에는 오락성향이 짙은 드라마·코메디·영화 등이 방송되고 있는데 주부대상의 Soap Opera類와 더불어 成人대상 프로가 많다.

다. AFKN 시청자 분석

AFKN의 시청자는 형식상으로 주한미군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한국인 시청층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1981년도에 조사된 漢陽大 李康洙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한국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의 약 82%가 AFKN-TV를 정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정규적인 AFKN 시청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한 조사자료는 없으나 그동안의 상황으로 미루어 상당수에 달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AFKN-TV의 국내 시청자는 대체로 언어 습득을 통한 자기발전의 계기를 우선으로 하는 대학생층과 그 밖의 청소년층 등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자연히 언어습득을 우선으로 하여 AFKN을 시청하는 시청자층은 언어적 메시지가 주가 되어 있는 토크-쇼(예: Donahue)라든가 보도 프로그램(예: News, Take Two, Sixty Minutes 등)도 큐멘터리 프로그램(예: Nova)을 주로 시청하게 될 것이고 영어에 대한 해득률이 비교적 약한 대다수의 청소년층과 기타 계층은 자극적이고 다채로운 행동메시지가 주가 되어 있는 쇼 프로·수사물·멜로물·스포츠 등을 시청함으로써 즐거움을 얻고자하는 성향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취미나 직업관계상 「Ctyle With Zlsa Klensch」같은 각종 패션쇼나 그밖의 여러 생활정보를 다룬 프로그램(예: 「In Concert」등의 음악프로)를 시청함으로써 자신의 취미생활을 즐기려는 시청층도 상당수에 달할 것이다.

라. 社会構造 變因으로서의AFKN.

① AFKN 受容性向

어느 사회의 사회구조가 그 사회 구성원이 의도하는 바대로 발전·변화하기 위해

서는 한국과 같은 開放社會의 경우 사회자체 내의 기존 응집력과 외부로부터 영입되는 외래문화와 적절한 질적·양적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은 고유 전통문화와 외래문화 간의 불균형 상태를 초래한 대표적 케이스라 할 수 있다. 즉, 한국은 解放 이후 급격히 밀려 들어온 西歐文物의 홍수와 더불어 1960년대 부터는 西歐 産業社會로의 발전을 위한 경제개발계획을 실행하게 되었는데 이때 개발도상국으로서 서구 산업구조로의 구조변천이 시급, 西洋文化의 일방적 流入이 특별한 기준없이 허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외래문화에 대한 政策不在로 그동안 한국 고유 전통문화는 빈번하고도 강도높은 외래 대중문화에 밀려 퇴색되었던 것이다.

특히 대부분 우리 시청자층에 유입된 외래문화의 대부분이 AFKN의 경우 그 특수한 성격상 감각적이고 원초적인 대중 성향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GI文化이어서 다소 고답적이고 보수적인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는 점차 우리사회 청소년층에게서 외면당했던 것이다. 이러한 실례는 현재 우리 한국 TV프로의 경우, 우리 전통문물을 짜임새있게 다루어 視聽率을 높이고 있는 프로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방송사가 현실에 맞게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Ghetto Time (불편시청 시간대)에 한 두개 배치하고 있

는 실정이다.

② AFKN 受容效果

이처럼 특별한 메시지의 선별기준없이 AFKN 메시지가 우리 한국 시청자층에 영입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긍정적·부정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가) 긍정적인 면(Positive Aspect)

첫째, 정보추구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 AFKN에서 방송되는 갖가지 보도 프로그램을 시청함으로써 한국 시청자는 한국 내 보도매체에서 充足시키지 못하는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정보추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특히 AFKN 보도프로의 대부분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特派員의 취재활동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SATNET 시스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더욱 그렇다.

둘째, 미국文化에 대한 포괄적인 인지도도 높힐 수 있다. AFKN 프로그램을 통해 비쳐지는 미국의 이모저모를 간접 경험할 수 있다. 투지, 미국의 청교도정신, 合理主義思想 등은 미국문화의 보다 긍정적인 요소로서 한국 시청자에게 작용되어질 수 있다.

세째, 프로그램 製作水準을 높일 수 있다. (Technical Aspect)

네째, 言語習得의 훈련장으로 이용되어질 수 있다.

(나) 부정적인 면(Negative Aspect)

첫째, 문화종속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西歐 大衆文化에 대한 한국 시청자층의 선호적 성향과 서구사회로의 도약 발전을 위한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역사적 배경은 자연적으로 서구문화의 일방적 유입을 誘發시켜 한국의 고유한 전통문화의 쇠퇴를 초래할 염려가 크며 마침내는 문화적 劃一化 현상을 초래 主體意識 및 고유 전통문화에 대한 망각과 혼란을 가져 올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런 현상은 소위 제2세대라 할 수 있는 서구식 교육체제하에서 자라난 청소년층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 즉, 팽배한 물질만능주의와 불건전한 애정관계, 인간 경시를 다룬 비속메시지가 그대로 안방에 유입됨으로써 기존 모랄에 대한 價值觀을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현상은 주도국 문화로서의 外來文化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국 문화에 대한 비속화 작업이 일어나기도 한다. (예: MASH 프로에서 한국인을 지저분한 사기꾼·장사꾼·하우스보이 등으로 묘사하여 방송됨으로써 한국을 모르는 시청자층에게 한국에 대한 비속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둘째, 고급문화 취향의 쇠퇴현상을 가져온다.; AFKN의 본래 성격상 그 주종이 대중 취향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국 대중문화는 더욱 더 표면적이고 감각적인 대중성향을 강하게 띠게 된다. 즉, 이는 문화의 Lebel Down化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서 AFKN프로의 상당수가 大衆文化의 高級文化化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작용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예: 「Solid Gold」 「Starsky & Hutch」 「Ryan's Hope」 「General Hospital」 「Gavilan」 등)

또 AFKN 메시지와 고급문화 사이에서 우리에게 기대되는 문화 - 그것이 우리 자신의 連帶感을 形成하고 진정한 團結을 이룩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민족문화이든, 아니면 단순한 문화적 正體性 만이 인정될 뿐인 전통문화이든 간에 - 한국인의 수준을 下向化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主體的 文化와 생활양식에 대한 보호의 필연성이 절감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소수집단에 국한되었던 고급문화의 대중적 확산이라는 D. M. Wlute의 대중문화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무산되고 만다. 이것이 바로 AFKN文化로 부터 우리문화를 보호해야 할 당위성의 한 측면이 될 수도 있다.

세째, 이외에도 AFKN을 주로 시청하는 이른바 오피니온 리더의 불완전한 언어해독률로 인한 메시지 歪曲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현존하는 기존 정보매체의 信賴度라든가 그밖의 여러 要因으로 정상적인 정보의 흐름이 이탈될 때 이러한 메시지의 歪曲受容은 루머 등을 誘發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창조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창의적 力量을 축소시키

고 취향문화의 수준향상이라는 힘드는 작업을 통해 문화를 생산하려는 의욕대신 AFKN文化를 模倣한 수동적 文化만을 安易하게 再生産하려는 性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각종 大衆文化産業을 영위하는 기업주들이 그들의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높은 생산비가 투입되는 창조적 주체문화의 생산보다는 비용절감을 통한 최대이윤의 확보가 보다 확실한 AFKN문화의 복제에 열중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국내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긍정적 예측이 무너지고 그 자체의 독창적 의미마저 상실되고 말 염려 또한 없지 않다.

Ⅲ. 결 론

지금까지 AFKN 프로그램의 일반적 성향과 우리사회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상식선에서 다루어 보았다. 즉 결론적으로 말해 현재의 행정협정(SOFA)을 근거로 성격상 美國의 순수대중성향물이 주종을 이루어 韓國 시청자층에 거의 일방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AFKN-TV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정하여 한국민의 공정한 이익과 관심사는 물론 國益에 조화되는 방향으로 협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AFKN 프로그램의 편성조정기구, AFKN 프로그램 事後審議機構 설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현행

행정협정을 재검토하고 그들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한국 고유의 일반성을 저해하지 않는 상호협약기준 설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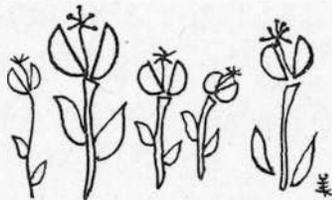
둘째, AFKN 프로그램 시청자조사가 행해져야 한다. 한국 시청자의 AFKN 시청 동기 및 그 결과(否定的 혹은 肯定的作用)를 정기적으로 조사, AFKN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삼아야 한다.

셋째, 한국인 시청자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選別的 메시지 受容能力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하에 진행하고 한국 청소년들 교육은 물론 부모들의 TV 채널 선별조정능력도 키워져야 한다.

넷째, AFKN 프로그램 수신방송을 UHF로 전환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 자체 프로그램(전통문화프로그램 강조)을 개발 강화하고 AFKN側과 韓國放送公社 및 韓國放送의 基本政策을 다루는 放送委員會와의 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勞使紛糾 原因分析과

향후의 經濟展望

金 勳 植

〈韓國經總, 法制課長〉

I. 勞使關係시스템

노사관계란 통상 自由資本主義 經濟體制下에서, 근로자 또는 노조와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 그리고 정부의 3자가 賃金, 勤勞時間 등 근로조건의 기준설정을 둘러싸고 벌이게 되는 相互關係라고 말해진다.

노사관계는 작게는 工場을 단위로 해서, 企業단위, 業種단위, 全國단위의 노사관계가 존재한다. 이들 각 레벨의 노사관계는 고유한 영역과 특성을 갖고 혹은 상호중복되거나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존재한다.

그리고 각 단위 내에서 노사관계는 여러 가지 주요한 要素들로 구성되고 이 요인들

이 상호 의존하는 가운데 하나의 均衡된 統一體를 구성하고 있다. 완결된 체계(System)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장, 기업, 업종, 혹은 전국단위의 勞使關係體系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들의 실체를 설명케 된다.

노사관계론의 학문체계를 정립한 J. T. Dunlop에 의하면 한 국가의 노사관계 체계는 政治體系, 經濟體系, 社會文化體系 등과 똑같이 전체사회체계의 하위체계이다. 동시에 노사관계체계는 체계 성립을 가능케 하는 고유한 영역을 갖고 있으며 適応, 目的의 充足, 統合, 潛在原型의 지속과 緊張의 관리 등 체계유지를 위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고유영역이란 측면에서 경제체계와 노사

관계체제를 비교하면 우선 경제체제가 生産量이나 雇傭量, 그리고 賃金決定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 반해 노사관계 체제는 노사간에 적용될 規則의 制定과 공통된 이데올로기의 창출을 고유영역으로 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자본, 생산량, 고용량은 노사관계체제에서는 一定한 조건으로 가정되고 있으며, 경제체제에서는 노사관계 체제의 주요분석대상인 규칙이나 이데올로기는 一定한 전제조건으로 가정되고 있다. 그러나 임금결정문제는 두 체제가 만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노사관계체제는 고유영역과 다른 경제나 사회체제와는 구별되는 限界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전체사회체제에서 파악할 때는 하위의 사회체제들, 그 중에서도 경제체제와 노사관계체제는 서로 커다란 영향을 주고 받는다. 따라서 노사관계체제는 경제체제에 속하는 국제수지, 인플레이션, 그리고 실업같은 문제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노사간의 분쟁이 격화된다거나 조직의 결성 또는 분열이 활발하여 노사관계체제가 크게 교란상태를 보일 때 정치, 사회체제의 安定性도 크게 위협받게 된다. 각 레벨의 노사관계체제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던롭”은 当事者(Actors), 与件(Contexts), 規則(Rule), 이데올로기(Ideology) 네 가지를 들고 있다. 노사관계체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발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一定한 当事者, 일정한 与件, 그리고 그 노사관계체제를 결속시켜 주는 이데올로기 및 노동현장과 작업공동체에 있어서 당사자들을 규율하기 위한 제정된 일단의 규칙들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노사관계 당사자로는 근로자와 그 조직, 사용자와 그 조직, 그리고 전문화된 정부기관이 있으며 노사관계는 이들 3주체가 엮어가는 상호행동의 복합체이다. 이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실증연구를 토대로 정립한 것이나 우리의 경우 노사관계체제의 당사자를 애기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우리의 경우 기업 내 근로관계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勞使나 정부 이외에 정치·사회적 目的을 갖고 노사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종교집단, 정치·사회단체, 그리고 産學聯合을 기도하는 해고근로자나 대학생집단을 또 다른 주역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노사관계체제의 외부 또는 내부 与件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가 사업장의 기술적 특성으로서 작업현장이 고정, 집합된 장소인가, 아니면 건설이나 운수업과 같이 움직이는 장소인가, 작업현장이 거주지에서 통근거리에 있는가, 노동력의 정착도가 높고 안정되어 있는가, 작업집단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를 들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복무규칙, 社宅制度, 採用과 解

雇規則, 經營 또는 勞組조직 構造의 차이가 발생된다.

둘째로는 市場 또는 予算的 制約을 들고 있다. 시장, 예산계약은 특히 임금·복지후생 등 제반 근로조건 수준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기업의 市場支配力, 제품의 收益性 등이다. 이러한 제약조건의 차이는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성장성이 있는 업종과 사양산업이나 불황산업간의 고용 및 근로조건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尺度가 된다.

세째로는 당사자들이 갖는 지위와 세력의 분포상태로서, 예컨대 노조의 정치활동이 허용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노조의 파워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기업단위로 가서는 노조가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 어용성 시비에 휘말려 있으냐에 따라 지위나 交渉力에 큰 차이가 날 것이다.

다음으로 노사관계체제에서 중요한 구성요인으로는 規則으로서 사업장의 位階를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시키는 제반 규정, 즉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있다. 노사관계체제는 물론 4가지 구성요인이 상호작용을 주고 받으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각 요인의 변동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 체제의 중심적 과제는 전국단위, 업종, 기업, 또는 국가간에서 상이한 특성의 규칙들이 왜 제정되며 또 어떠한 변화에 대응하여 그것들이 개폐되는가를 설명하는데 있다.

또한 제반 條件이 업종이나 기업, 국가간에 유사하다면 유사한 규칙이 제정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노사관계 규칙은 여건이 유사한 국가간에 이식될 수 있는 것인가 등을 고찰해야 한다고 한다. 사용자의 지위 통제를 벗어난 도로선상에서 일하는 운수업 근로자의 복무규율은 집합된 작업장에서 일하는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와는 技術的 條件이 크게 달라 복무규율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노동현장이 일정한 기간마다 옮겨다니고 또한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은 건설산업 작업장의 복무규율이나 안전수칙 등도 이들 업종과 다른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데올로기를 들고 있다. 이데올로기란 노사관계체제를 통합시켜 주는 노사당사자간의 공통된 사상 또는 신념체제이다. 미국의 경우는 노사간의 이데올로기로 시장경제원리의 존중과 단체교섭을 통한 문제해결방식이 정착되어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법률적 규제나 정부에 대해 의존하지 않는 勞使自治主義 (Voluntarism)가 공통의 신조로 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 지난 4반세기의 공업화과정 속에서 노사관계체제를 지탱해준 이데올로기라 하면 온정주의 내지 企業家族主義가 아닌가 한다. 교육수준이 높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으로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진통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이데올로기라 해서 물론 고정불변의 것은 아니어서 당사자나 여건이 크게 변화되면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창

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사관계체
계에서 이 이데올로기는 산업화의 단계나
방식, 전통적인 국민의 기질 등 역사적이
고 구조적인 요인들을 반영하고 있어 쉽
리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
라고 할 수 있다.

II. 勞使紛糾의 分析과 評價

1. 실태와 원인

금년 들어 6. 28일까지 124건의 노사분
규가 발생하는데 그쳤지만 6. 29선언 이후
3個月 동안 産業化史上 그 유례가 없는 노
사분규가 폭발하였다. 7月 중순 울산공단
의 현대중공업에서 시발한 노사분규가 부
산·창원·마산을 거쳐 태백·전주·인천으
로 확산되더니 한 달이 채 못되어 전국으
로 번져 버렸다. 공장에서 광산으로 항구
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노조가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유행병처럼 번진 노사
분규에 휩싸였다.

지난 3月간의 분규는 양적인 숫자에 있
어서나 요구사항에 나타난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분규의 양상에 있어서나, 그리고
확산속도에 있어서나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것이였다. 당국의 집계에 의하면 9월 28일
까지 모두 3,455건(6. 29 이후 3,331건)
의 분규가 발생했다고 한다. 한 때 하루에
223件的 분규가 신규로 일어나기도 했고,

8. 11~9. 5기간 중에는 1日 平均 111
건의 분규가 일어나기도 했다.

'80년대에 들어서 노사분규는 그림에서
보듯 '80년에 407건, '81년에 186건, '82년
에 88건, '83년에 98건, '84년에 113건, '85
년에 265건, '86년에 276건이 일어나 연평
균 200건이 발생하는 정도였다. 더우기 정
치적 변혁기였던 '80년을 제외하면 지난 6
년간 연평균 170건의 분규가 일어난데 그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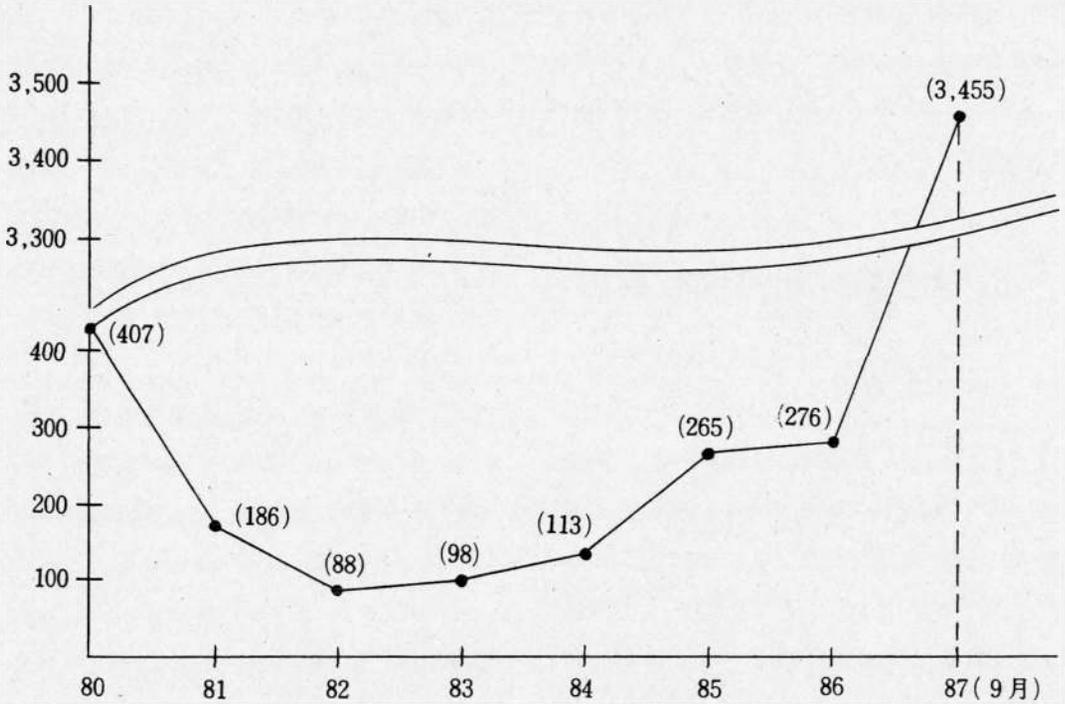
그런데 6. 29 이후 3個月간에 거의 20
배에 달하는 노사분규가 일어났으니 이 시
기를 노사관계 역사에 있어 時代를 가르는
분수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머리를 돌려 日本의 상황을 보면 '84년에
5,300건의 노사분규가 일어났다. 이제 우
리의 노사분규도 질·양적인 면에서 선진
국 수준에 도달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

기업에서 이같이 폭발적인 노사분규가 일
어난 원인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
인으로 나누어 생각 수 있다. 외부적인 요
인이란 대통령직선제를 선언한 「6.29선언」
을 계기로 야기된 사회풍조의 급속한 변동,
즉 開放과 自由化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勞使紛糾가 촉발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잠재되었던 분규요인이 노출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을 뿐 분규의
직접적인 요인이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되지 못한다.

年度別 勞使紛糾 發生



오히려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나 기업내부요인이며, 근로자의 욕구나 의식의 변화에 따르지 못한 소득수준, 관리형태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요인들을 나누어 보면 노조조직 마찰, 임금 및 상여금 인상 등 근로조건, 차별대우와 비인간적 노무관리이다.

그 중 문제해결을 가장 어렵게 했던 것은 노조의 御用性 是非와 直選문제이다. 기존의 노조는 어용노조이니 퇴진하라는 요구이다. 그리고 대의원에 의한 간선이 아니라 총회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

이다. 노조의 이같은 어용성시비는 7월 이후 노조결성이 활발해지면서 노조조직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근로자 집단간의 대립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이른바 근로자들 간의 파벌다툼인 勞勞紛糾다.

한편에서는 새로운 노동운동기류가 탄생하면서 기존의 제도권 내 노조가 다수의 근로자로부터 유리되고 不信任 받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더욱이 이러한 노사분규는 분규원인이 사용자측에 있다고 보고 작업거부와 농성을 병행하는 가운데 문제의 화살을 사용자측에 돌림에 따라 노사분규로 비화되고 말았다.

다음으로는 25~35%의 임금인상을 다시 하고 상여금을 종전보다 100~200% 인상하며 복지후생을 증진하라는 요구이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에서 35%의 임금인상을 주장하였고, 조선공사에서 25%, 대우 중공업에서 25%, 금성사에서 30%의 임금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사실 상반기 중에 대부분의 업체에서 임금인상교섭을 완료했고 韓國 經總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산업에서 평균 9.1%의 임금인상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9월이란 단체협약 유효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전년도 3저호황에 따른 성과배분이 미흡했다면서 임금의 추가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노사간의 연초의 협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더우기 기존의 어용노조가 체결한 임금인상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인정할 수 없다는 풍토는 관계 당사자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것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여하튼 이같은 노사분규과정에서 대폭적인 임금인상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 가지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은 대우나 신분에 있어 차별 철폐와 노무관리제도의 개선문제이다. 생산직과 사무관리직간의 보너스 차등 지급, 퇴직금 차등 지급개선에 집중되어 있으며 간부식당 폐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노무관리나 복무규율

에 있어서는 인사고과제도 폐지, 체조·교육시간의 근무시간으로의 인정, 출근시간 조정, 정년연장, 도급임금제 철폐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특히 경영층의 전결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주식의 무상지급, 특정임원 퇴진, 시설투자의 중단, 하청업체의 직영화 등 노사관계차원을 넘는 요구사항이 제시되기도 하여 노사분규의 과격성을 실증해 주고 있다.

근로자들의 요구사항들을 살피건대 지난 高成長과정 속에서 누적되어온 疎外感과 불만이 일시에 표출되었으며 또한 근로자들의 생활과 교육수준 향상으로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평등의식, 인권의식이 크게 신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영향 및 평가

동시다발했던 지난 노사분규는 기업의 휴업, 조업단축에 따른 생산과 수출차질 피해, 대외신용 감소와 수주격감 등 여러 면에서 기업에 큰 손실을 주었다. 사실 근로자의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사전에 이를 예방을 위해 아예 임금인상을 미리 실시한 기업도 상당수에 달해 분규로 인한 피해와 함께 임금인상에 따른 국민경제의 부담은 엄청난 것이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表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노사분규업체의 임금인상률은 광업이 15.4%, 제조업이 13.4%이었고 연초 인상률

을 합해서 21% 가량의 임금인상이 '87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7年 賃金引上率

| 업종 | 상 반 기 임금 인상률 | | 노사분규로 인 한 인상률 | | 계 (%) |
|-----|-----------------|------------|------------------|------------|-------|
| | 해당근로자 수(명) | 인상률 (%) | 해당근로자수 (명) | 인상률 (%) | |
| 광업 | 48,470 | 5.7 | 833(7) | 15.4 | 21.1 |
| 제조업 | 1,420,629 | 8.1 | 207,997(453) | 13.4 | 21.5 |

* ()안은 사업장수

자료: 노동부

금번 노사분규는 時流를 타고 여름의 水災와 함께 우리 경제와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또한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정상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각 계층의 이해관계를 떠나 엄격히 평가되어야 하겠다. 우선 금번 노사분규를 보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勞使間의 자율적인 문제해결관행과 遵法意識이 희박하다는 사실이다.

단체교섭에 대한 이해, 경험, 능력부족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한 채 요구조건 수락을 강요하며,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거나 어용시하는 좋지 못한 사례가 빈발했다. 또한 노조위원장이 합의한 사항을 거부하는가 하면 협약유효기간 중에 재협상을 요구함으로써 기왕의 노사관계체계가 크게 교란되었으며, 성실한 교섭이나 대화 노력도 없

이 “선농성 후협상” 풍조가 만연되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고, 어용시비와 함께 노조의 대표부재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면 이로 인한 통제력의 약화는 “와일드캣” 스트라이크를 더욱 유발한 셈이 되었다.

근로자들의 이같은 준범의식과 교섭능력의 결여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신뢰상실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난맥상을 보였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노동관계 기본원리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부족에 있었다. 노워크, 노폐이 원칙에 대한 관념조차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파업기간 중에도 임금지급을 요구하는가 하면, 노조활동에 대한 民事上, 刑事上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그것이 適法하고 정당한 것일 때만이라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집단적인 실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들었던 것이다. 이 모든 좋지 못한 의식과 행동은 민주사회의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하루 빨리 불식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는 임금 및 근로조건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직무나 능력과 관련없는 학력 및 직종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은 근로자간의 違和感을 조성하고 분규요인이 되고 있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함을 제시해 주었다.

그리고 勞使政 3자의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였다. 근로자는 그들의 요

구관철을 위한 집단행동, 폭력, 파괴 등 불법적인 선농성 후협상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으며, 사용자의 경우는 현대적 노사관계, 즉 参与와 協同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관계정립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기회였다고 하겠다. 정부에게는 법질서의 유지와 계도자, 그리고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더욱 힘쓰도록 귀중한 교훈을 주었다.

Ⅲ. 勞使展望과 經濟

격렬했던 여름의 노사분규사태를 반성하면서 11월에는 노조활동의 自由를 신장시키고 한편으로는 노사분규를 제도권 내로 수렴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토록 함으로써 노사안정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노동관계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종래 30인 또는 5인 이상이 모여야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했었으나, 금번 개정에서 2인 이상이면 가능케 하여 노조결성을 쉽게 하였다. 또 기업별 노조만 강제하던 것을 고쳐 지역별, 산업별 노조도 근로자들이 원하면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사 후 기존노조에 가입강제되는 “유니온숍”제도 인정되게 되었다.

한편 노동쟁의조정법도 대폭 고쳤다. 파업이 금지되는 冷却期間을 20일에서 그 절반인 10일로 대폭 단축하였고 노사가 합의해서 원한다면 民間人에게 조정을 부탁할

수 있는 조정절차도 별도로 만들었다.

이처럼 노조활동과 파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노동기본권이 크게 신장됨에 따라 '88년의 노사관계는 몇 가지 측면에서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

금년에 1,000개가 훨씬 넘는 기업에서 노조가 생겨났지만 그 여세를 몰아 노조결성이 지속될 것이며, 기존의 산별연맹체의 분화 내지는 새로운 노동연합체의 결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결코 노사관계체계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둘째로는 임금인상교섭을 둘러싸고 빈번한 파업이 예상된다.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으로 파업이 훨씬 쉬워졌다는 사실과 '87년의 13%에 달하는 고성장의 성과배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기업을 둘러싼 내년의 경제여건은 원화가치 절상,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결코 금년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KDI에 따르면 88년의 우리 경제는 7.0%의 성장을 실현하고 48억달러의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하여도, 소매물가는 5~6%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물론 적정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노사간의 안정이 유지될 때 가능한 일이다. 원화가치 절상, 원자재가 상승과 함께 기업이 高賃金을 부담해야 하고 노사분규로 생산과 수출이 또 다시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면 이같은 전망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核의 世界

김 갑 석

〈소령·제3591부대〉

오늘날 核時代의 도래는 産業革命 이후 부터 가속적인 科學文明의 발달과정을 거쳐 1970년대의 石油波動 이래 전기생산을 위해 先進工業國家는 물론, 第3世界의 많은 開發途上國家들이 세계 도처에 原子爐를 많이 건설함으로써 더욱 촉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原子發電은 앞으로 주에너지 供給源이 될 뿐 아니라 副生産物인 플루토

늄(Pu)을 생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自國이 勉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損益을 계산하여 非核保有國의 地位를 선택하고 있지만 국제적 危機의 도래로 안보 및 외교상의 필요에 따라서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로 결정되는 실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核拡散은 핵병기 확산과 핵발전기 확산으로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國際聯合 산하에 있는 國際原子力機構(IAEA)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46개국에서 가동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로 수는 연구용이 3백40개, 발전용이 4백47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어떤 국가이든지 일단 결정만 하면 쉽사리 核爆彈을 제조할 수 있는 것이 現實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폭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高純度의 플루토늄(Pu)이나 濃蓄우라늄이 필요했던 바, 플루토늄 生産爐나 농축공정을 보유하지 않으면 핵무기 제조원료를 입수할 수 없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한 經水爐의 연료찌꺼기에 포함된 低純度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조립한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인도가 최초로 평화적 핵기술 개발의 부산물으로써 핵폭탄실험을 성공하였는 바, 이의 비용도 고작 2,500만달러 정도에 머물렀다는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다.

한편, 원자로 확대사용에 대한 문제로 放

射物質의 漏出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발전시 기계고장으로 인한 냉각작용의 불능으로 爐深融解라는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事故率은 극히 미약하여 원자로의 安全度와 大氣汚染 문제는 염려할 정도는 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핵폭탄이 동원되지 않는 전쟁일지라도 서로간에 핵발전기를 공격한다면 핵전쟁의 경우와 비슷한 피해를 쌍방이 모두 입게 됨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써 원자력은 核擴散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핵개발이 容易하게 됨으로써 더욱 핵보유의 동기를 자극하게 되었다. 특히, 핵무기가 이미 국력의 심벌로서 등장되었고 한 국가의 安保問題를 타국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한 현실이며 핵기술의 軍事的 利用은 어떤 의미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핵무기들은 그 규모가 1Kton 이하로부터 10,000Kton 이상에까지 무척 다양한데 대부분은 40~1,000Kton 까지 비교적 좁은 범위에 포함되는 것들이다. 물론 대부분의 핵무기들도 無防備建物を 파괴한다는데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특별히 堅固한 目標物의 파괴를 위해 굉장히 크거나 혹은 正確한 무기가 필요하다.

최근의 무기는 수백야드 내지 그 이하의

誤差 밖에 나지 않으며 전체적인 破壞範圍 내에 능히 들어가는 고도의 정확성을 보이고 있다.

이 정확성을 위한 전략병기들은 地上發射用미사일(ICBM), 潛水艦發射用미사일(S-LBM), 장거리폭격기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가 현재의 戰略核機能에 관여하며 파괴력을 좌우하는 조건들이다. 파괴력은 무기로 파괴할 예상된 지역과 관계있는 핵능력의 보다 직접적인 指數이며 등량메가톤(EMT)이라고 부른다.

一례로 소련의 병력은 약 4,000EMT의 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지수는 전략 군사력의 세 가지 構成要素들 사이의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며 소련의 경우, 파괴력의 75%는 ICBM에, 약 20%는 SLBM에 의해서 운반되고 단지 5%만이 장거리폭격기에 의해서 운반된다.

핵능력의 또 다른 측정수단으로 荷重(Payload)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전략 군사력이 상대방 목표들에 보낼 수 있는 重量(Weight)이다. 이때는 탄두 뿐만 아니라 誘導裝置의 중량까지도 포함된다.

핵전략 군사력은 예전엔 기존의 미사일들과 發射台에 의존하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폭격기에 적재하는 미사일들을 多彈頭化하고 또 단거리공격용 미사일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보다 최근엔, 미국은 300개의 미니트맨 III 탄두를 더 정확하고 보다 더 강력한 것들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과연 핵무기란 어떤 것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생산되며 폭발 후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논하기로 한다.

핵에 관해 논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그에 관한 科学知識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식은 핵세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핵무장의 諸段階를 기술적 측면에서 概略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기술할 핵논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핵무장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하나는 直接的인 방법으로써 우라늄(U^{235})을 가지고 직접 원폭을 제조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間接적인 것인데 원자력의 平和的利用, 즉 우라늄發電을 비롯한 제반 평화적 용도에 사용 후 그 副産物인 플루토늄(Pu)을 이용하여 핵폭을 제조하는 방법이다.

위의 2가지 방법 중 직접적인 경우에는 濃蓄우라늄을 얻기 위한 공정설비의 경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 후 전기를 얻고 이에 附隨적으로 나오는 플루토늄을 이용하는 방법이 매우 경제적이라는 것에 비해서는 현실적으로 追求性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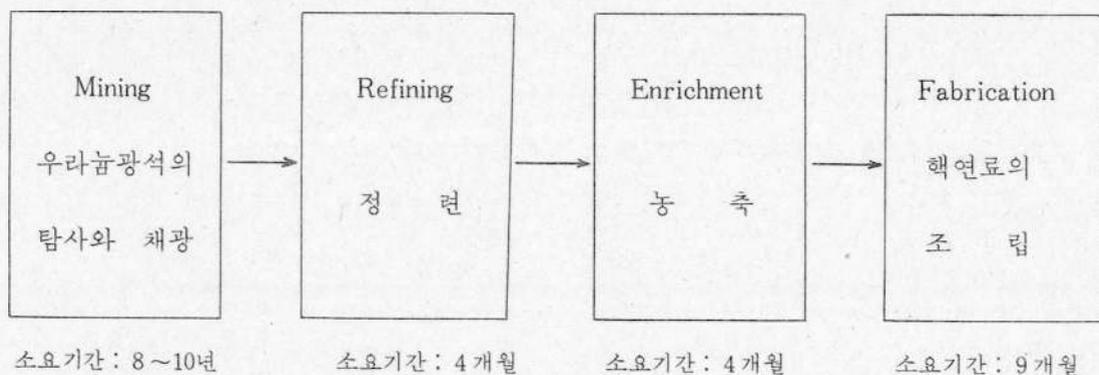
현재 많은 開途國들이 이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 이유가, 이 방법이 低廉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으로부터 출발하여 潛在的인 핵무장국가에 이른다는데에 있다. 그러면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핵무장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연료의 확보, 원자로의 가동 및 핵연료의 재처리, 마지막으로 원폭제조 의 4 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핵연료를 보면, 핵분열성 물질인 우라늄(U^{235})이나 플루토늄(Pu^{239})은 中性子와 충돌하여 핵분열 連鎖반응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낸 후 여러 개의 핵분열생성물(Fission Product)로 남는다. 그리고 이 연쇄반응은 핵연료 속의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있어서 보통연료와는 크게 다르다.

또한 일단 연소된 연료(Spent Nuclear Fuel)일지라도 재처리 과정을 통해 또 다시 핵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보통연료와 다른 보다 큰 차이점이다.

오늘날 핵연료로써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Fissile Materials)물질은 우라늄(U), 토륨(Th), 플루토늄(Pu)의 3가지로 알려져 있다. 이 중 天然적으로 산출되면서 가장 널리 쓰이는 우라늄(U)은 중성자의 수가 다른 세 개의 원자, 즉 U^{234} , U^{235} , U^{238} 로 구성되며 그 중 U^{234} 는 含量이 적고 U^{238} 은 연쇄반응을 加速시키는 빠른 중성자가 없어 모두 핵연료로 부적당하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연료로서의 우라늄은 U^{235} 로서 가장 적절하다. 그러나 이것 또한 含有率이 0.7% 밖에 되지 않아 위에서 언급한 농축과정(Enrichment Plant)을 거친 우라늄이 엄밀히 말해 우리가 지칭하는 U^{235} 인 것이다.



〈핵연료의 제조과정〉

우라늄 농축과정을 포함한 핵연료 제조과정은 대체로 우라늄광석의 精鍊과 농축을 거쳐 원자로에서의 적합한 형태로 가공되는 과정이다. 여기서 소요기간은 약 8~12년이 걸린다.(그림 참조)

이렇게 농축된 우라늄은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일으킴으로써 플루토늄(Pu^{239})이 되는데 이 원자로의 기능이 바로 연쇄반응을 서서히*制御시키면서 일으키는 장치인 것이다.

원자폭탄도 이러한 핵분열의 原理를 이용한 것인데 원자로에서의 제어와 漸進的 연쇄반응과는 달리 원폭의 경우는 광범위하게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핵무기에 사용하는 플루토늄(Pu)은 그 함유율이 90% 이상되는 고순도의 플루토늄이어야 사용 가능하며 알려진 바로는 우라늄을 원료로 가동되는 40MWe(전력단위)의 원자로는 연당 20kg의 플루토늄(Pu)을 생산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

한 T. N. T 10~20Kton 정도의 위력을 갖는 원폭은 플루토늄 5~6kg이면 충분히 제조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정도면 그 製造量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참고로, 1975년 이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3개 핵발전기는 매년 240~300kg의 플루토늄(Pu)을 생산하여 1982년까지만 해도 그 生産量이 820~1,000kg의 플루토늄에 달했고 이 양은 약 200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서술한 바에 의해 핵원료인 우라늄을 이용하여 복잡한 製造工程을 거쳐 탄생된 핵폭탄의 폭발시 效果를 다음에서 알아보자.

핵무기의 破壞力面에서는 그 效果가 다양하다. 대개는 熱효과, 爆風효과, 放射能효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폭풍효과를 살펴보면 현재로서 표준형무기인 메가톤(100만)급 폭탄을 기준해서 생각해야 한다. 낮은

고도에서 폭발시킨 경우 1 Mton의 폭탄은 폭발의 9.6km, 10Mton은 22km, 100Mton은 48km 이내의 목조건물을 모조리 부숴버릴 수 있다. 벽돌건물의 아파트라면 파괴력의 有效範圍가 1 Mton 폭발지점에서 6.4km, 10 Mton에서는 14.5km, 100Mton이면 30km에 달한다. 좀더 견고한 빌딩의 경우 1 Mton 폭탄은 5km 이내라면 전부 부숴버릴 것이고 100Mton이면 半径 19km의 범위 내의 것은 전부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 보통의 지하대피소도 100Mton이면 8km 이내는 모조리 파괴가 된다.

두번째로 열효과를 보면, 이들 폭탄의 熱閃光은 넓은 범위에 걸쳐 노출되어 있는 건물들을 삼시간에 불태울 수 있다.

맑은 날이면 1 Mton 폭발시 14.5km 거리에서 2도 熱傷을 일으키고 10Mton이면 38km, 100Mton쯤 되면 120km 지점에서도 같은 화상을 입게 된다. 거의 같은 유효범위에 걸쳐서 열섬광은 전부를 불사를 것이다. 물론, 發火의 범위는 폭발의 고도, 지형, 습도, 노출된 물체의 건조상태 등 기타 여러 요소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위의 2가지가 복합된 火焰爆風은 불의 중심지점에서 뜨겁고 둥근 불기둥을 만들고 거기에 공기가 사방에서 세차게 몰려 들어 블로우램프(연관공이 쓰는 일종의 램프)와 같은 작용을 하여 부근 일대가 맹렬한 불꽃으로 飽和狀態를 이루게 된다. 히로시마에서는 원자폭탄에 의하여 시작된 화염폭풍이

풍속 48km에서 64km의 폭풍을 일으켰고 12시간동안 30평방 km 정도의 지역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 또한 이 화염폭풍의 습격을 받은 지역의 산소는 다 타게 될 것이며 깊은 지하대피소에 있는 사람마저 산소의 보급이 끊어져 질식사하게 된다.

핵폭탄의 폭발고도에 따라 폭발효과가 틀려지는데 飛翔한 고도에서 폭발시킬 경우, 화염폭풍의 효과가 커지고 낮은 고도에서는 방사능효과가 최대한으로 발휘된다. 이 방사능효과는 복잡하다고도 할 수 있다. 핵폭탄이 폭발했을 때 막대한 양의 r 선과 중성자를 방출하는데 폭발 후 최초의 閃光은 화염폭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죽일 강한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그 致死半径이, 100Mton인 경우 5km가 된다. 이 범위는 화염폭발효과에 비해 월등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侵害半径이 좁은 이유는 r 선과 중성자는 공기 속의 原子에 급속히 흡수되기 때문이고 한편으로 大氣圈 밖에서 폭발할 경우엔 공기가 없는 까닭에 放射線은 수천 km라는 먼 곳까지 미칠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방사선의 위험도는 제1섬광이 아니라 폭탄의 방사선 파편이 낙진 후 몇 년까지도 인체에 해로운 방사선을 방출하는 이유에 편승한다.

우리가 医学上으로도 X선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100 렌트겐(방사선의 단위) 이하에서는 급성적인 영향을 입지는 않지만 200 렌트겐부터는 치사에 관계하며 과다한 양을

찌였을 때는 탈모, 출혈, 오한과 경련으로 放射線症이 나타나서 결국 사망의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상과 같이 핵폭발로 인한 환경의 변화는 생활을 영위할 수가 거의 없게 되어 있다. 낙진에 오염된 땅에서 식량을 구할 수 없을 것이며 완벽하게 핵에 침해당하지 않은 사람마저 유전계승으로 죽는 날까지 고통을 받으면서 파괴된 전쟁터 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대부분 또한 敵意에 찬 환경으로 변할 것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논술한 내용들은 핵 전반에 관해서는 매우 短篇的인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공업국가나 개도국들이 핵무기를 多量 보유했거나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이 지구는 언제든지 핵전에 휘말릴 수 있는 時限爆彈과도 같은 것이다.

核의 出現으로 전통적인 국제정치구조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아직까지도 자국의 실리추구라는 명목으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자원활용을 위해 미래의 핵확산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각국의 갈등이 대립되어 있는 형편이다.

現視点에서 우리가 중시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핵의 확산방지와 핵을 보유한 상대국간의 마찰을 줄여 위험수위에 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전 人類의 노력과, 방어의 모색일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로서 세계의 平和와 安定이 지속되기를 바랄 뿐이다.



국제 테러리즘

- 새로운 분쟁의 형태 -

김 석 우

(소령·공군본부)

본 문은 미국 Rand Corporation의 선임연구원으로 제킨스박사(DR. Brian M. Jenkins)의 국제분쟁과 관련한 정기 연구보고서를 완역한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테러리즘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주목이 되는 것은 국제테러리즘을 저강도수준의 폭력을 사용하는 새로운 전쟁의 한 양태로 봄으로써 국제테러리즘의 국가적 도구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사회라는 환경적 조건이 국가간 갈등해결의 수단으로, 저강도수준의 폭력사용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며, 국가에 의한 테러의 수단적 수용현상은 핵시대에 있어 국가수단으로서 폭력사용패턴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재래식전쟁의 기하학적 전비요구와 파괴성은 무력사용을 통한 갈등해결을 비합리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런조건하에서 은밀성이 보장되고 비용대 효과가 큰 국제테러리즘의 국가에 의한 대리전적 사용현상은 전쟁의 수단성을 논한 “전쟁은 다른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라는 명제를 “무장평화상태”인 현 국제질서하에서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어쩌면 국가의 마지막 수단인 무력사용의 실행자이자 관리자인 군인이 국제정치체제내에서 무력사용의 추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이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끝으로 본 논문의 번역은 칼톤(David Carlton)과 샤에프(Carlos Schaerf)가 편집한 International Terrorism and World Security(London : Croom Helm LTD., 1975)에 실린 것을 참고했음을 밝혀둔다.

- 역 자 주 -

○서 론(Introduction)

과거 수년동안에 테러리즘은 현저히 증가되어온 것 같다. 세계도처에서 정치적, 범죄적 극단주의자들은 공항이나 기차역 등에서 승객들을 공격했으며 정부건물이나 다국적 기업의 사무실 또는 레스토랑이나 극장 등에 폭탄을 투척했으며 비행기나 배를 납치하기도 하고 심지어 싱가포르에서는 유람선을 납치하기도 했다. 또한 수백명의 승객들을 인질로 잡기도 하고 대사관을 점령하기도 했으며 정부 고위관리나 외교관 또는 통상대표들을 납치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거의 매일 신문지상에서 새로운 사건들을 접하게 된다. 테러분자들은 국외에 거주하면서 외국시민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 나라저 나라로 옮겨 다니기도 하며 또는 자국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테러리즘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요소(Element)가 되고 있다.

○테러리즘의 정의(Defining Terrorism)

우리가 테러리즘에 관해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인가? 정확하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의(Definition)는 없다. 저명한 한 법률가는 테러리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즉, 테러리즘은 본질적으로 범죄의 고전적 형태인 살인이나 방화, 폭발물을 사용하는

행위들이나, 테러분자들은 안정된 사회속에서 고통이나 무질서, 테러 등을 야기시킬 계획된 의도들을 가지고 행동하며, 사회규율을 파괴시키고 사회의 상호관련하는 힘들을 약화시키며 조직내에 불행과 고통을 증가시키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범죄행위들과는 다르다. 미국의 두 학자들이 테러리즘에 관한 보다 넓은 의미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살인, 암살, 고의적 파괴행위와 전복 공공기록물의 파괴, 소문전파, 교회의 점거, 재산의 몰수, 법집행의 마비, 법정파괴행위, 언론의 마비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같은 목적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테러를 구성하고 있다”

모든 법률가들과 학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테러리즘을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없이, 잠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서술에 만족할 수도 있다. 즉, 폭력의 위협, 개별적인 폭력행위 또는 사전에 공포를 야기시키기 위해 계획적인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것을 테러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다. 테러리즘은 효과창출을 위한 폭력사용이며, 때로는 테러분자의 실제적인 희생에 비해 전혀 효과가 없기도 하다. 사실상 테러희생자들은 테러분자의 원인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테러리즘은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목적으로한 폭력이다. 공포는 테러리즘의 부산물이 아니고 의도적인 효과인 것이다. 최소한, 이것은 테러분자들의 전술과, 테러화할 수는 있으나 테러리즘은 아닌

다른 일반적인 형태의 폭력범죄와는 구별된다.

우리가 테러분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혁명론자들과 정치적인 극단주의자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범죄자들 그리고 일부의 진실로 광적인 사람들을 포함한다. 테러분자들은 혼자 활동할 수도 있으며 잘 조직된 큰 집단의 일원일 수도 있다. 심지어 테러분자들은 정부의 요원일 수도 있다. 그들의 의도는 그 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지만 모든 정부의 파괴와 같은 극단적인 목표일 수도 있으며, 또한 그들의 의도는 특별한 인종집단을 위한 자치력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이성적이며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일 수도 있다. 또한 그들의 동기가 순전히 개인적인, 즉 돈이나 복수 등일 수도 있다. 테러분자들의 야망은 일부지역을 전복하는 것과 같은 한정되고 지역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또는 세계 전체를 동시에 전복시키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다.

○테러리즘이란 용어의 전향적 사용(Promiscuous Use of the Term "Terrorism")

테러리즘이란 용어는 최근에 전향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의상 엄격하게 말해 테러리즘이 아닌 다양한 폭력행위들에도 종종 적용되는 말이 되고 있어서, 테러리즘을 정의하기가 매우 복잡하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경멸하는 뜻을 담고 있다. 몇몇 정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반대자들에 의해 행해

지는 모든 폭력행위들을 테러리즘으로서 진압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에 극단적인 반정부주의자들은 종종 정부테러의 희생자들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소위 테러리즘이라는 말은 관점에 따라 좌우되는 것 같다. 테러리즘이란 말의 사용은 도덕적인 판단을 내포하고 있으며, 만약 한 정당이 그 반대자들에게 테러분자라는 딱지를 붙이는데 성공한다면, 그 행위의 도덕적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다른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설득한 것이다. 테러리즘은 나쁜 놈들이 하는 짓들이다.

또한 테러리즘이란 말은 관심을 얻어 내기 위한 말이며, 특히 이 말은 어떤 폭력행위의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언론매체에 의해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은 오히려 부정확하게 정의된 약간 너절한 말이다. 테러리즘은 다양한 목적으로 공포와 경고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기본적인 의도를 가진 특별한 행위들을 지칭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언급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테러리즘이란 말은 폭력과 비슷한 행위들에 적용되고 있다. 즉, 모든 납치사건들과 비행기납치 사건들, 살인사건들은 범죄자에 의해 기본적으로 공포를 야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

어떤 집단이 테러행위를 수행하면, 테러분자라는 딱지가 붙게 되며 이때부터 이 딱지는 고정되게 되어 이후로 이 집단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것이 공포를 야기시킬 의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테러리즘이라고

불리워진다. 만약 은행을 털다든지 무기를 훔친다든지 하는 등의 테러리즘행위가 아니고 일반적인 도시계킬라 행위들이 발생한다면, 이것들을 테러리즘이라고 말한다. 결국 다른 껍이나 단체들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비슷한 행위들이 테러리즘이라고 불리워지게 된다. 이 용어를 이렇게 확대해서 사용하는 일부 관점에서는 테러리즘이란 말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것, 즉 반대자에 의해 행해지는 거의 모든 종류의 폭력을 의미할 수도 있다.

○테러리즘의 이론(The Theory of Terrorism)

테러리즘은 종종 지각없는 폭력이나 의미 없는 폭력 또는 비이성적인 폭력 등으로 묘사된다. 만약 우리가 소수의 진실한 광적인 사람들의 행위를 고려한다면, 테러리즘은 지각이 없거나 비이성적이지 않다. 테러리즘에 대한 이론이 있으며 이것은 종종 이용된다. 이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테러리즘은 궁극적으로 수단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다시말해서, 비록 테러행위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이러한 점을 망각하고 폭력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테러리즘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테러분자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요점을 놓치기 쉽다. 왜냐하면, 테러리즘의 목적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 종종 흐려지기 때문이다. 즉, 특별한

테러공격이 무작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목표물에 대한 살인이나 파괴가 테러원인행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어떻게 문헌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을 죽이거나 로마의 루프환자 여객기를 납치하는 등의 행위가 중동의 팔레스타인인 곤경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맨하탄에 있는 사무실을 폭파시키는 것이 라틴아메리카의 독재자를 타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테러리즘의 목적은 전통적인 전투의 목적들과는 다르다. 테러분자들은 영토를 차지하거나 반대자들의 힘을 물리적으로 파괴시키려 하지 않는다. 보통 테러분자들은 이러한 힘이 없으며, 만일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적용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 우리는 테러목적과 테러리즘의 논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때때로 비극적인 모호성을 가지기도 하는 독립된 테러분자행위의 명백한 무의미를 뛰어넘어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테러분자들이 살인을 할지라도— 때로 변덕스러운 우리들의 기준에 의해—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테러리즘의 대상은 대량 살상이 아니다. 테러분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많은 사람들이 보거나 듣기를 원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신뢰성있는 위협이나 파업능력의 과시등은 실제적으로 위협적인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종종 선호하는 테러분자의 관점에서 기인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함축된 기술적인 어려움과는 별도로

왜 테러분자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동시 상수도에 생화학물질의 투여를 통해 독약을 만들거나, 무시무시한 손실을 가져오는 테러행위를 행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테러의 목적(Purpose of Terror)

테러분자들은 다양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공포를 야기시키고자 한다. 테러리즘은 동시에 여러가지 목적들을 그 목표로 할 수도 있다. 즉, 테러분자들에 의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별한 전술적인 목적들, 그리고 전술이나 목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게 들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인 목적들을 그 목표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첫째, 테러리즘의 개별적 행위들은 살인이나 파괴위협을 통해 몸값의 지불이나 죄수의 석방 또는 테러분자의 메세지공포 등과 같은 특별한 양보획득을 그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테러분자들은 극적인 인질상황의 창출을 통해 협상력의 향상을 추구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로 하여금 자신들의 특정요구를 실행하도록 강요한다.

둘째, 테러리즘은 대중성(Publicity) 획득을 그 목적으로 한다. 테러리즘을 통해 테러분자들은 자신들의 테러원인행위 의도에 대해 관심을 끌기를 원하고 있으며, 인식하고 숙고해야만 하는 세력으로서 자신들을 투영시키고자 한다. 깜짝 놀랄만한 폭력행

위와 두려움과 경고의 분위기에 의해 획득된 대중성은 테러분자들과 그들의 운동의 중요성 그리고 힘을 사람들이 과장되게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대부분의 테러단체들은 실제적으로 매우 소규모이며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폭력은 보다 더 극적이며 자주적이어야만 한다.

테러분자들의 공격은 종종 전파매체와 국제적인 언론의 주의를 끌기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계획된다. 인질을 잡아 억류하는 것은 극적효과를 높여준다.

만약 어떤 요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인질들이 살해될 수도 있다. 인질 개개인은 종종 테러분자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테러리즘은 실제 희생자들이 목적이 아니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그 목적으로 한다. 테러리즘은 영화와 같은 것이다.

이점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에서 일어난 최근의 본보기인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익숙한 “공생해방군”(The Symbionese Liberation Army)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두개의 “공생해방군”이 있는듯 하다. 그들 중 하나는 거의 매일 T.V.나 신문에 나왔다. 모든 사람들은 머리가 일곱개인 코브라상징을 보아왔다. 수백명의 사람들이 “공생해방군”의 테이프를 들었다. 수 많은 경찰병력과 F. B. I.요원들이 그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테러를 하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사람들을 흥분시켰다. 또 다른 “공생해방군”이 있었는데 이들이 진짜 “공생해방군”이었다. 이 단체는 한때 12명정도의 구성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아마 3명정도 있다. 이들은

한건의 살인과 한건의 납치 그리고 인질자
족에게 자금을 받거나 강제로 탈취해서 음
식을 나누어 주었으며, 한건의 은행절도와
몇건의 차량절도 등을 했으나 한건의 범죄
곡선도 없었다. 이들 두 “공생해방군”의 차
이점은 실제적인 폭력의 양과 그 폭력의 커
다랗게 확대된 효과사이의 차이에 있다.

테러리즘이 테러단체의 위치와 테러원인
행위의 중요성을 확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또 다른 예가 있다. 분란자들(Insurgents)은
앙골라와 모잠비크 그리고 포르투갈의 구아
네아(Guinea)에서 도시게릴라의 표준적 전
술을 사용하여 14년간 싸웠다. 그들의 투쟁
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못했으
나, 반면에 테러전술을 이용하여 싸운 그들
과 거의 같은 수의 팔레스타인테러분자들은
불과 수년만에 전세계의 가장 중요한 관심
사가 되었다.

때때로 대중성(Publicity)은 테러사건의 선
도효과로서 공포(fear)를 앞서기도 한다. 예
를들면 자정에 은행이나 영사관에 폭탄을
투척하는 행위는 인명이나 재산에 거의 손
실을 주지 않는 전적으로 상징적인 행위일
수가 있다. 반면에 자신들의 존재와 응집력
또는 반대를 선포하는 그래피티(Graffiti)의
폭력형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은 하
수인들의 폭력에 의존하려고 하며 미래의
폭력사용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고 비록 테
러는 아닐지라도 공포를 야기시킨다는 점이
며, 따라서 테러리즘이라 불리워진다.

세째, 테러리즘은 광범위한 무질서와 사
회의 도덕을 타락시키며 사회질서를 마비시

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혁명적이며 허무주의적이고 무정부주
의적인 테러분자들이 전형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다. 혁명은 수행될 것이라 하면
서 테러분자에게 가담하기를 꺼리는 성급한
사람에 대해 테러는 사용되며 테러분자들은
사회의 정상적인 규칙과 관계를 용납할 수
없는 자기만족으로 거부한다.

만약 정치적인 순종의 잇점이 파괴되거나,
미참여의 만족이 허락되지 않거나, 시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능력(결국 정부가 존재하
는 근원이며 가장 기본적인 이유인)이 비능
률적인 것으로 나타나거나, 정부가 야만적
이며 맹목적으로 대응하거나, 그리고 계속
되는 테러분자와의 싸움을 무마시키지 못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반
대자들과 합세할 것이며 혁명은 성취될 것
이다. 그러한 전략은 흔히 역효과를 가져온
다. 테러분자에 의한 무작위적 폭력사용은
동조자들로 하여금 테러분자의 폭력사용에
등을 돌리게하며, 테러분자를 봉쇄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지지하도록 만든다.

네째, 테러리즘은 궁극적으로 인기가 없
는 정부의 붕괴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행위
들, 즉 억압과 보복 그리고 반테러리즘을
야기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에 그러한 테러리즘은 종종 정부공안
(Government Security)이나 공안요원을 지
향하여 사용되어 왔으나, 외국외교관의 납
치, 고의적인 분노행위의 형태가 있었고 정
부를 당혹케 하기위해 시민들에 대한 무작
위적인 폭력을 사용했으며, 과도한 정부의

대응을 강요하기 위한 테러사용의 예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테러분자들에 의해서 자괴파괴의 길로 유도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 테러리즘은 복종이나 협조를 강요하기 위해 사용되어진다. 이런 테러사용은 국가나 공적 테러리즘(Official Terrorism)의 일반적인 목적이며 이는 소위 “제도적 폭력”(Institutional Violence)라 불리어진다. 그러나 테러분자 자신들도 조직내 구성원의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성원에 대한 제도적 폭력을 사용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테러분자가 원하는 결과는 처방된 행위형태, 즉 국가나 행위원인에 대한 복종, 또는 조직내 침투자나 적을 식별해 내거나 제거키 위한 완전한 협조인 것이다. 그러한 테러리즘의 성공은 공포분위기의 조성에 의존하며, 국내공안조직의 가시성에 의해서 강화된다.

다른형태의 테러리즘과 마찬가지로 복종의 강요를 목적으로 하는 테러리즘은 고의적인 극적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즉 망명자 납치나 신비스러운 암살, 자정에 반체제인사의 체포, 지하감옥이나 집단수용소 그리고 고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형태의 테러리즘에서 처럼 테러사용의 목적은 이런 행위들이 목표관중에 대해서 미치는 효과인 것이다. 그러나 강제테러리즘(Enforcement Terrorism)은 때때로 희생자를 무작위적으로 선택하며, 전반적인 대중성을 추구치 않고 특히 국제적 수준의 테러사용에서는 더욱 대중성추구를 원치 않는다.

여섯째, 테러리즘은 때때로 처벌하는 것(Punishment)을 의미한다. 가끔 테러분자들이 자신들의 공격희생자로 선언하는 것은 희생자가 사람이던 대상이던 간에 다소 죄가 있거나 테러분자들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 대한 상징이다.

사람은 자신 스스로 죄를 지었거나 —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불복종하거나 또는 테러분자를 밀고하는 — 또는 자신이 유죄단체(Guilty Party)와 은밀히 협조했다는 것 때문에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협조했다는 것”은 가끔 개인이 적으로 간주되고 있는 정부를 위해 일을 하거나, 은밀히 협조했거나 또는 대상적국의 입국비자를 발급 받았을 경우나 적국의 항공기로 여행을 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과 같이 광의로 해석되어진다. 테러분자의 희생자들은 희생자들의 성공이 테러분자가 혐오하는 생활신조를 나타내는 체제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에 목표물로 선택되어져 왔다. 대상물이나 건물들은 테러분자가 혐오하는 정부나 제도 그리고 체제의 상징물이란 점 때문에 파괴되어져 왔다.

테러리즘에는 다른 형태의 전쟁이나 정치에 비해 보다 강한 죄와 처벌의 함축성이 있으며 보다 좁은 “죄없는 방관자”(Innocent Bystander)의 정의를 가지고 있다. 테러분자에게는 죄없는 방관자란 거의 없다.

1972년 Lod국제공항 학살사건의 희생자상당수는 Puerto Rico에서 온 기독교순례자들이었으며, 공격행위를 행한 테러조직에 의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입국비자에 의해서 이

스라엘에 도착했고 이로서 팔레스타인의 적으로 선포된 국가를 은근히 인정했다는 점과 이스라엘에 들어옴으로써 이들은 사실상 전쟁지역에 들어 왔다는 사실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된 죄를 지었다는 것이다. 즉, 테러분자들 중 한 지도자는 “이스라엘에 죄없는 관광객은 한 사람도 없다”고 간단히 말했던 것이다.

이러한 Lod국제공항 학살의 합리화는 재미있는 본보기이며, 테러분자들이 사실에 의거 테러희생자가 죄가 있음을 선언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양태의 틀에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살행위를 행한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The Popular Front for the Liberation of Palestine)은 희생자들이 불행하게도 십자포화에 걸려 희생된 죄없는 방관자였다는 사실에 대해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 테러단체에는 자신들이 이스라엘로부터 입국비자를 받은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동 테러조직은 총격을 받은 사람들이 단순히 좋지않은 순간에 사건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희생을 당한—사건장소에 있지 않았다면 총격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총격을 받았다는 사실자체가 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테러희생자들은 그들이 테러분자의 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희생자가 되었기 때문에 적이 되었다.

테러분자들은 죄의 양도와 정의의 집행에 대한 상대적 주장을 통해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합리화시키며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성

을 확립하려고 한다. 대다수의 정치테러분자들은 강한 도덕적 분노와 자신들의 원인행위 정당성에 대한 절대적 신념에 물들어 있다. 테러분자들은 행위를 통해서 대상관중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같은 도덕적 분노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려고 시도하며, 동시에 자신들의 도덕적 신념을 강화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테러리즘의 선도적 효과는 공포와 놀라움이나, 테러리즘은 다양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즉, 테러는 특별한 양보획득, 테러분자와 테러원인행위의 전과, 사회적 규범의 해체, 억압의 창출, 테러조직과 조직존재원인에 대한 굴복, 그리고 테러분자들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등에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하나의 테러행위는 이러한 목적들 중의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달성하려고 시도될 수도 있다. 테러리즘은 국가의 수단인 동시에 혁명단체와 다른 반정부세력의 전술인 것이다.

○무분별한 폭력이나, 아니면 선택된 폭력이나(Indiscriminate or Selective Violence)

테러리즘은 무분별한 폭력이거나, 또는 고도로 선택된 폭력으로 나타난다. 총체적이고 고의적으로 무차별하게 나타나는 폭력은—즉, 테러분자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투쟁의 어느 한쪽에도 개입하지 않는 죄없는 방관자인 일반시민에 대해 무작위적으로 나타나는 테러공격—때때로 순수테러리즘(Pure

Terrorism)이라 불린다. 테러분자들이 승객이 단순히 현장에 있으므로 해서 죄가 있다고 강변할지라도 이스라엘 Lod국제공항에서의 승객학살, 그리고 다수의 관광객이 죽거나 다친 런던탑폭파사건은 거의 순수테러리즘에 가깝다. 순수테러리즘은 냉소적인 것이나 주의를 끄는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며 경악을 창출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보호수단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대상이다.

그러나 테러분자에 의한 모든 테러행위는 무분별한 것이 아니다. 테러분자들은 정상적으로 선택적이기를 원한다. 그들은 특정 지도자를 살해할 수 있으며, 아마도 처형자 명단의 공개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성한 희생자들이나 잠재희생자에 대해 사건경고를 하고, 이로서 아직도 살아있는 선택된 희생자에게 공포심을 주입시키는 것이다. 또는 테러분자들은 선택된 단체의 구성원만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 예를들면 경찰이나 마을 지도자들이 목표대상이 될 수가 있다.

무차별한 폭력은 일반대중에게 보다 큰 공포와 경악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고, 선택적이나 예측할 수 없는 공격은 선택된 단체에 있어 보다 큰 경악을 창출할 수가 있다. 때때로 테러분자들은 실제적인 물리적 목표물선정에 있어 매우 선택적일 수가 있으나— 예를 들면 정부청사나 특정 항공사의 항공기등의 선택— 목표물에 대한 실제적 공격이나 폭파에 의해서 어느 누가 희생되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폭력행위는 무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국제테러리즘의 정의 (Defining International Terrorism)

국제테러리즘의 정의문제는 국제정치에 의해서 복잡하게 얽혀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테러리즘이라 부르도록 동의한 약간의 사건범주— 예를들면 항공기공중납치나 외교관납치—를 제외하고는 국제테러리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국가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가장 간명한 국제테러리즘의 정의는 명확한 국제적인 결과를 야기시키는 테러리즘행위들로 구성된다. 즉, 테러분자들이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거나, 테러분자들이 선택한 타격목표가 외국과 연결되는 경우(외교관, 외국기업의 중역과 같은 대상목표의 선택) 그리고 국제적 비행 중에 있는 항공기를 공격하거나 이러 항공기를 다른나라로 납치했을 경우 이런 행위들은 국제테러리즘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부나 테러단체가 속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 국내 반정부 테러단체의 폭력행위가 행하여졌을 때, 이 행위가 외국과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이는 국제테러리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국제테러리즘은 외부에서 국제외교와 전쟁의 규칙과 절차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폭력행위 또는 폭력전쟁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규칙을 파괴하는 것은 외교관이나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사람과 국제여행과 무역을 공격하는 것이며, 전통적인 규칙면에서 볼 때

지역분쟁의 참여자가 아닌 국가에 대해서 다양한 수단에 의해 폭력을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테러리즘은 “체제”(System)에 대항한 체제밖에서(Outside System) 강요되는 폭력인 것이다. 따라서 체제의 규칙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들면, 적어도 이론측면에 있어 모든 형태의 전쟁들은 투쟁에 직접적으로 가담치 않는 일반시민의 범주를 인정하고 있으며—예를들면 여자와 어린이—, 이들은 폭력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테러분자들은 면죄대상으로서 일반시민을 거의 인정치 않고 있다. 테러분자들은 개인을 적으로 간주 공격대상목표로 선정하며, 이는 단순히 목표로 선정된 개인의 국적, 종족 또는 종교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또는 개인은 단순한 우연(Chance)에 의해서 공격목표가 될 수 있다. 즉, 폭탄이 터졌을 때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거나, 승객들이 기총소사를 받을 때 공항대합실을 걷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공격목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테러분자라 불리어지는 자들이 항상 무분별한 살인자이나, 군대라 불리는 자들은 항상 신중하고 분별력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인 것이 우리의 테러리즘정의를 정당치 못한 것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즉, 이것들은 단순히 우리들로 하여금 군인들도 때때로 테러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토록 만들고 있다. 사실상 제 2차세계대전 동안에 양자(테러분자와 군인)에 의해서 행해진 다수의 폭과전쟁은—예를 들면, 폭과

목표 자체가 적에게 무용의 군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격이 처벌을 가하고 적국 국민사이에 혼란과 충격 그리고 무질서를 야기시키기 위해서 실행된— 이러한 우리의 테러리즘정의에서 볼 때 테러리즘으로 간주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정의에 의하면, 최근 혁명단체나 다른 반정부단체들에 의해서 수용되고 있는 국제테러리즘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라 볼 수 있다. 그것은 영토가 없는 전쟁이며 군대가 없는 전쟁인 것이다. 그것은 전세계적인 무대에서 산발적으로 영토적인 한계가 없는 전쟁이며, 중립자가 없으며 일반시민과 같은 죄없는 방관자가 존재치 않는 전쟁인 것이다.

우리는 테러리즘을 혐오하며 이것의 국제적인 사용에 대해 비난할 수 있으나 테러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견을 주장할 수 있다. 테러분자들은 자신들이 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서구국가에 의해서 고안된 규칙들에 준거해서 행동해야만 되는가를, 그리고 이런 규칙들이 인정된 정부, 영토, 군대가 없는 일단의 단체로부터 폭력수단에 의존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을 경우, 동규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지를 반문하고 있다. 더우기, 규칙에 따른 행동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없다. 규칙을 깨뜨리는 행동이 세계이목 집중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광의의 두 가지 국제테러리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다. 즉, 국제적 억압형태의 테러리즘행위와 수용된

외교와 전쟁의 규범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러한 정의는 국제법의 보다 엄격한 요구에 부응치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폭력행위들은 국제테러리즘의 행위로 정의되어 왔으며 다양한 합의와 협약에 의해 불법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 합의는 민간여행기와 외교관에 대한 공격과 같이 널리 사용되는 테러전술에만 국한되고 있으며 국제테러리즘의 총체적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과 같은 다양한 국제토론회에서 국제테러리즘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불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국제테러리즘정의 노력은 이미 언급한 항공기납치(Hijacking)와 외교관납치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국제테러리즘을 불법화하기 원하며 —적어도 어느 누구도 테러리즘을 대변치 않고 있다— 개개의 국가는 무엇이 국제테러리즘인가에 대한 다른사고(Different Idea)를 가지고 있다. 결국 한국가에서 테러분자가 다른 국가에서는 “자유의 투사”(Freedom Fighter)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개개의 국가는 국제테러리즘을 불법화하기 원하며, 자신들이 테러리즘이라 간주하는 행위를 국제테러리즘의 정의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일단의 국가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국제테러리즘이라 볼 수 없는 외부 적대자나 국내 반정부인사, 외국에 망명 중인 반정부인사에 의한 잠재적 행위를 국제테러리즘의 정의에 포함시키려고 하며, 이

는 이런 행위를 국제법에 의해 불법화 시키는 것이 자국정부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정의가 받아들여 진다면, 이는 현상(Status quo)을 시인하는 효과를 가진다. 동시에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국제법을 창출할 수 있는 국제테러리즘의 정의를 피하려고 용의주도하게 행동하고 있다. 적대자를 국제적 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것은 적대자의 일에 대한 간섭이 용이한 구실을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또한, 특히 현대적 재래식 전쟁이란 수단을 가지지 못한 일단의 국가는 국제테러리즘의 불법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고의적으로 민족해방전쟁(National Wars of Liberation)과 게릴라전(Guerrilla Warfare)과 같은 투쟁수단을 테러리즘의 정의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이들은 이런 투쟁수단을 사용하기 원하며 자신들이 후원하고 있는 폭력사용원인행위를 대신해서 이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단일화된 정의창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특정행위나 잠재행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도출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최근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국제연합 특별위원회(UN Adhoc Committee) 토론회에서 명백하게 표출되었다. 예를들면, 하이티정부는 테러리즘이란 “개인이나 일단의 단체에 의해서 외국영토에서 행하여 지는 폭력행위나 폭력사용 위협 또는 정치적 달성을 위해 국제적인 보호를 받는 개인에 대해서 장소에 무관하게 행하여 지는 폭력행위”라 정의되어 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것은 상당히 전쟁의 정의와 관련되고 있다.

프랑스정부는 보다 협의의 의미로 국제테러리즘의 개념정의를 제안하였다. 즉, 국제테러리즘이란 “제 3국의 영토 내에서 외국인에 의해 국적을 달리하는 개인에 대해 국내적 성격을 가지지 않은 분쟁에서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행하여지는 가증스러운 야만적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이상하게도 이러한 정의는 워싱턴에서 프랑스령 구아니아 분리주의자에 의한 주미 프랑스대사의 가상적인 납치사건을 테러리즘의 정의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것은 프랑스정부가 이런 사건의 경우 이를 국내문제로 취급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의 상황을 가상해 본다면 즉, 프랑스에서 아랍국가의 대사관이 같은 국적의 아랍테러분자에 의해서 점거되었을 경우 프랑스 정부는 이 사건을 아랍의 국내분자로 생각하며, 이로서 동사건에 대한 직접개입과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단의 비동맹제국들(알제리아, 콩고, 구아니아, 인도, 마우리타니아, 나이지리아, 남예멘, 시리아, 탄자니아, 튀니지, 예멘, 유고슬라비아, 자이레, 잠비아)은 다음과 같은 국제테러리즘의 정의를 제안하고 있다.

“국제테러리즘이란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인민들에 대해서 식민주의적, 인종주의자와 외국정부가 사용하는 억압적 행위와 폭력행위이며……, 다른 주권국가에 대해 테러행위를 지향시키는 파시스트단체 또는 용병단

체를 지원하는 주권국가의 행위이고, 식민주의적이며 인종차별적 정권하에서 신음하는 모든 인민의 독립과 양도할 수 없는 자결권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죄없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기본적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개인이나 일단의 단체에 의한 폭력사용이며……, 개인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개인과 단체에 의한 폭력사용이고 폭력사용에 따른 효과가 일개 주권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 폭력사용인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제국들의 당면문제와 특수한 역사적 환경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고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국제연합 특별위원회는 정확히 국제테러리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에도 달하는데 실패하였다. 위원회 중 다수위원은 위원들의 대부분이 국제테러리즘의 본보기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종합적 행위목록을 제시했으며, 이들 행위들에 대한 공통적 특징들을 결정하였다. 이런 사고 (Idea)는 미대법원 스트워드 (Potter Stewart)의 외설 (Obscenity)에 대한 유명한 “보았을 때만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을 생각나게 한다.

종합컨대, 국제테러리즘이라 불리는 것은 광의로 국제적 억압을 가지는 여하한 테러분자폭력 또는 인정되고 있는 외교법칙과 전쟁규칙의 외연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라 정의될 수 있겠다. 또한 협의로 볼 때 국제테러리즘이란 국제적 합의에 의해서 불법화

되고 식별된 특정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마지막으로 다양한 국가들에 의해서 제안된 서로 다른 정의들의 종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테러리즘의 실질적 효과(The Actual Effects Terrorism)

국제테러리즘에 의해 발생한 실제적인 폭력은 매우 과장되고 있다. 세계폭력발생이나 국가적 범죄발생률과 비교해 볼 때 테러에 의한 사상자는 적다.

1968년부터 1974년 4월사이에 507건의 국제테러리즘사건이 발생하였다. 되풀이 하던 때, 테러분자들의 외국관리에 대한 공격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테러분자의 외국잡입, 국제적 여객기를 납치하는 행위 등이 국제적인 테러리즘사건인 것이다. 북아일랜드에서의 아일랜드공화군(Irish Republic an Army)의 행위나 우루과이 내에서 투파마로스(Tupamaros)의 행위는 국제테러리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국내적 투쟁인 것이다. 그러나 아일랜드공화군이 런던에서 활동을 하거나, 투파마로스가 국내에서 외국인 외교관을 납치했을 경우 이는 국제테러리즘에 속한다. 두 가지의 다른 고의적인 생략이 존재한다. 즉, 인도차이나전쟁과 관련된 테러리즘행위와 이스라엘점령지에서의 테러리즘행위 그리고 월경을 통한 다수의 키부츠(Kibbutzim)에 대한 공격들은 이들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경우에 국제테러리즘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아

직도 지역분쟁의 일부이고 직접적으로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동분쟁과 관련한 진정한 국제테러리즘사건은 문헌을 읽지 선수촌 이스라엘선수 피살, 카르툼(Khartoum)과 파리의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점거, 그리고 베이루트와 유럽에서 이스라엘 특공대에 의해서 수행된 팔레스타인 지도자와 지목되고 있는 아랍테러분자에 대한 암살사건 등이다. 요컨대, 1968년 이후 테러분자에 의해 520명이 살해되고 83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러한 피해자 숫자를 줄이지 않고 간과되었던 약간의 사건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폭력의 총 숫자는 그리 크지 않다. 이런 폭력희생자는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간 18,000명 범죄살인 피해자를 훨씬 못미치고 있다. 이는 여하한 전쟁의 희생자와 비교할 때 적은 숫자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기간중에 일어난 테러는 보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특히 최근 중동사태에서와 같이) 아마도 세계가 상대적인 평화상태에 있을 경우만 보다 작은 폭력사태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테러단체가 언제 국제적으로 전쟁규칙 내에서 수용되는 재래식 전쟁수단을 다소나마 획득한 적이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 테러에 의한 희생자가 클 수가 있겠는가?

실제로 조그마한 테러분자 폭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매우 크다. 신문의 머리기사와 텔레비전 방영의 주요 시간이 테러분자에게 할애 되어지고 있다. 테러분자들은 혼란과 경악을 창출하며 정부로 하여금 테

러공격에 대응키 위해 국가자원을 전용하도록 강요하였다. 일단의 국가들은 테러분자의 체포가 자국을 지속적인 테러공격 목표가 되게 한다는 점때문에 체포한 테러분자를 석방하려고 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테러분자들은 국제질서의 기본규칙을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정치목적을 국제적 압력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다. 테러분자들은 아무에게나 지향된 분노에 찬 폭력사용을 통해 다른 국가로 하여금 자신의 적대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도록 설득, 자신의 폭력원인행위를 자신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유리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희망하며, 이런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은 테러분자들의 폭력원인행위와 전술에 연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폭력이 종식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테러분자의 폭력행위에 연민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국제적 압력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제한된 군사적 수단의 사용개념은 1960년대의 반식민주의적 투쟁기간에 성공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당시 국내분란자들은 폭력사용을 통해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고 식민지정부가 당혹하도록 시도했던 것이다. 이같은 전술은 영국군의 철수를 결과시키고 이스라엘에 유대인국가를 설립한 자들에 의해서 일찌기 사용되어 졌다. 국제적 관심은 국내분란자들이 군사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을 달성 가능토록 해준다. — 식민지세력의 철수유도와 같은 반식민분란자들과 오늘날 테러분자들의 차이는 식민지투쟁에 있어 분란자들은 식민지내에서의 폭력행위를 통해

국제적 관심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대도시는 직접적으로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테러분자폭력은 세계의 어느곳에나 수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테러리즘은 팔레스타인게릴라들에 의해 국제적 규모로 가장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철수와 팔레스타인국가 설립을 위한 압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해방기구(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가 국가없는 인민의 정부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압력의 존재는 적어도 팔레스타인테러분자들이 자신들의 폭력원인행위를 세계인의 이목 앞에 격렬하고 극적으로 표출한 덕택이었다. 테러리즘을 찬성하지 않을 경우, 테러분자들이 확립된 재래식전쟁과 정직한 외교의 범위내에서 작전을 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동시에 테러분자들의 성공이 미래에 있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테러분자의 성공은 동일한 능력을 가진 테러단체에게 단순히 자신들의 폭력사용을 종결한다는 교환조건으로 세계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합법성을 고려하지 않는 폭력사용 의욕을 조장시킬 것인가?

강조되고 있는 점은 폭력사용에 필요한 제한된 능력을 가진 소규모단체들이 신문사의 주요기사가 되고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정부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법집행기능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테러분자와 잠재적 테러분자에게 있어 테러리즘은 성공을 창출하는 것이 되고 있다.

○국제질서에 대한 영향(The Effect on the International Order)

테러분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관심을 유발해 왔고 취약한 정부로부터 약간의 양보를 얻어 왔으나, 테러리즘은 아직 국제질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에 존재하는 혼란을 야기시키는 다른 세력과 대비해서 측정해 볼 때 테러분자들의 행위는 최근의 아랍석유금수조치, 에너지 가격 인상, 세계적 인플레이션 그리고 식량부족과 재래식전쟁들과 같은 사건들에 비해 훨씬 아래에 위치해 있다.

테러리즘활동이나 외국외교관과 외국기업체를 지향한 특정 테러리즘사건은 다수의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약화시켰으며 이중 몇몇정부의 붕괴를 가져왔다. 그러나 국민정부가 붕괴되었거나, 정부지도자의 강요된 사임 또는 군부에 보다 큰 권위를 부여해 준 터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같은 국가에서는 부작용으로서 심각한 경제문제, 엄청난 인플레이션, 전반적인 실업 또는 뿌리깊은 정치적 분쟁을 창출하였다. 어떤 정부도 단순히 국내 또는 외국테러분자의 활동에 의해서 전복되지 않았다. 테러리즘은 여러 가지 국내분쟁을 악화시켰으며 이런 분쟁들을 국내문제 이상의 것으로 만들었다. 테러리즘은 분쟁들을 장기화 시켰고 분쟁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특히 중동과 북아일랜드분쟁에 있어 진실이며, 이들 문제들은 뿌리가 깊은 분쟁으로서 해결

안의 강구가 어렵게 되고 있는 것이다.

테러리즘은 일개국가가 자국시민에 대해 자국영토밖에서 까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면 때문에 적절한 보호의 제한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그것은 국가책임에 대한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훈련을 받은 한 국가의 테러분자가 제3국에서 테러행위를 자행했을 때 이러한 테러행위는 누구의 책임인가? 모든 국가가 다른나라의 시민에 대해 자행되는 테러리즘행위를 억제하는데 있어 어느 선까지 기본적인 책임으로 부여받고 있는가?

국제테러리즘은 전투발생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게 특별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군 국가는 외교관에 대한 보호책임은 외교관이 주재하고 있는 해당국 정부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다른국가의 시민이 일국의 공항에서 테러행위를 당했을 경우 어느 선까지 보호책임을 연장시켜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다. 체포한 테러분자를 어떻게 대우해야만 하는가? 또는 자국의 일이 아닌 분쟁을 위해 자국국민을 위태롭게 해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리고 테러분자들과 협상하기 위해서 자국내로 파견된 외국군대와 특수요원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게 되어있지 못하다.

다른 문제는 테러분자 자신들의 법적지위와 관련된 것이다. 테러분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체포되었을 경우 전쟁포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가?

만약 테러분자들이 국내법을 위반하고 일반 범죄자일 경우 이들이 전범(War Criminals)이라 볼 수 있는가? 테러분자들은 장소와 무관하게 체포될 수 있는 국제범죄자인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들 문제들은 국제법의 장점에 반하여 국제정치의 현실에 따라 특별히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만일 국제법이 이러한 분쟁영역에 있어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려면 유일하게 국제테러리즘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이 제정되거나 낡은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테러분자 폭력은 매우 과장되고 있으며 테러분자로 하여금 대중성과 약간의 양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문제들이 미결해상태로 남아있고, 테러분자 폭력은 아직도 국제질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미약한 대응(A Feeble Response)

국제테러리즘에 의해 야기된 위협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매우 미약하다. 테러분자에 대응한 국제적 협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일단의 국가들은 자금, 무기, 훈련조직을 통해 테러분자활동을 직접, 간접으로 지원한다. 국가들은 알려진 테러행위의 실행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영웅적 환영과 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많은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테러전술을 혐오하고 테러분자에 대해 정치적 망명을 제공하

지 않으면서 테러리즘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꺼리거나, 테러분자에게 도움을 주거나 피난처를 제공한 국가에 대해 이들 국가와의 친선관계가 중요하다는 구실하에 비난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서유럽국가들이 팔레스타인테러분자나 이들의 지원자를 비난하기를 꺼리고 있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아랍제국들은 테러분자에게 무기와 피난처를 제공해주고 있으나, 동시에 서유럽국가들이 의존하고 있는 석유를 소유하고 있다.

국제협력의 결여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존재하며,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언급하였다. 즉, 테러리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국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념과 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모든국가들이 국제테러리즘의 위협을 서로 상이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로써 국제테러리즘을 정의하고 불법화하며 테러분자에 대처키 위한 대응책은 법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로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더우기 테러분자들이 때때로 획득하는 대중성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국제테러리즘의 효과는 보잘것이 없는 것이다. 대부분 국가들은 테러분자들보다 걱정해야만 되는 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만일에 몇명의 죄수를 석방함으로써 생명을 구하고 일시적인 안정이 유지될 수 있을 경우, 이런행위가 법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활동하고 외국영토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테러단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강요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현존하는 국제법과 전쟁규칙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분쟁에 대처하는데 있어 적합치 못하다. 분쟁을 지배하는 규칙은 국가간 전쟁을 다루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체제” 밖에서의 전쟁은 일단의 다른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첫째, 전쟁규칙과 합의상의 문제이다. 유일한 강제수단은 국제적 비난의 도덕적 힘과 보복위협이며, 이러한 강제력은 적대자가 강제력의 사용의도자와 동등하게 취약할 경우에만 진정한 제약을 창출할 수가 있다. 테러단체들은 국가와 같이 취약하지 않다. 그들은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보복에 덜 취약한 것이다. 반면에 한 국가가 외국에 근거지를 둔 테러단체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이는 침략행위로서 규정되고 이 행위로 인하여 국제적 비난과 금수조치를 감수해야만 된다.

여기에 있어 확립된 외교체제와 전쟁의 규칙들은 비대칭적인 것이 되는 경향이 있다. 한 국가가 테러분자들이 한 것처럼 규칙을 파괴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행위 주체가 국가라는 점 자체에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이다.

결여된 국제협력 때문에 국가들은 자신의 힘만으로 테러리즘에 대처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일단의 국가들은 테러분자에 의해 국 내외에 점증하고 있는 테러도전에 대응키 위해 테러공격에 대한 보

안을 강화하고 테러리즘에 대처키 위한 국제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국제적 노력은 제한된 성공만을 거두었다. 다른 국가들은 자신들의 테러보안책을 강화하면서 자국영토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테러분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이들의 요구를 인정해 주고 테러분자의 보복을 야기시킬 수 있는 과도한 탄압을 회피함으로써 공존관계를 시도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같은 극소수 국가들은 테러공격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활동을 통한 보복과 주요 테러지도자들에 대한 암살등을 통해 테러와 정면대결을 하고 있다. 만일 테러리즘이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있고 국제적 대응이 미약하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테러대응 형태를 더욱 많이 목격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공격목표와 새로운 능력 (New Targets and New Capabilities)

테러리즘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여러가지 기술발달이 테러리즘을 더욱 잠재력이 강한 투쟁수단으로 만들었다. 기술적 진보는 테러분자에게 새로운 공격목표와 새로운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항공여행의 제트화는 테러분자에게 전례없는 기동성과 세계 어느곳도 강타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강력한 폭약과 정교한 시한장치 등과 같은 새로운 무기는 폭력사용을 위한 테러분자의 능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최근의 가장 불길한 폭력사용 발전추세는 로마국제공

항 가까운 지점에서 테러분자가 소련제 휴대용열추적 지대공미사일을 휴대하고 있던 사실의 발견이다.

전파매체에 있어 최근의 발전추세는—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위성— 대중성을 추구하는 테러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극적인 폭력사건을 전세계로 보도하고 발송하려는 대중전달매체의 능력과 의도는 효과적인 선전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테러리즘을 고무시키고 있다. 테러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즉각적으로 전세계 언론매체(라디오, 텔레비전, 신문)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세계는 현재 테러분자들의 무대(Stage)이다. 아마도 전세계는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향은 중요하다. 자체 기술에 대한 의존이 증가함에 따라 현대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취약점들은 테러분자들에게 과거에 비해 보다 큰 혼란을 야기시킬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에 내재하는 이러한 취약점증가는 무기체계의 발전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폭력을 위한 능력을 제고시키고 있고, 이는 보다 소규모의 조직이 보다 더 큰 혼란과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을 의미한다. 다시말하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소규모의 극단주의 단체나 화해할 수 없는 조직이 잠재력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 동시적 혁명이나, 대리전이나 (Simultaneous Revolution or Surrogate Warfare)

앞으로 테러리즘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세계의 모든 테러분자들이 단일조직의 구성원일지라도 테러리즘을 국제적 음모라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며, 세계 여러 지역에서 테러분자들 사이의 상호연계관계가 증가되고 있다. 다수의 테러단체들은 유사한 이념을 추구하고 있으며 기꺼이 협조하려고 한다.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PFLP)과 일본의 적군파(United Red Army) 사이에 동맹이 형성되어 있다. 2년 전 이스라엘 로드국제공항에서 대합실 승객에 대해 총기를 난사한 적군파테러분자는 팔레스타인에 의해서 테러현장까지 안내되었다.

또한 아일랜드공화국(IRA)은 ETA, 스페인의 바스크분리주의자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남미의 4개 도시계열단체(칠레의 MRR, 아르헨티나의 ERP, 볼리비아의 ELN, 그리고 우루과이의 투파마로스)는 자신들의 무장투쟁을 국제화시키기 위해서 “혁명조정위원회”(Junta For Revolutionary Coordination)을 결성하였다. 보다 나은 훈련, 자금, 장비를 가진 계열과 테러단체들은 덜 발달된 조직에 대해 약간의 군사적 지원과 기술적 조언을 해주고 있다. 일정한 지역에 근거지를 가진 테러단체가 다른지역에서 동조자를 충원시키고 있음을 보여지고 있다.

테러단체들간 연계관계의 증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연계관계의 증가는 소규모 테러단체에게 능력에 비해 보다 어려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연계관계는 지역시민이 테러공격에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테러분자의 식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막연한 이념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유를 위해 일단의 국가를 지향해서 전 세계적인 테러분자운동을 창출하게 되고, 일단의 테러분자는 이를 “동시적 혁명”이라 부르고 있다.

두번째로 예상되는 경향은 새로운 취약점과 새로운 무기에 의해서 창출되어 가능하게 된 더욱 화려하고 파괴적 행위로의 지향이며, 이는 일반대중과 정부가 테러분자들의 현재행위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됨으로써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에 일반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의 하나는 핵능력이다. 향후 수십년내의 핵발전시설의 확산, 핵융합물질 운반의 빈발화 그리고 방사능폐기물질의 존재는 일반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우리가 아직 목격치 못한 규모의 대량인질상황과 정치적 강요를 위해 이 물질들이 사용될 것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테러분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고도의 파괴력을 제공해줄 수 있는 소형이며 운반하기 쉽고, 값이 싸면서 작동하기 쉽고 고도로 정확하며 파괴력이 높은 무기의 새로운 영역에서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테러분자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 소련제 SA-7과 같은--SA-7과 같은 종류인 미국의 적안미사일(Red Eye)는 이미 구식무기가 되었다. 10년이내에 소

형이고 값이싸며 정밀유도폭탄을 사용하는 새로운 영역의 무기가 대량파괴에 사용되게 될 것이다. 독일연방은 한사람에 의해 발사되는 반자동유도체제를 가진 대전차무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실내에서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후폭풍이 제거된 다른 대전차무기를 고안하였고, 이런 것은 도시지역에 있어 테러분자의 이상적인 무기인 것이다.

반면에 테러분자 폭력은 테러분자가 일단의 법적 후원 또는 적어도 소수정부의 관용 정도에 의존한다는 면에서 자체적으로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 너무 강한 폭력사용은 강력한 반발과 테러분자에 대응키 위한 보다 큰 국제협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세번째 가능한 경향은 국가들이 테러단체의 성취도를 인정하고 이들을 고용하기 시작하거나, 테러전술을 다른국가에 대한 대리전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란 점이다.

현대 재래식전쟁은 비실질적인 것이 되고 있다. 재래식전쟁은 너무 파괴적이며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재래식전쟁을 수행할 여유가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많은 국가들은 외부지원자에게 의존해야만 하며, 외국지원에의 의존은 제약을 부과한다.

최근의 중동전에서 본바와 같이 외부후원자인 초강대국들이 쉽게 핵전쟁으로 이룰수 있는 직접대결 상태에 돌입할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초강대국들은 자신들의 피지원국에 대해 적대관계를 중지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며 피지원국의 복종을 획득하기 위해 언제

라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 재래식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계획은 군사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도록 해야한다는 점이다. 즉, 전쟁은 전쟁비용이 국가경제를 심각하게 혼란시키기 전에, 세계여론이 공격행위 비난을 위해 동원되거나 휴전을 지지하기 전에, 초강대국이 자신들사이에 전쟁종식을 결정하기 전에, 특히 민주국가의 경우는 국내 일반대중이 전쟁에 대해 혐오를 느끼고 전쟁수행에 대한 반대가 발생하기 전에 종결되어야 한다. 전격전(Blitzkrieg) —군사적으로 항상 매력적인—은 정치적으로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군사적 점령은 정치협상이 시작하기 전에 기정 사실화되어야만 한다.

최근에 우리는 진격하는 군대가 시간과 경주하는 여러 가지 군사적 공세를 목격하였다. 즉, 1967년 이스라엘공세, 1968년 소련의 체코침공과 점령, 1971년 인도의 동파키스탄침공, 1973년 이집트의 대이스라엘공세, 그리고 1974년 터키의 사이프러스침공 등이 그 본보기이다.

현대 재래식전쟁에 대한 대안은 저강도수준의 지구전쟁(Protracted War)이며 군사대결을 줄이는 것이고 상존군사력이 화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게하는 것이며, 군사적 승리는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패배를 의미하느냐 또는 패배하지 않는 것이 승리를 의미하느냐에 대한 전략가들의 논쟁과 같은 자체의 전통적 의미를 상실하였다.

이와같은 지구전쟁들은 비록 계절적으로 전투수준의 증가와 감소가 존재하지만 쉽게

종결되지 않는다. 전쟁과 전쟁후란 의미는 자체의 전통적 의미를 상실하였다. 2세대동안의 전쟁을 위해서 모든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어떤 국가나 분란사단체도 존재치 않는다. 지구전쟁은 평화시 자원소요와 싸워야만 한다. 장기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국가는 저렴하게 싸워야 하며, 저렴하게 싸우기 위해서는 국가는 장기간의 군사적 교착상태를 수용해야만 된다. 약소국간의 국지전쟁은 분쟁이 너무 위험하게 되거나 너무 비용이 많이드는 수준으로 되는 것을 원치않는 외부후원국간의 충돌에 의해 저강도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의 군사적 대결이 이러한 경우의 뚜렷한 본보기이다.

테러분자들은 자신들의 기원과 원인행위가 무엇이던지 간에 제 3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대리전으로서 테러의 수용이다. 테러리즘은 비록 대부분의 재래식군사조직에 의해서 합법적인 전쟁형태로 수용되지 않고는 있지만, 앞으로 전쟁의 한 형태로서 수용될 것이다. 테러분자들은 국제적 사건을 일으키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적대국가내에 경악을 창출시키고 자국보호를 위해 값비싼 자원을 전용사용토록 강요하며 국민사기를 파괴시키고 특별한 형태의 사보타지를 수행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자신들의 반대자를 공격하기 위해 존재하는 테러단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테러분자를 양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테러리즘은 재래식전쟁 수행에 드는 비

용에 비해 훨씬 적은 투자를 요구한다. 테러리즘은 적을 천천히 쇠잔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1973년 욱키브르전쟁전에 한 이스라엘고위관리는 이스라엘이 수천명의 아랍테러분자들과의 싸움에 투자한 인적, 금전적 총비용은 1967년 6일전쟁 비용의 40배에 달한다고 추산하였다. 테러분자를 은밀하게 지원하는 후원자는 자신들의 지원에 대해 쉽게 부인할 수가 있다. 전복활동, 태업이나 특공대에 의한 기습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런활동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산재하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점인 것이다.

테러분자들이 공세적 대리전으로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공격대상국가가 핵미사일을 포함한 자신의 전략군의 일부를 다른 국가에 배치하고 있다고 상정해 보자. 이들 전략무기에 대해 주둔지 국가내 반대세력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상대적인 소규모의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 일단의 극단주의단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국제적 연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은 부족한 상태이다. 국내 테러단체가 외부세력과의 연계를 통해 전략무기기지중 하나에 대한 공격에 필요한 무기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정할 수가 있다. 요컨대 기지사용을 인정하는 상호조약이 갱신되기 전에 테러분자는 공격하나, 이는 실패할 것이다. 테러분자들은 경계선을 침투하나 전략미사일에 대해 전혀 피해를 입히지 못한다.

그러나 국내신문들은 테러공격의 결과 약

간의 치명적인 방사능물질이 누출 되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는다. 과연 초보적인 방사능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약간의 방사능누출이 감지된다. 전략미사일 보유국은 방사능물질이 누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아마도 테러분자들이 주민을 경악케 하기 위해 고의로 소량의 방사능폐기물질을 살포했다고 말할 것이다. 즉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말하여지나 이러한 부인은 확신을 줄 수 없는 것이 된다.

반면에 테러분자들은 지속적인 공격을 행할 것임을 경고한다. 핵무기 주둔 재협정조인에 대한 반대데모가 시작 격화되게 되며, 아마 이런 데모는 핵무기기지에 근무하는 내국인 노동자가 보안강화의 일환으로 일시 해고 됨으로써 도움을 받게 된다. 해당정부(핵무기배치를 수용한 정부)는 풍성한 소문에 흔들리게 된다. 계속적인 테러사건이 발생한다. 양국간의 관계는 긴장되고 마침내 핵미사일 소유국은 배치하고 있는 핵무기를 철수해 가도록 요청을 받게 된다.

비록 이러한 가정적 본보기에서 공격대상 목표가 군사적인 것이 있으나, 테러분자의 공격대상은 죄없는 시민이 선택되며 이들은 선정된 대상목표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다. 우리는 조그마한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더라도 쉽게 다른 본보기를 생각할 수 있다. 국제 테러단체로 판단된 단체가 원자폭탄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면서 중요치 않는 테러단체가 원래 소유자에 의해서 도난당한 것으로 주장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현대사회는 기술적 상호의존성—식량이 화학비료에 의존하고, 화학비료는 석유와 에너지에 의존하고, 석유와 에너지는 교통과 통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의 증가에 따라 산업화의 단계와 인구증가에 직면해 있고, 상태는 밀접한 사회구성요소간의 상호연계관계는 일정한 한 지역에서의 사소한 혼란발생이 사회의 모든 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다. 결국 혼란에 대한 취약성은 증가하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점때문에 폭력사용을 위한 능력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조건하에서 테러단체는 자신의 친구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선진국의 국가안보에 대해 진정한 비군사적 위협수준에 까지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태까지 와 있는 것이다.

○테러리즘의 극복(Beyond Terrorism)

국제테러리즘은 군비통제에 대해 비상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파괴를 위한 테러분자들의 능력이 제한되고 있으나 대량 파괴와 지속적인 정밀하고 강력한 휴대용 무기들의 분포증가는 멀지않아 테러분자들 수중에 이러한 무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무기들은 소형화되고 더욱 강력화되며 값이 싸고 보다 널리 사용 가능하게 되고있다.

종래에 전략핵무기와 국가간 재래식무기에만 관심을 두어 왔던 군비통제 노력은 이제 내일의 지상군을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

무기들이 내일의 테러분자에게 직접, 간접으로 양도되었을 때 세계가 직면할 사태를 면밀히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동시에 원자력에 대한 의존성 증가는 테러분자들에게 대량파괴무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테러분자들이 핵무기 탄두를 훔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있으나, 이러한 무기를 획득하는데 있어 감수해야 하는 위험과 실제적으로 무기를 폭발시키는데 요구되는 복잡한 과정은 보다 크고 정교한 테러조직들에 대한 역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테러단체가 충분한 핵융합물질을 절취해서 원자탄을 제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세인의 걱정이 전환되고 있으나, 이것 역시 기술적으로 어려우며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테러분자들은 핵탄두를 훔치거나 원자탄을 제조할 필요가 없다. 방사능폐기물질보관통은 과도한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충분한 위협수단이 되며 테러분자들에게 방사능공갈의 수단을 제공해 준다. 핵무기와 관련된 보안과 통제 문제, 그리고 현재 확장되고 있는 핵의 평화적 이용계획은 기념비적인 것이다.

그러나 국제테러리즘의 결과는 현재 성취한 것 이상으로 발전될 수도 있으며, 테러분자들에 의해 군사적 또는 정치적으로 심사숙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국제테러리즘을 적합한 수단으로 만든 발전은 앞으로 세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런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는 국가(정부)가 중요한 파괴수단을 독점하지 못하는 시대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군대에 의해서만 소유되었던 전쟁의 수단이 꺾단체에 의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대규모 혼란과 파괴를 자행할 수 있는 모든 소규모조직들의 실제적 또는 상상된 비탄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테러조직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미 발생된 소수의 국제테러리즘의 본보기는 이같은 새로운 시대의 징조들(Harbingers)인 것이다. 세계가 이러한 발전추세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만약 기술발달에 의해 전쟁의 속성이 급격하게 변화된다면 안보와 군사력 그리고 정부 개념의 자체가 변화될런지도 모른다.

전쟁(Warfare)은 다시 정의 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방위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사고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무기를 발명하는 인간능력은 인간이 폭력을 통제할 수 있는 정부기구를 고안해 내는 것을 훨씬 앞서나가고 있다. 누구나 토미기관총—바이올린케이스에 보관할 수 있는 기관총인—이 발명되었을 때, 그리고 인간이 핵무기시대로 처음 진입했을 때 똑같은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아직도 토미기관총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친구와 친척의 손에 의해 칼이나 권총으로 죽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관총은 대량파괴무기로 간주되지 않고 있으며, 핵무기는 아직도 이것을 사용했을 경우 손해보는 것이 많은 일부 정부의 손에 있다. 미래에는 군대나 정부가 필요치 않고

손해볼 것을 거의 갖지 않은 사람들에 의한 전쟁—고도로 파괴적인 전쟁—이 수행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인간을 어디로 인도해 갈 것인가? 정부의 일차적 목적은 그 형태가 어떠하던 간에 시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테러분자들이 과시하려고 하는 것 처럼 시민을 보호할 수 없다면, 정부는 무용지물이 되는가? 국가의 역사적 발전은 처음에 조직된 폭력수단을 독점할 수 있는 국가적 리더쉽 또는 군주에게 부분적으로 의존하였다. 만약 군사력관계가 극적으로 정부에 복종치 않는 소규모단체에게 유리하게 변화된다면, 세계의 모든 사람과 정부가 많은 소규모단체들이 강요하는 요구에 순응해야만 되는 국제적 군벌주의의 시대에 돌입할 것인가? 또는 점증하는 테러리즘과 전세계 무정부상태의 위협에 직면해서, 국가가 억압의 유혹에 빠지거나 아직 비교적 우월한 기술적 자원을 정부가 권위적으로 되는데 사용할 것인가? 또는 국가들이 테러문제에 대한 정치적 이견을 청산하고 국제테러분자들을 다룰 수 있는 국제적인 힘을 구축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또는 국가가 단순히 테러분자들에 의해 재정의된 새로운 전쟁의 개념을 수용하고, 테러분자의 전술을 적용하여 이를 다른국가와의 전쟁에 사용하며, 테러분자가 어느곳에 있던간에 이들 테러분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군사력을 사용할 것인가?

서울올림픽의 기대효과

탁 효 수

(대위·제8639부대)

1. 개 요

지금 우리는 국가발전의 일대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88서울올림픽의 막바지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 지난 1981년 9월, 서독의 바덴바덴에서 제24회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된 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난 해 9월 17일 세계 167개국에 참가초청장을 보내기까지의 6년 동안, 온 국민의 지혜와 힘과 정성을 모아 경기장 시설을 비롯한 대회준비를 완료하였으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된 시설과 환경을 잘 유지하고 점검하여 대회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물려올 선수 및 대회관계요원 그리고 관광객, 메스컴을 통해

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 볼 50억 지구인에게 우리의 친절함과 의연함 그리고 문화민족으로서의 높은 긍지를 보여줌으로써, 세계가 한국을 배울 수 있도록 민족적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서울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제전이 아니라, 국운상승의 일대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으니 만큼, 올림픽이 우리 국가발전에 미칠 제반 요소를 재점검하여 음미해 봄으로써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서울올림픽대회의 기대 효과 분석

각국의 도시를 순회하면서 4년마다 개

최되는 근대올림픽은 개최하는 도시에 따라 각기 다른 독특한 면모를 보여왔다.

때로는 평화를 축원하는 제전으로, 때로는 국력과시의 장이나 민족의 제전으로 상징되기도 하는 등 대회를 유치한 도시들은 제각기 단순한 스포츠행사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올림픽을 국민적 결속과 국가발전의 계기로 활용하였던 제18회 동경대회,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올림픽을 유치하여 정치적 안정과 국력의 과시를 의도하였던 제19회 멕시코대회, 패전 후의 부흥상을 과시하려던 평화와 우애의 제전이 테러에 의해 유린되었던 제20회 민헨대회, 비약적인 도시발전을 기대하였으나 결국 재정적자로 부채를 남긴 제21회 몬트리올대회,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이 주도하여 흑자대회의 신기원을 남긴 제23회 LA대회 등 이들 모두가 올림픽 이상의 실현과 대회주체의 명예에 더하여 도시 또는 국가발전이나 국민의 자긍심 고양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대회들이다.

올림픽대회는 참가규모와 짜임새있는 대회운영 이외에도 대회시설의 확보나 쾌적하고 안전한 대회여건 조성에 의해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 대회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회시설확보에 따른 개최도시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개최하는 국가나 도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울올림픽을 앞둔

우리로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서울올림픽은 과연 어떤 대회가 될 것이며 어떠한 대회로 우리 국민들이 가꾸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은 서울올림픽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 봄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사의 중심무대가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이 현대사의 조류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로 21세기에는 분명히 태평양지역이 세계문명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위대한 태평양시대가 서서히 개막되는 시기에 올림픽 개최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민족이 다가올 21세기의 위대한 태평양시대를 주도해 나갈 영예로운 민족이 되기 위한 획기적인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 나라의 정치, 외교적 지위향상은 물론 경제발전 그리고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식 수준도 상당한 폭의 진전이 기대되는 등 국가전반에 걸쳐 많은 발전을 수반할 것이다.

가. 정치·외교적 측면

제24회 올림픽대회의 서울유치 및 성공적 개최는 정치적 이해에 오염되었던 올림픽정신의 회복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국제

외교적 지위를 급격히 향상시켜 줄 계기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스포츠교류는 국제관계에서 한 나라의 국위를 높여주는 홍보효과가 있으며, 국가간의 친선과 협력의 도모는 물론 외교적 승인을 얻는 효과를 발휘하는 특성이 있는데 특히 서울올림픽은 자유세계 뿐만 아니라 제3세계 및 공산권 국가의 대거 참여가 예상됨으로써, 테러에 의해 피로 물든 뮌헨대회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반쪽 대회가 된 모스크바 및 LA대회 등에서 실추된 올림픽정신의 회복무대가 될 것임은 물론, 화합과 전진의 이념 아래 50억 지구인이 하나로 뭉쳐질 평화의 제전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세계를 하나로 만든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서울올림픽의 개최로 고양될 한국의 새로운 이미지는 전통우방과의 우의증진은 물론 비수교권인 공산국가와의 교류증진을 통한 관계개선 및 제3세계와의 관계개선 등 우리 나라의 국제정치적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서울올림픽의 개최에 수반될 한국의 경제적 발전과 국제외교적 지위향상으로 한국을 상호발전을 위한 동반자로 재인식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됨으로써 서울올림픽은 기존의 양국관계를 더욱 공고히 결속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기성세대에게는 과거의 왜곡된 대한민국 이미지를 시정하고; 전후세대에게는 발전해가는 새로운 한국상을 심어줌으로써 향후 한·일 양국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기타 우방국들에게도 우리의 발전된 참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과거의 일부 부정적인 한국관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관계개선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또한 분단국과 개도국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올림픽대회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한국은 비동맹 제3세계 개도국들에게 향후 발전의 모델국가로 부각될 것이며, 이들 국가와의 통상확대 및 외교적 협조체제 구축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올림픽 유치 이후 UN에서 비동맹 제3세계 국가들의 대한민국(對韓國) 지지율이 1979년의 13%에서 1986년의 42%로 크게 호전된 사실에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나. 대북관계의 변화

현재 IOC를 중심으로 남북한 체육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나 북한의 참가 여부는 불확실하다. 단적으로 말해 북괴는 지금 서울올림픽 참가 여부를 놓고 심한 고민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북괴가 서울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 저들의 주장대로 몇 개 종목을 평양에서 개최하게 될 경우, 세계 각국에서

물려드는 선수 및 대회진행요원 그리고 수많은 관광객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신변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특히 우리 나라의 선수나 관광객에게도 북한지역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북괴는 오랜 세월 동안 배일에 가려져 있던 그들 사회의 모순점과 낙후성이 세계 만방에 알려짐은 물론, 북괴 선수단 및 임원진의 대거 서울나들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발전상이 확연히 드러나게 됨으로써 그간 북한 주민들에게 강조해 온 대남선전의 허위성이 북한사회에 알려지게 될 것이며, 자신들이 오랫동안 자유와 풍요의 문제에서 소외되어 왔음은 물론 철저하게 기만당해 온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원하던 원하지 않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북한사회의 개방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될 때 기만과 통제라는 수단으로 주민을 통치해 온 북괴체제의 유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임에 틀림 없다.

그리고 북괴가 이러한 현상을 두려워하여 서울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북괴는 국제사회에서 대회불참은 물론 대회개최를 방해하는 단 하나의 국가로 낙인이 찍힘으로써 자유세계와 제3세계는 물론 공산국가들의 비난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외교적 고립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결국 서울올림픽은 북한의 참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한국의 국위선양 및 외교적 지위향상과 북괴의 상대적 지위하락 현상은 필연적인 결과이며,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남북간의 체제경쟁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북괴로 하여금 열세현상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느끼게 함으로써, 참가나 아니냐의 문제 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서울대회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매달리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북괴의 금강산탐 건설과 KAL기 폭파사건 등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증명되기도 한다.

그리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보이지만 올림픽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머지 않은 장래로 예상되는 김일성의 사망과 부도 직전의 상태에 이른 경제상황 등의 문제로 인한 북괴 내부의 변화조짐에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인한 우리 국력의 획기적인 신장 문제가 간접적이거나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북한사회가 언제까지 현재와 같은 폐쇄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특히 통일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는 우리 민족에게는 분명히 보통문제가 아니다.

북괴는 지금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격심한 열세에 처해 있기 때문에 무언가는 새로운 형태의 시도를 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미 자본주의와
의 체제경쟁에서의 승패가 분명해진 공산
주의식 방법으로는 더 이상 날로 발전해 가
는 한국과 경쟁을 벌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들도 이제는 중공이나 소련과 마찬가지로
과감히 자본주의식 방법을 도입한 개방화
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북괴 자
신도 잘 알고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쉬운
일은 분명 아니다.

왜냐 하면 김일성 원수의 지도 아래 유
일사상으로 굳게 뭉쳐 세계에서 가장 잘 사
는 지상낙원을 건설하였다는 북한 사회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낙후된 국가의 하나라
는 사실을 전 주민이 알게 되면 그때는 북
괴사회의 통치질서 자체가 위협받을 우려
가 있으며, 이러한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발
전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남북간의 국
력격차는 영영 만회할 수 없을 정도로 벌
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
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김일성의 사망이라는 문
제를 첨가하여 생각해 보면 결론은 더욱 뚜
렷해진다. 김일성은 지금 북한에서 절대적
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리고 공산국
가 대부분의 경우 절대권력자의 사망 이후
뒤따르는 현상은 권력의 투쟁이다.

독재자의 사망으로 인해 생긴 권력의 공
백상태를 서로 먼저 차지하려는 과정에서
극심한 투쟁이 발생되어 온 것이 공통된 현
상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부상한 새로

운 권력자는 예외 없이 전임자의 격하운동
을 전개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강조함은 물론 대부분의 경우 통치노선의
대폭적인 수정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다. 김일성
이 사망한 이후 지금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꿈꾸는 권력의 부자세습이 순탄하게 진행
되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것은 권력의
세습이 공산주의의 이론상 맞지 않으며 현
재 북한사회 내의 반김정일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사 김정일이 권력
을 잡는다고 해도 현재 김일성이 누리던 수
준의 절대권력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김일성의 사후에 등장한 새로운
권력자는 자신의 지배체제 확립이라는 문
제 이외에 지금 북괴가 안고 있는 경제적
낙후, 국제사회에서의 지위하락, 주민들의
자유신장을 바라는 보이지 않는 압력 등의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동시
에 주어질 것이다.

이럴 때 북괴가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은
기존의 폐쇄주의적이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산주의식 방법이 아닌 보다 자본주의적
요소를 많이 포함한 개방정책이 될 것은 충
분히 예측할 수가 있다. 왜냐 하면 김일성
사망 이후의 북한사회의 효율적인 통치나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개방정책이며 어떠한 형태의
대안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의 국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는 계기가 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북한사회의 개방화로의 변화조짐에 간접적이거나 긍정적인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됨으로써, 남북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 대공산권 관계개선

한국은 그간 이룩한 경제적 발전, 군사력 증강은 물론 올림픽의 개최로 국제적 지위가 월등히 신장됨에 따라 국제정치사회의 전면에 확실히 등장, 부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산권 국가들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실체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유리한 상황을 이용하여 공산권 국가들과의 경제, 문화, 체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공산권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협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올림픽 유치 후 공산권 미수교국들과의 스포츠 교류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증명되고 있으며 스포츠 교류의 증가는 향후 공산권국가들과의 경제 및 외교협력 추진의 기반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소련, 중공은 물론 동구권 등 더 많은 공산권국가들이 참가할 경우 더욱 커질 것임에 틀림없다.

라. 경제적 측면

우리가 올림픽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성과는 먼저, 올림픽 관련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출이 발생한 부문은 물론 이와 관련된 여러 산업부문에서 추가수요를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많은 부문의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 및 고용이 유발되는 효과가 있다. 2조 4천억원에 달하는 올림픽사업비의 집행으로 대회준비기간 중 약 70여만명에 달하는 고용을 창출해 냈으며 소득 및 생산유발효과는 투자액의 몇 곱절에 달하고 있다.

또한 올림픽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직접적 생산유발효과 이외에도 관광, 통신, 전자, 섬유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수출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많은 분야의 산업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관광여건은 경제발전, 국내교통망의 확충 및 통금해제 등으로 점차 호전되어 가고 있으나 관광이 활발한 외국에 비해 아직도 제반 여건조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유럽이나 미국 등 관광객이 많은 지역과는 거리가 먼 극동지방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요 항공노선의 연결이 미흡하고 우리 고유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의 개발이 부족한 실정이며 숙박시설, 음식, 국내교통편 등 일반적인 관광여건이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의 올림픽 개최는 올림픽 관광객의 증가에 따르는 일시적인 관광진흥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진 한국의 이미지를

널리 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자 섬유, 스포츠 레저산업 등의 분야에서도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의 향상과 상품의 대외선전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우리 상표의 이미지가 고양되어 올림픽 이후의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대회기간 중 사용되는 전자계기 등은 가급적 국산품을 이용함으로써 한국전자상품에 대한 국제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우리 상표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동경대회를 계기로 경제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한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리고 서울은 이미 지하철, 호텔 등 사회간접시설이 충분히 확충되어 있어 올림픽을 대비하여 동경대회와 같은 막대한 여건조성사업의 투자 없이도 가능하며 각종 경기장시설에 대한 투자가 적은 반면 대부분 기존시설을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과다한 신규투자 없이 대회를 준비해 왔다.

그리고 현재의 주택과 체육 및 위락시설에 대한 수요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올림픽대회로 인한 신규투자는 몬트리올대회의 경우와 같이 대회 후의 유휴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며, TV중계료 등 해외수입도 충분하며, 대회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조직위의 수입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자대회의 걱정은 없어도 될 것이다.

마. 사회·문화적 측면

올림픽 개최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서울올림픽은 우리 사회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급격한 발전과 산업화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로 가치관의 변화를 수반했고 이는 사회불안의 결정적 계기가 되어 왔으나 올림픽의 개최로 인해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목표를 설정하게 되어 애국심과 국민적 협동심을 고취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본이 동경대회를 각종 사회질서 확립의 계기로 활용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국민의 교통질서, 공중도덕 및 각종 사회질서를 지키며 존중하는 분위기를 창출해 냄으로써 우리의 국민의식수준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문화적 자부심을 심어준은 물론, 고유의 전통문화를 적극 발굴·육성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전통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우리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은 국력신장에 따른 자신감과 합쳐져 구미문화에 대한 열등의식을 해소하고,

다가오는 태평양시대를 이끌고 나갈 문화 민족의 면모를 갖추게 할 것임에 틀림없다.

3. 서울올림픽의 방해요소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에게 많은 발전적 효과를 줄 것이 틀림없지만 대회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대회 개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국가발전에 역행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에만 매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대회의 방해물 기도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우리의 서울올림픽대회는 과연 안전한가? 서울대회의 방해세력은 누구인가? 이러한 문제는 대회 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입장으로서 우리 전 국민이 심각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역사적으로 올림픽대회의 유산 사례는 제 1차 세계대전에 의한 6회 베를린대회, 제 2차 세계대전에 의한 12회 헬싱키대회 및 13회 런던대회의 3번이 있었으며 제20회 뮌헨대회는 테러에 의한 유혈사태로 인해 중단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서울대회도 100% 안전도를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서울올림픽에 대한 북괴의 입장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할 것임에 틀림없다.

서울올림픽이 우리에게 국력신장의 일대 전환점이 되는 반면 북괴에게는 남북간의 국력격차를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남북간의 체제경쟁에서 영영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게 할 중대한 사태로 판단케 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때문에 북괴는 24회 하계올림픽의 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된 이후 줄곧 서울대회의 방해에 열중해 왔다. 금강산댐의 건설을 통해 대부분 한강변에 위치한 서울의 올림픽시설을 황폐화시킬 뜻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KAL기 공중폭파사건과 같은 테러적 수단을 동원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왔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휴전선 일대에서 각종 무력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에 올림픽을 개최할만한 평화분위기가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고 국제사회에 악선전해 올 것으로 예상되며 불순분자의 대남침투를 통한 경기시설의 파괴 및 테러채동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다.

또한 각종 대남평화선전공세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북괴정권이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선전함으로써 만약의 경우 서울올림픽이 유산될 경우 그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시키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괴의 서울대회 방해를 위한 노력은 일본의 적군파를 비롯한 국제테러조직과의 제휴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며 급진좌경용공세력에 의한 사회혼란 등의 우리 사회 내부적인 문제와 함께 작용될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이들의 방해책동을 분쇄하고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국민적 화합과 정치·사회적 안정이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대회의 완벽한 준비와 범국민적 참여, 국민적 화합으로 정치·사회적 안정을 이루는 것 등을 통한 우리의 총체적인 힘이 북괴를 비롯한 방해세력의 도전을 누를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방해세력으로부터 올림픽을 지키는 물론 모든 지혜와 정성을 다하여 대회진행에 참여할 때 서울대

회의 성공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 언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의 정치·외교적 지위향상과 여러 부문의 경제발전 그리고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및 국민의식 수준의 선진화 등 많은 발전적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가올 21세기의 위대한 태평양시대를 주도해 나갈 영광된 민족이 되기 위해 서울올림픽은 분명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도전이 있더라도 이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할 역사적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달려 나가야 할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文 學세계

오 세 남

〈고려대 영문학과〉

1. 셰익스피어의 생애와 작품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아름다운 에이본 강이 흐르는 한 쪽에 자리잡은 평화로운 작은 읍, 스트래트포드-온-에이븐에서 1564년 존 셰익스피어와 메리 아든의 아들로 태어났다. 부친으로부터는 유모어를, 모친으로부터는 점잖은 성품과 예의범절 및 전통에 대한 존중성을 물려받았다고 한다. 말년에 거의 언제나 그의 이름에 따라다니는 형용사가 “gentle”이었음을 통해 그의 인간성을 짐작할 수 있다. 아버지 존이 읍장이 되었을 당시 셰익스피어의 나이는 네 살이었는데 부친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해 볼 때,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그가 스트래트포드의 문법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문법학교에서는 주로 라틴어 학습을 했는데 여기서 셰익스피어가 로마 고전작가 카토, 키케로, 케사르, 오비드, 버질, 호레이스, 테렌스 등의 작품들을 섭렵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로마 고전작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가 7년 동안의 문법학교 교육을 마친 후에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없다.

1582년 18세의 나이로 8년 연상인 앤 해서웨이와 결혼했다. 앤은 철저한 청교도였으며 이것은 셰익스피어가 아내를 떠나 거의 일평생을 런던에서 배우, 극작가로서 보낸 것을 설명해 주기도 한다. 그 당시 청교도들은 극장, 직업배우를 부도덕한 무리로 대하였다. 1585년경부터 1592년까지 약 8년간의 그의 행적은 뚜렷하지 않는데 그의 행적이 뚜렷이 잡히는 1592년경 그는 이미 배우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었다.

이제 런던에서 배우, 극작가로서의 그의 활동을 4기로 나누어 극작가로서의 그의 성장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 1기는 1592년에서 1594년까지의 런던 도착에서 쉐퍼드필드 극단에 가담하기까지의 기간으로 보는데, 이 때의 작품으로는 〈타이투스 앤드로니쿠스〉, 〈실수연발〉, 〈말괄량

이 길들이기), 〈헨리 6세 3부작〉, 〈베로나의 두 신사〉, 〈사랑의 헛수고〉, 〈리처드 3세〉, 〈존 왕〉 등이 있다.

제 2 기는 1594년에서 1599년까지의 쉘벌린극단 가입부터 글로브극장 개관까지이다. 쉘벌린 극단은 비극배우 버비지와 훌륭한 극작가 셰익스피어로 인해 활발히 발전해 가는데 극장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쉘벌린 극단의 지도적 배우들이 글로브 극장을 건립하기에 이른다. 이와 함께 그의 창작력은 점점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작품으로는 〈한여름밤의 꿈〉, 〈베니스의 상인〉, 〈로미오와 줄리엣〉, 〈리처드 2세〉, 〈헨리 4세 1·2부〉, 윈저의 아낙네들, 〈헨리 5세〉, 〈헛소동〉, 〈종오실대로〉, 〈제12야〉 등이 있다.

제 3 기는 1599년에서 1608년까지의 글로브극장 개관부터 블랙프라이어즈극장 인수까지인데 이때까지 글로브 극장은 쉘벌린극단의 전용 극장이었다. 그리고 글로브극장의 건립과 더불어 극작가로서의 셰익스피어의 명성은 확고해졌으며 생존하는 영국 최고의 문인으로서 평가받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는 주로 어두운 면을 다루었는데 〈줄리어스 시저〉, 〈햄릿〉, 〈리어왕〉, 〈오셀로〉, 〈맥베스〉, 〈앤토니와 클레오파트라〉, 〈코리어레이너스〉, 〈아테네의 타이몬〉, 〈자에는 자로〉, 〈끝이 좋으면 모두 좋아〉, 〈트로일러스와 크레스이다〉 등의 작품을 썼다. 1603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제임스 1세로 즉위하

면서 셰익스피어 극단의 명칭은 쉘벌린극단에서 국왕전용극단(King's Men)으로 바뀌어 독보적인 극단의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마지막 제 4 기는 1608년부터 1613년까지의 블랙프라이어즈극장 개관부터 글로브극장이 화재로 소실될 때까지이다. 블랙프라이어즈극장은 국왕 극단의 동계공연장으로 사용되었는데 극단측은 새로운 관객에게는 희비극이 알맞을 것으로 판단, 셰익스피어 이외에도 이 장르에 유망한 작가를 끌어들이는데 예상 외로 이들의 희비극이 관객을 만족시켜 글로브에서 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헨리 8세〉공연 도중 글로브극장의 화재로 소실되었고 이와 더불어 셰익스피어의 연기, 극작활동도 막을 내렸다. 이 시기에 그는 〈심벌린〉, 〈겨울 이야기〉, 〈태풍〉, 〈헨리 8세〉 등의 작품을 남겼다.

말년에 셰익스피어는 스트래트포드의 유지요 명사로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1616년, 엘리자베스 시대의 국문학을 만개시키고 전무후무한 걸작들을 창작한 거성, 셰익스피어는 53세의 일기로 숨을 거두었다. 스트래트포드 교구교회 안에 무덤이 만들어졌으며 그의 기념비에서는 셰익스피어를 당대의 가장 유명한 영국의 문인으로 기술하고 있다. 당대 여러 사람의 평을 통해 볼 때 셰익스피어는 성품이 착하고 너그럽고 정직하며 예의범절이 바른 사람이었던 것 같다. 또한 외향적이고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므로 친구가 많았고 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것 같

다. 셰익스피어의 극작품 36편이, 1623년의 전집 초판본에 수록되어 있다. 이 36개의 극작품들은 희극, 사극, 비극으로 나눌 수 있는데 희극이 14편, 사극이 10편, 비극이 12편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 이 분류를 달리 할 수도 있다.

다음에서는 4대 비극 중의 하나인 〈맥베스〉, 희극에 속하는 〈헛소동〉, 그리고 로마사에서 소재를 따온 비극적 사극이라 할 수 있는 〈줄리어스 시저〉를 소개하기로 한다.

2. 셰익스피어의 작품소개

〈맥 베 스〉

이 작품은 도덕적으로 허약한 성품에 작용하는 야심의 정열과 이것이 초래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 감각의 노예가 된 주인공의 인격이 어떻게 서서히 몰락해 가는가를 묘사하고 있다. 용감하고 강직하며 존경받는 스코틀랜드의 장군 맥베스가 세 마녀의 모호한 예언을 들은 후 야심이 싹트게 되고, 이 야심의 실현을 위해 덕망있는 왕을 살해하게 되며 왕을 살해함으로써 연속적인 범죄로 뛰어들게 되며 이러한 범죄 속에서 일종의 비틀거리는 절망과 함께 끝까지 운명에 도전해 싸우다가 마침내 누적된 복수 앞에 쓰러지고 만다는 이야기이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스코틀랜드의 장군 맥베스와 뱅코우는 벌판에서 그들을 기다리던 세 마녀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부터 맥베스의 비극이 서서히 시작된다. 마녀들은 글래미스의 영주, 코오더의 영주, 장차의 왕이라는 말로 맥베스를 혼란시키고 또 뱅코우에게는 왕들을 낳으실 분이라는 이상한 예언을 남기고 사라진다. 맥베스를 어전으로 안내하기 위해 파견되어 온 앵거스와 로스의 입을 통해 그에게 이미 코오더의 영주라는 칭호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은 맥베스는 그냥 흘려버렸던 마녀들의 말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여 마음 속에 야심이 싹트기 시작한다.

선친이 돌아가신 후 그는 자연스럽게 글래미스의 영주가 되었고 이제 코오더의 영주가 되었으니 마녀들의 마지막 예언만 남은 것이다. 유혹의 손길은 무섭다. 아무리 현명하고 도덕적인 인물이라도 일단 이 손길에 붙잡히면 차츰 이성을 잃게 된다. 맥베스 역시 왕관에 대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욕심이 이런 상황에서 불붙기 시작한다. 태자 맬컴의 황태자 책봉은 맥베스로 하여금 야심의 실현을 더 이상 시간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한편 맥베스의 성에서는 그의 부인이 세 마녀들의 예언에 대한 맥베스의 편지를 읽고 장차 돌아올 왕관에 대한 욕망을 키우고 있다. 그때 마침 사자로부터 오늘밤 덩컨왕이 행차하신다는 전갈을 받고는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며 돌아온 남편과 덩컨왕 살인계획을 세운다. 맥베스의 성은 왕을 맞이하는 축연의 분위기로 무르익어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맥베스는 국왕 암살계

획을 나름대로 합리화하려 인간 힘을 쓰고 있다. 왕의 친척이며 신하인 자기가 왕을 살해하는 것, 더구나 자기 성을 방문한 덩전왕을 살해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짓인가를 안다.

그는 비극의 주인공이 겪는 심한 내적 갈등을 겪는다. 번민 끝에 그는 부인에게 이번 일을 포기하자고 제안해 보지만 강철심장의 부인은 그의 두려움과 불안을 사나이답지 않은 생각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로 하여금 덩전왕 살해를 최종적으로 결심하게 만든다. 결국 맥베스는 부인의 박차로 흔들리던 마음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날 밤, 맥베스 부인이 잠술에 마취제를 타서 덩전왕을 지키는 시종들에게 먹여 잠에 빠지게 한 다음, 맥베스는 단검을 들고 왕의 방으로 들어간다. 옆방에는 두 왕자, 딸컴과 도날베인이 자고 있다. 왕을 죽이고 나와 당황하는 맥베스에 비해 그의 부인의 태도는 아직도 냉정하다. 부인은 맥베스의 손에 든 칼을 자기가 들고 다시 왕의 방으로 들어가 아직도 흐르고 있는 피를 침실지기들의 얼굴에 칠하고 그들이 이 일을 한 것처럼 꾸며 놓고 나온다. 이런 부인의 침착성에 비해 맥베스는 자기의 일을 후회하며 덩전왕이 다시 깨어나기를 바라기까지 한다.

다음날 아침, 이 사건에 모두 경악하는데 맥베스는 일부러 분노를 가장하여 침실지기들을 단숨에 죽여버리며 그의 부인은 너무나 놀란 듯 기절해 버린다. 위험을 예견한

두 왕자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각기 잉글랜드와 아일랜드로 떠난다.

그래서 이 사건은 침실지기들이 매수를 당해 한 짓으로 결론내려 졌으며 몰래 사라져 버린 두 왕자가 주도자의 혐의를 안게 된다. 그리고 왕위는 자연스럽게 맥베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제 대관식을 마친 맥베스는 귀족들을 초대하여 만찬회를 베풀 계획을 세운다. 아들과 출타하는 뱅코우에게 맥베스는 만찬회에 꼭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에 뱅코우는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하고 떠난다.

비록 마녀들의 예언대로 왕이 되었지만 맥베스에게는 이 뱅코우의 존재가 두려웠던 것이다. 그의 대담하고 지혜로운 성품이 걸리고 또한 마녀들이 뱅코우에게 장래 왕들의 조상이라는 예언이 꺼림직하기만 하다. 그래서 맥베스는 자객을 시켜 만찬회 참석을 위해 돌아오는 뱅코우를 죽여 버린다. 일단 왕을 살해하자 양심의 고통과 번민없이 살인을 하지 못하던 그가 왕위 확보를 위해 살인을 다반사로 자행한다. 한낱 살인자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또한 앞 일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고 싶은 욕망이 불붙어 그 마녀들을 직접 찾아가게 된다. 마녀들은 찾아온 맥베스에게 맥더프를 조심하라는 말과 여자의 뱃속에서 나온 자는 아무도 맥베스를 해칠 수 없으며 버남숲이 던시베인으로 공격해 오지 않는 한 결코 정복되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한다. 이 말에 맥베스는 더욱 자신만만하다. 여자의 뱃속에서 나오지 않

은 자도 없을 것이며, 버남숲이 움직이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맥더프가 잉글랜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맥베스는 맥더프의 성을 점령하여 처자와 일가친척을 몰살해 버린다. 잉글랜드로 피신한 맬컴왕자를 찾아간 맥더프는 폭군에 시달리는 스코틀랜드를 구하기 위해 군대를 모으는데 처자가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맥더프는 슬픔을 복수의 칼로 바꾼다.

맬컴과 시워드 장군, 맥더프가 이끄는 잉글랜드군이 맥베스를 치러 온다. 맥베스의 잘못이 드러난 지금, 스코틀랜드의 많은 영주들이 그를 배반하고 잉글랜드군에 합세하지만 맥베스는 버남숲이 던시네인으로 움직여오지 않는 한 두려울 것 없다며 불굴의 투지로 싸운다. 그는 아직도 마녀들의 말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때 사자로부터 버남숲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도 실망하지 않고 맞선다. 사실 맬컴의 군사들이 그들의 인원 수를 숨기기 위해 버남숲의 나뭇가지 한 개씩을 잘라 앞을 가리고 진군해 오고 있는 것이다.

드디어 맥더프와 맥베스의 혈투가 벌어진다. 여자가 낳은 자에게 결코 죽지 않는 신통술이 자기에게 있다며 큰소리치는 맥베스의 귀에, 달이 차기 전에 어머니의 배를 가르고 나왔다는 맥더프의 말은 비수와 같다. 이제야 마녀들이 두 가지 뜻을 가진 애매한 말로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지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기 위해 혈투를 벌이다 결국 맥더프의 칼에 쓰러지고 만다. 마녀들의 말 한 마디로 비극의 운명에 뛰어든 맥베스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처참한 최후를 마친 것이다.

〈헛 소 동〉

이 극은 히어로와 클로오디오의 결혼과정에서 돈 존 일당의 음모로 빚어지는 비극적인 요소와, 베아트리스와 베네딕크가 기지로 엮어내는 희극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돈 존 일당의 음모로 클로오디오는 착한 히어로로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하게 되고 결혼식장에서 그녀에게 심한 모욕을 주어 정신적인 죽음을 가하게 된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해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는데, 이 작품에서도 셰익스피어는 베아트리스와 베네딕크의 대화는 우리로 하여금 웃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특히 희극은, 남이 쓴 글을 보는 것보다는 직접 그 작품에 접해 등장인물들을 만남으로써 희극의 참 맛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무대는 멧시나의 지사 레오나트의 집 앞 정원이다. 그에게는 외동딸 히어로와 조카딸 베아트리스가 있다. 레오나트는 오늘밤 멧시나를 방문키로 되어 있는 아라곤의 영주 돈 페드로, 돈 페드로의 이복동생 돈 존, 플로렌스의 귀족 클로오디오, 파두아의 귀족 베네딕크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의 도착과 함께 히어로와 클로오디오의 로맨스, 베네딕크와 베아트리스의 지칠 줄

모르는 말장난이 시작된다.

베아트리스와 베네딕스는 만나기만 하면 말전쟁이 벌어진다. 말로 하는 이 기지의 싸움에서 둘 중 누구도 양보하지 않고 상대방을 최대한으로 골려 준다.

베아트리스는 베네딕스를 지조가 모자의 유행과도 같아서 새로 나오는 모양에 따라 항상 변하는 사람, 맥빠진 영주의 광대라 하고 베네딕스의 친구를 보고는 페스트보다도 무서운 베네딕스병에 걸린 가엾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베네딕스는 자기는 베아트리스를 제외한 모든 여성의 선망의 대상이라고 자만하지만 자기는 어느 여성에게도 호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이라고 한다. 베아트리스 또한 어느 남자에게도 호감을 못 느끼며 남자들이 구애하는 소리를 듣기 보다는 자기 집 개가 까마귀를 보고 짖는 소리를 듣는 편이 훨씬 나을 거라고 되받는다. 그녀는 자신이 남자들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아침 저녁으로 신께 무릎을 꿇고 감사드린다고 말한다.

아무렇게나 뭉쳐진 한 덩어리의 흙뭉치에게 평생을 바치며 지배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엾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두 사람은 철저한 독신주의자인 것이다. 그녀는 베네딕스의 얼굴이 상처를 입더라도 지금보다 새삼 더 나쁘게 보이지는 않을 거라며 그를 골려 준다. 끝도 없이 청산유수로 지껄이는 그녀를 베네딕스는 앵무새학교 선생으로선 적격이라고 말해 준다. 그러나 언제나 손을 들

고 물러나는 쪽은 베네딕스다.

클로오디오는 첫눈에 히어로에게 반하게 되어 조연을 구하지만 여성에 별로 관심이 없는 베네딕스는, 클로오디오가 히어로를 최고의 미인이라고 칭찬하는 말을 듣고 자기는 돌보기가 필요치 않은 나이인데 그렇게 보이진 않더라는 둥 농담만 할 뿐이다. 자기는 어느 여인도 믿지 않을 것이며 사랑에 빠지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큰소리친다. 클로오디오가 히어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베네딕스의 입을 통해 돈 페드로에게도 알려지게 되고 그는 클로오디오를 돕기로 한다. 용기가 없는 클로오디오를 위해 오늘밤 연회 때에 자기가 가장을 해서 모든 일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약속한다.

돈 페드로의 동생 돈 존은 형님에 불만으로 가득차 있으며 뭔가 꼬투리를 잡아 누군가를 놀려 줄 궁리만 하는 악당이다. 그런데 부하 보라치오로부터 클로오디오의 혼담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일을 방해할 음모를 꾸미게 된다. 또 하나의 선의의 계획이 돈 페드로, 베네딕스, 레오나토, 클로오디오, 히어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만나기만 하면 말싸움을 그칠 줄 모르는 베아트리스와 베네딕스 사이에 사랑의 다리를 놓자는 것이다. 따라서 클로오디오와 히어로의 결혼식이 있기까지 두 가지 계획, 즉 이들의 결혼을 방해하기 위한 돈 존 무리의 음모와, 베아트리스와 베네딕스를 맺어주기 위한 선의의 계획이 진행되게 된다.

돈 존 일당은 히어로를 부정한 여인으로

만들으로써 이 결혼을 망치게 할 계획을 세운다. 이를 위해 그의 부하 보라치오가 히어로의 시녀 마가릿을 이용해 적당한 기회에 돈 존이 돈 페드로와 클로오디오를 히어로의 방이 보이는 정원으로 유도해 낸다. 그리고 보라치오가 히어로의 방 창가에 서서 마가릿과 대화하는 것을 목격시켜 마가릿을 히어로인 것처럼 꾸미자는 것이다. 그들의 계획은 그대로 진척된다. 그렇지만 돈 존의 부하 보라치오가 콘라드와 주고 받는 얘기를 야경꾼들이 듣게 되어 뭔가의 음모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그들이 그 두 사람을 끌고 간다. 그러나 돈 페드로와 클로오디오는 돈 존의 작전에 말려 들어가 히어로를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하게 된다.

한편 베네딕크는 레오나토의 정원에서 사랑에 빠져버린 친구 클로오디오를 생각하며 자신은 결코 그런 꼴은 되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그때 마침 레오나토 돈 페드로, 클로오디오가 오는 것을 보고 정자에 숨어 그들의 얘기를 엿듣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얘기는 베네딕크를 겨냥한 연극인 것이다. - 베아트리스가 베네딕크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빠져 있다. 어떤 남성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녀가 사랑에 빠지다니 연극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히어로의 말을 들어 보면 사실인 것 같다. 밤중에 잠도 안 자고 일어나 책상에 앉아 편지를 가득 써서는 찢어버리면서 뻔히 조롱해 올 사나이에겐 편지를 쓰는 자신을 꾸짖고는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자포자기 해서 잘못되거나 않을까 걱정된다. 베네딕크에게 이 일을 알려서

반응을 보고 그러면 자존심 강한 베아트리스가 죽어버릴 것이다. 그에게 알리기 보다는 차라리 베아트리스를 단념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등등으로 베네딕크에게 미끼를 던져놓고 그들은 사라진다. 이들의 얘기를 다 들은 베네딕크는 베아트리스가 정말 자신에 대한 사랑에 빠져 있을까 의아해하며 만일 그렇다면 오만하다는 평판을 받아 나쁜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녀의 사랑을 받아 들여야 겠다고 생각한다.

한편 히어로도 그녀의 하인들과 함께 베아트리스에게 미끼를 던지는 임무를 개시한다. - 베네딕크가 베아트리스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 만일 이 사실을 알면 베아트리스는 교만하고 사람을 경멸하는 버릇이 있어서 분명 베네딕크를 조롱할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알리지 말고 베네딕크를 단념시키는 것이 좋겠다. 놀림감이 되게 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감정을 삭이게 하는게 좋겠다 - 등등의 대화로 베아트리스의 호기심을 한껏 자극해 놓고 들어간다. 이것을 들은 베아트리스는 경멸도 자존심도 작별 하고 베네딕크를 사랑해야겠다고 결심한다. 이렇게 해서 베아트리스와 베네딕크는 꿈쩍없이 이들의 작전에 말려들어 버린 것이다.

드디어 클로오디오와 히어로의 결혼식 날이 되어 모두들 신부님을 모시고 교회의 제단 앞에 모여 있다. 여기서 클로오디오는 히어로의 부정을 폭로한다. 썩어빠진 꿀, 외관 뿐인 정결, 교활한 가면이라는 말로 히어로를 탕너로 몰아붙이며 결혼취소를 선언

하고 가장 추하고도 아름다운 여인이라 부르며 작별을 고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일에 충격을 받은 히어로는 졸도해 버리며 만인이 보는 앞에서 이런 엄청난 모욕을 받은 히어로의 아버지 레오나트는 자기를 찢러 죽이라고 한다. 또한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 히어로에게는 죽음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으며 히어로가 죽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신부는 무슨 오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진통을 통해 그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당분간 히어로가 죽은 것으로 하자는 제안을 한다.

한편 베아트리스는 베네딕도에게 히어로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례라도 하겠다며 눈물을 흘린다. 여기서 두 사람은 사랑을 서로에게 고백한다. 자기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클로오디오를 죽여달라는 베아트리스의 요청에 베네딕도는 잠시 당황하지만 자기의 사랑을 위해 친구인 클로오디오에게 결투신청을 하겠노라 약속한다.

한편 야경꾼들에게 끌려간 보라치오와 콘라드의 심문을 통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다. 그리하여 모든 일의 전후를 알게 된 돈페드로와 클로오디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며 히어로의 아버지 레오나트에게 어떤 보복이라도 달게 받겠노라고 한다. 레오나트는 죽은 딸을 살려놓을 수는 없으니 멧시나 시민들에게 딸애가 아무 죄도 없이 죽었음을 알려주고 히어로의 무덤 앞에 조사를 써서 그 유해를 위로해 달라고 한

다. 그리고 클로오디오에게 자기 조카사위가 되어달라고 한다.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 히어로의 사촌동생과 결혼해야 할 형편이 된다.

다음날 클로오디오와 히어로의 사촌동생과의 결혼식이 행해지는데 이 극적 상황에서 클로오디오는 히어로의 사촌동생이라는 여인이 바로 히어로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베아트리스와 베네딕도도 그들이 여러 사람의 작전에 말려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 얽히고 설펀던 매듭이 풀리고 아름다운 두 쌍이 탄생하게 된다.

〈줄리어스 시저〉

이 극의 출처는 플루타크의 〈영웅전〉을 영역한 토마스 노스의 〈플루타크〉 중 ‘줄리어스 시저의 생애’이다. 역사에서 소재를 따왔고 비극적인 두 인물을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사극과 비극의 양면성을 띠고 볼 수 있다. 두 비극적 인물은 자신의 야심으로 인해 살해당하는 시저와 반란에의 가담 여부를 두고 일어나는 심적 갈등을 겪다가 결국 자기 자신의 행동이 움직여 놓은 세력에 의해 압도되고 마는 부루투스이다. 시저 개인의 생과 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가 왜 그리고 어떻게 살해되었나, 부루투스에게 가하는 카시우스의 유혹, 부루투스의 심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 내적 갈등을 겪는 인물은 부루투스 뿐이며 이런 의미에서 부루투스를

이 극의 주인공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로마의 광장, 시저를 비롯한 로마의 귀족들이 경주를 관람하기 위해 모여 있다. 식이 시작되고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시저를 부르며 삼월 보름을 조심하라고 한다. 그렇지만 시저는 이 점장이의 말을 무시해 버린다. 부루투스 역시 로마시민의 존경을 한몸에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반란을 계획하고 있는 카시우스는 이 부루투스를 반란에 가담시킴으로써 반란의 정당성을 얻고자 한다. 신과 같은 시저를 제외한 모든 명성 있는 로마인사들이 부루투스를 존경하며, 부루투스가 조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칼을 뽑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여 그를 반란에 끌어 들이고자 한다. 부루투스는 시저를 사랑하고 있긴 하지만 그가 황제로 추대되는 건 원치 않는다.

그리고 사회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카시우스는 로마에서 신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시저에게 늘 불만을 품어 오고 있는 사람이다. 대로마에 단 한 사람이 군림하고 있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 카시우스는 부루투스를 고결한 사람이라 인정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반란의 성공을 위해서는 더욱 이 부루투스라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인물을 이용해 로마시민이 이 반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유도하자는 생각이다. 이 부루투스의 반란에 가담 여부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루투스를 이 일에 가담시키기 위해 그는 여러 사람의 필적으로 편지를 써

서 다른 여러 사람에게서 온 것처럼 부루투스에게 보내 그로 하여금 로마인들이 그를 대단히 존경하고 있으며 시저가 야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가 무척 위험하다는 것을 확신케 하기로 작전을 세운다.

삼월 보름을 하루 앞둔 밤, 카시우스의 음모계획이 암암리에 진행되는 동안 로마거리는 천둥과 번개, 여러 가지 이변들로 불안정하며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분위기다. 카시우스는 카스카 트레보우스, 리가리우스, 데키우스, 킴베르킨나를 이 일에 가담시키는 데 성공한다.

한편 부루투스는 자유를 위해 살인을 할 것이냐 아니면 노예로 살아갈 것이냐의 심적 갈등으로 번민한다. -개인적으로는 원한이 없지만 국가 전체를 위해 이 일은 어쩔 수 없다. 비록 지금까지는 시저의 감정이 이성을 지배한 적은 없지만 이 겸손은 젊은 야심의 사다리에 불과하며 일단 제일 높은 계단에 올라가게 되면 아랫계단을 멸시하게 된다. 시저도 그렇지 모르니 미리 위험을 막아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명분이 서지 않지만 독사의 알에 해당하는 시저가 알을 까기 전에 로마를 위해 그를 죽여버려야 한다. 드디어 그는 자신이 시저를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칼을 들기로 결심한다.

한편 부인 칼푸르니아가 악몽에 시달리며 하는 잠꼬대를 들은 시저는 맘이 편치 않아 하인을 불러 신관에 가서 희생을 바치고 점

의 결과를 알아보라고 명령한다. 칼뚜르니 아는 간밤에 일어난 여러 괴이한 이변들과 자신의 꿈을 생각해 볼 때 분명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라며 시저에게 오늘의 외출을 극구 말린다. 그리고 신관에게 다녀온 하인이 희생으로 바칠 짐승의 내장을 꺼내보니 심장이 없었다며 오늘의 외출을 삼가라는 신관의 말을 전한다. 그렇지만 위대한 시저가 비겁한 자가 될 수 없다며 신관의 말도 무시해 버린다.

의사당으로 향해 나가는 길목에서 삼월보름을 조심하라고 했던 점장이를 만나게 되는데, 시저는 오늘이 삼월보름이 아니냐며 점장이의 예언을 비웃는다. 또한 음모에 대한 암시의 글과 부루투스를 경계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쓴 아르데미도투스가 군중들 틈에서 시저에게 편지를 전해 주며 제일 먼저 자기의 글을 읽어 달라고 부탁하지만 시저는 귀찮다는 듯 그를 무시해 버린다. 이렇게 해서 위대한 시저는 자신의 죽음을 향해 간다. 카스카를 선두로 다른 음모자들, 부루투스의 칼이 시저의 몸을 찌르는데 시저는 자신이 믿고 사랑하던 신부 부루투스의 칼에 마지막으로 쓰러지고 만다.

카시우스가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비해 부루투스는 극히 이상적이다. 그의 이상주의로 인해 카시우스의 주장을 무시한 채 시저의 오른 팔 안토니를 살려두며 안토니로 하여금 시민들 앞에 추도연설을 하도록 허락한다. 이것이 그의 실수이고 그의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 안토니의 연설에 앞서

부루투스는 군중들 앞에 나아가 설득력있는 연설을 시작한다. - 시저를 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시저가 죽고 만인이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시저가 살고 만인이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 좋겠느냐 그가 야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 - 등 유창한 말로 시민들을 설득한 후 자신들이 한 일에는 조금의 잘못도 없다는 시민들의 심판을 얻어낸다. 위대한 부루투스는 시민들의 함성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의 연설은 정말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앤토니의 연설이 시작되자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던 그들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고 만다. 앤토니의 웅변은 조금 전 부루투스의 연설이 만들어 놓은 성공을 완전히 뒤엎어 놓고 만다. 드디어 시저의 억울한 죽음이 탄로나고 시민들의 분노가 치솟는다. 이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반역자들을 죽이겠다고 나선다. 이렇게 시민들의 분노를 부채질해 놓고 이제 앤토니는 로마에 돌아온 옥타비우스를 맞아 이 문제의 해결책을 의논한다. 군대를 모으고 있는 부루투스와 카시우스에 대처하기 위해 동지를 규합하고 동맹군을 모은다. 시민들의 분노가 자기들에게로 향하게 되자 부루투스와 카시우스는 군대를 모아 앤토니를 공격할 준비를 한다. 격렬한 전쟁이 시작되고 결국 카시우스는 부하로 하여금 시저를 찔렀던 그 점으로 자신을 찌르게 하여 죽고 부루투스 역시 부하가 들고 있는 칼에 스스로 달려들어 목숨을 끊는다.

3. 셰익스피어 당시의 영국 문화

셰익스피어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의 영국 문화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16세기는 영국의 문예부흥기에 속한다. 15세기 이탈리아에서 꽃을 피웠던 르네상스가 이 시기에 영국에 전파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고대 회랍문학과 예술의 재발견을 의미함과 동시에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즉 인간의 재발견을 의미한다. 문학에서 이를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사람이 셰익스피어와 베이컨이라 할 수 있다. 중세의 내세지향적 철학과 종교관에서 벗어나 형이상학적, 형이하학적 세계에 들어가 보려는 노력이 이 시대에 있었다. 형이상학적 세계로의 진출결과는 문학으로 나타났고 형이하학적 세계로의 진출결과는 신대륙의 발견 등 여러 가지 지구상의 발견이었다.

전자의 경우 셰익스피어의 극예술에서 완성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셰익스피어의 영국의 르네상스에 대한 기여는 대단하다고 하겠다. 르네상스가 낳은 가장 큰 사상은 인문주의인데 고대회랍의 필사본들 속에서 바람직한 세계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있었고, 영국의 인문주의의 특성이 기독교적 인문주의였으므로 셰익스피어와 그의 동시대 극작가들은 이 기독교적 인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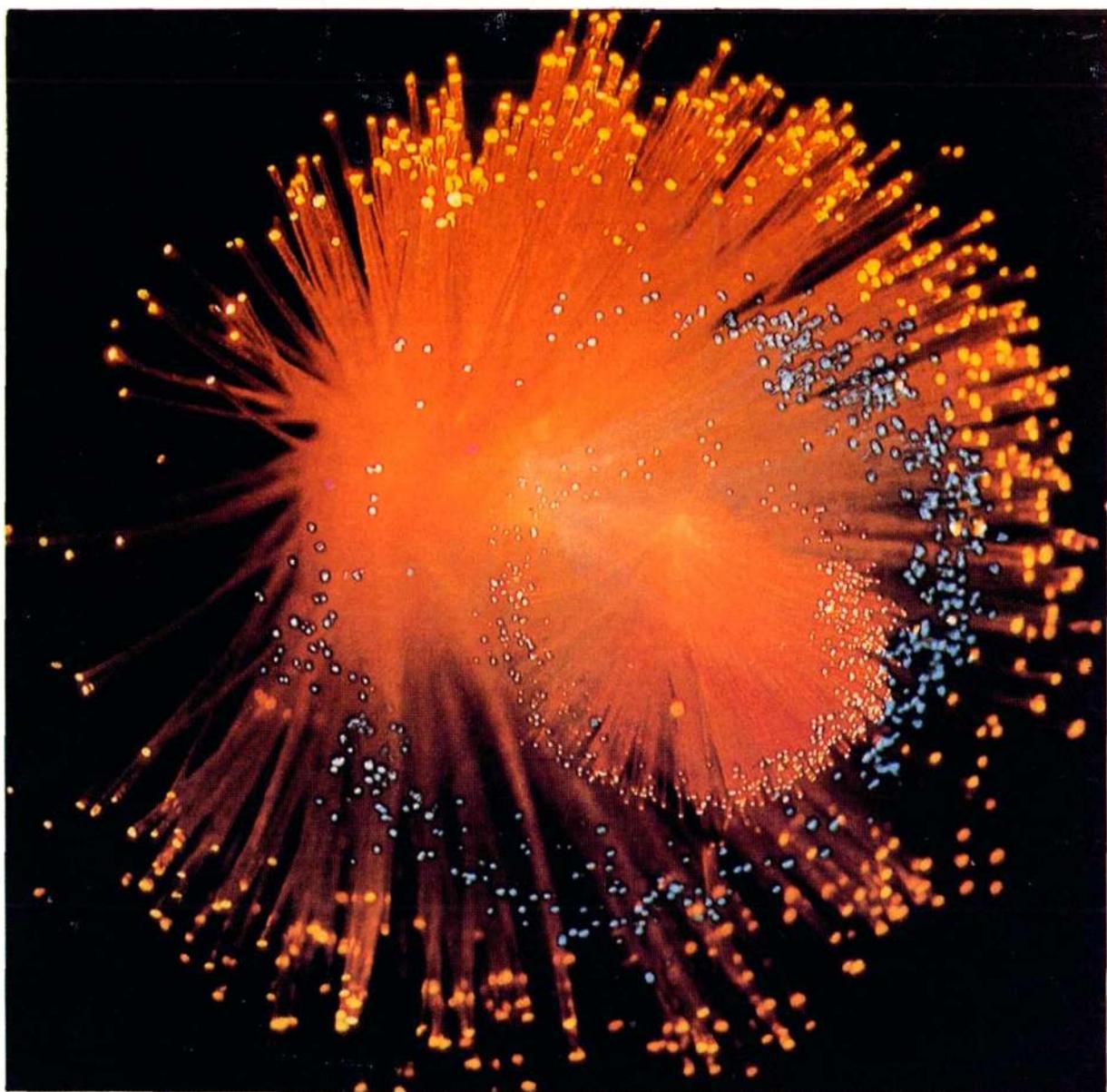
셰익스피어 시대의 영국 민속을 알아보는 것도 셰익스피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 시대의 미신은 대부분 혼령과 귀신에 관계된 것이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도 혼령이 자주 등장하는데 - 혼령은 밤에만 나타나며 생존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혼령은 혼자서는 말을 할 수 없다. 혼령이 나타나면 큰 이변이 일어난다. 인간의 힘으로 혼령을 해칠 수 없다. 혼령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도록 나타난다 - 등등이 그 시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혼령의 특징이었다. 셰익스피어의 여러 작품에서도 혼령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살펴보았던 <맥베스>에서는 뱀코우의 혼령이 나타나 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맥베스를 정신적으로 더욱 괴롭힌다. 또한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는 마녀들이 등장한다. 마녀들은 주로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는데 <맥베스>에서도 세 마녀의 애매모호한 거짓 예언으로 인해 한 인간이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다.

셰익스피어 시대에 있어서 종교는 큰 부분을 이루고 있는 요소였다. 종교문제가 일으킨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을 역사에 잘 반영되어 있다. 원래 영국은 로마 가톨릭을 신봉하였는데 헨리 8세가 캐서린 왕비와 이혼하고 앤 불린과 결혼하려는 것을 교황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헨리 8세는 영국을 로마 가톨릭에서 독립시켜 자신이 영국교회의 최고권자임을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종교변혁은 헨리 8세 사망 이후에 까지 사회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쳐 영국

| | | | |
|---|---|---|---|
| | | | |
| 기 | 획 | 화 | 보 |

21세기의 주역 “KOREA”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우리는 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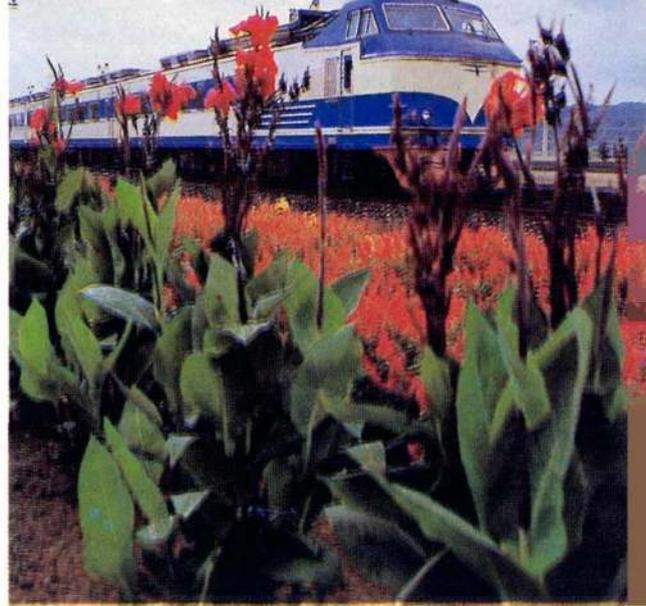
대통령 직선제 실시로 평화적 정부이양을 실현하여 민주발전의 대 전환기를 마련하였고 물가안정과 GNP의 성장, 수출향상으로 흑자 경제시대로 돌입하게 되었으며 「이코노미스트」 조사 분석결과 세계에서 살기좋은 나라 10위에 랭크도 되었다.

그리고 이제, 50억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린다.

이념과 체계를 초월한 사상 최대의 행사가 될 것이다.

국민의 단결된 힘과 막강한 국력의 바탕으로 서울올림픽을 성공시켜 경제기적에 이은 또 다른 신화를 창조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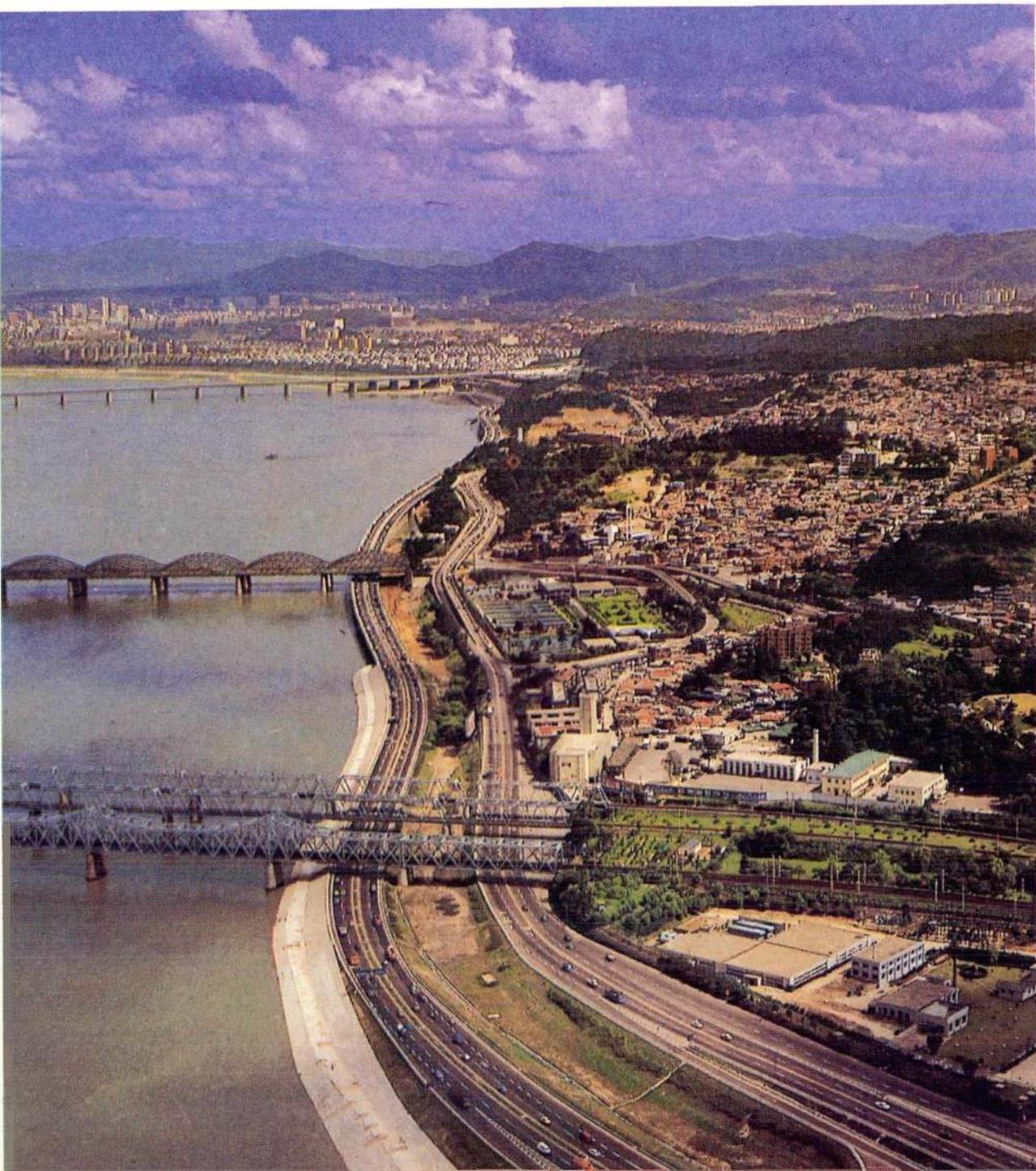




힘이 없는 평화란 있을 수 없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군사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월등한 수준에 있을 때 북한은 적화야욕의 망상을 버리고 평화통일정책에 동조하게 될 것이다.

모두가 자신의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자.

나의 조국 한국이 21세기의 주역이 되는 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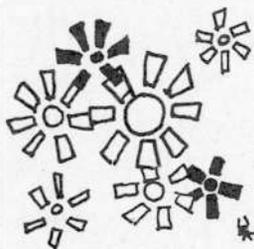
사회는 극도로 불안하게 되었다. 가톨릭 교도와 신교도 사이의 충돌로 학살과 처형이 자행되었다. 이런 당대 영국의 종교상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셰익스피어 작품들에서 언급되고 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상황이 문학작품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문학작품을 통해 그 시대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통해 그 당시의 영국을 알 수 있고 셰익스피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당시의 영국사회를 아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셰익스피어 문학전집
2. 이 상오, 이 대석 공역, 영국 문학사, 한신문화사.
3. 이 경식, 셰익스피어의 생애와 작품, 서울대학교 출판부.
4. 전 팔근, 이 상오 공역, 셰익스피어의 배경, 한신문화사.



北韓의 共産化過程 研究

증령서 홍 교
(공군사관학교)

I. 序 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地球上의 많은 國家들 가운데 共産國家는 20餘個 存在하고 있다. 1917年 1次世界大戰이 끝날 무렵에 러시아는 볼셰비키革命으로 인하여 最初의 共産政權이 들어섰고, 2次大戰을 前後하여 東歐 8個國家가 共産化되었다. 中共 역시 中·日戰爭과 2次大戰을 계기로 中國大陸이 共産化되었다. 그리고 越南戰爭이 끝날 무렵에 越南과 함께 라오스, 캄보디아도 모두 共産國家가 되고 말았다.¹⁾

이와 같이 共産主義者들은 戰爭의 혼란과 소용돌이 속에서 인접국가를 占領하고, 나아가서 暴力과 軍事力에 의해 地理的條件을 초월하여 共産化에 혈안이 되어 있다. 共産主義의 팽창과 위장手法은 바로 共産主義者들의 共通된 革命戰略이다.

共産主義革命은 주로 共産黨에 의한 既存政權의 打倒와 共産黨에 의한 獨裁政權 樹立의 意味에서 外國軍隊의 支援, 革命過程에서의 政治的 暴力의 使用, 産業化의 程度, 革命主体勢力 등의 基準에 立脚, 共産革命을 類型化할 수 있다.

블랙(Cyril E. Black)은 이 基準에 의거 4가지 共産化 革命類型을 제기하였다: (1)土着共産主義革命으로 國內暴力革命 형태로 蘇聯이나 中共, 유고, 알바니아 등을 들 수 있고, (2)外部로부터 輸入된 革命에 의해 共産化된 경우로서 強要된 革命形態로 外蒙古,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北

韓, 東獨을 들 수 있다. (3)選舉에 의한 革命으로 산 마리노(San Marino), 印度의 케라라州, 西벙갈州를 들 수 있으나, 지엽적인 경우로서 国家的인 次元에서 시도된 적은 없다. (4)위로부터의 革命 내지 共產主義에서의 轉向革命으로 쿠바, 과테말라 革命, 失敗로 끝난 인도네시아를 들 수 있다.²⁾

이러한 觀點에서 共產主義革命類型을 区分한다면, 北韓의 경우가 바로 外部로부터 強要된 革命이다. 이는 소련의 外部로부터 革命을 輸出, 붉은軍隊(正規軍)을 動員한 것을 말하며, 대부분 東歐의 共產化가 이와 같은 方法을 채택했지만, 아시아에서의 北韓은 東方의 前哨共產基地로서 革命輸出을 시도하여, 1945年 共產傀儡政權이 樹立되었다. 이러한 北韓의 共產化類型을 시베리아에서 “貨物列車로 실어 온 革命”(Baggage-train Revolution)” 또는 “貨車로 실어나른 政府”라고 表現하였다.³⁾

오늘날 北韓 共產政權이 소련의 사주를 받고, 소련의 영향권하에서 政治的 操作에 의해 共產化되었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東歐와 함께 北韓이 소련의 衛星國化 내지 소비에트化(Sovietization)된 것으로, 소비에트化는 蘇聯軍의 그림자 안에서 政治, 經濟, 社會, 文化를 國內共產黨의 指導下에 스탈린의 意思대로 再編成한 것을 意味한다.⁴⁾

極東에서의 蘇聯共產勢力의 팽창으로 인하여, 共產黨의 赤化戰略은 地域占領보다 강력하게 組織化되고 結合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蘇聯은 對北韓 소비에트化 過程을

達成하기 위한 온갖 手段方法이 動員되었다. 이는 소련의 軍事的 戰略戰術을 動員한 것으로, 3단계로 북한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共產化시켜 놓았다.⁵⁾

本稿에서는 1945年 8月 祖国解放과 더불어 이미 蘇聯軍이 北韓地域에 進入한 후 完全히 共產化되기까지인 1948年 12月의 期間을 分析하고, 3年 4個月에 걸친 北半部 共產化術策을 간파하며, 이러한 公산화過程에서 共產集團의 숨은 흉계와 偽裝戰術을 재인식하여, 共產主義의 陰謀를 認識하는 데 있다.

II. 蘇聯의 支配戰略

1. 赤軍의 進駐

第2次大戰末 獨逸파시스트와 日本軍國主義의 運命이 기울어질 때, 우리나라의 將來는 한 가닥 希望이 밝아져 왔다. 1943年 카이로(Cairo)宣言에서 美·英·中의 聯合3大國 수뇌의 서명에 따라, “韓國國民의 奴隸狀態에 유의하고, 適當한 時期에 韓國이 解放되고 독립하게 되기를 決意한다”고 하였다. 뒤이어, 1945年 2月에는 美·英·蘇 3國의 수뇌가 얄타(Yalta)에서 秘密協定을 체결하여 聯合國이 蘇聯을 끌어들이고, 蘇聯이 “獨逸敗亡後 2~3個月 以內에 연합國의 일익으로서 다음과 같은 條件下에 日本에 宣戰할 것을 約定함”이라는 前提條項下에 여러 가지를 열거했으나, 韓國에 關해서는 따로 言及이 없었다.

이어 1945年 5月에 獨逸이 항복하게 되자,

7月 伯林교의 포츠담에서 美国(루즈벨트), 英国(처칠), 蘇聯(스탈린)이 카이로宣言을 다시 確認하였다. 여기서 「日本の 主權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国과 우리가 決定할 諸小島에 局限될 것임을 다짐하고 韓國의 解放을 再確認했다.

그 後 1945年 8月 6日 廣島(히로시마), 9日 長崎(나가사키)에 原子彈이 投下되어, 日本은 決定的인 항복을 15日 日本天皇이 無條件宣言함으로써, 第二次大戰의 終末과 더불어 36年間の 日帝下의 植民地인 朝鮮이 비로소 解放을 맞게 되었다. 當時 38線을 分界線으로 設定하고, 聯合軍司令部의 臨時的 조치로서 “一般命令 第一号에 의하면, 韓國에 関한 第一項의 規定은 北緯38度線 以北의 日本軍은 蘇聯司令部에게 投降하고, 38線 以南의 日本軍은 美軍司令部에게 降伏한다고” 되어 있다. 6)

이처럼 38線은 순전히 軍事上의 必要 즉, 日本軍 降伏接受任務를 遂行하기 위해서 내린 臨時조치인데도 불구하고, 蘇聯은 38線 問題를 합의하기 전 8月 9日 对日宣戰을 布告한 後 徐徐히 北韓지역에 소련군을 進駐시켰다.

前日인 8月 8일에 慶興, 雄基方面으로 12일엔 羅津, 淸津을 占領, 24日엔 平壤에 入城하고, 8月末까지는 全北韓要地에 進入했다.

그리고 8月 15日 소련군은 平壤에다 北朝鮮 駐屯 蘇聯軍司令部를 설치하고 軍政에 着手하였다. 이것은 소련 제25軍司令部 奇茨차코프(Ivan Chistiakov) 上將이 이끄는 막

료와 함께 北韓땅을 占領케 했다.

奇茨차코프는 布告文에서 “...왜놈들이 高台広室에서 好衣好食하며 朝鮮사람들을 멸시하며, 朝鮮의 풍속과 文化를 모욕한 것은 당신들이 잘 안다. 이러한 노예적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朝鮮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手中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 붉은군대는 朝鮮인민이 자유롭게 창작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 주었다.” 7)

만약 奇茨차코프 上將의 布告文이 진실이었다면 북한에는 私資本과 個人企業이 존재해야 하였지만, 하나의 구실에 不過했다. 뒤이어 북한점령에 대해 蘇聯軍 최고사령부 는 “붉은군대는 무슨 目的으로 朝鮮에 왔는가?”라는 揭示文에서 “붉은군대의 위력은 크고도 큼니다. 그러나 이 위력은 어느 때든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정복함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또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우리에게는 구라파 사람들과 영토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남의 영토를 점령하거나 다른 나라 사람들을 정복하려는 그런 전쟁목적 없이,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8)

이러한 内容에서 소련軍隊가 남의 영토나 人口를 점령할 目的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軍政을 실시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과, 지금까지 蘇聯軍의 占領地域에서 蘇聯과 다름이 없는 共產黨의 独裁政治가 實現되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否認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蘇聯軍隊는 남의 領土와 人口를 占領할 目的도 없다는 것과 소비에트를 設定할 目的도 없다고 할 때 그 自体가 自家撞着的인 말이 아닐 수 없다.

當時, 全北韓에 진주한 소련군은 約20~30万이라고 전해졌고, 蘇聯本國의 食糧이 너무 不足하여 流入했다는 말과 더불어, 또한 北韓사람들은 日本人을 屈伏시키며 蘇軍이 들어오는 것을 고맙게 歡呼하기도 했다.⁹⁾ 그러나 實際로 붉은軍隊가 恣行하는 稀代의 掠奪行爲와 시설반출, 殺人, 暴行, 強姦, 파괴 등 온갖 行패를 戰時的 普遍的 현상으로 돌리면서, 解放의 기쁨에 감격만 하고 國際的 權力政治의 냉혹성에 눈뜨지 못한 상태가 初期의 狀況이었다.

2. 蘇聯의 對北策略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소련은 북한에 進駐하자마자, 駝라와 마이크車를 動員하여, 붉은軍隊는 소비에트 질서를 設定하거나 조선지역을 얻으려는 그런 目的이 없다고, 소란스럽게 선전한 것은 바로, 이땅에 共產制度를 設定하러 왔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전술에 不過했다.¹⁰⁾

소련은 어떠한 수단 방법으로라도 北韓을 共產化하고 예속화하려 하였으며, 이는 소련이 독일패망 以後 東歐衛星國에서 이미 使用한 手法과 다름없는데, 다만 北韓에서는 南韓에 民主主義 기치를 앞세우고 들어온 美國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特殊한 事情으로, 다른 衛星國보다 그 手法이 보다

더 奸巧하고 복잡하였다. 소련의 北韓共產侵略計劃은 7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가. 이제는 모든 것이 朝鮮人民들 것이니 당신들의 意思대로 하라고 하면서, 政治·經濟 등 모든 것은 朝鮮사람에게 넘겨 주는 形式을 취했다.

나. 그러면서, 事實은 모든 것이 朝鮮人民에게가 아니라 共產主義者들에게 즉, 土着共產主義者(國內派)가 아니라, 蘇聯派 共產黨員에게 넘겨 주었다.

다. 이러한 重責을 맡을 사람으로 미리 選拔하여 任務를 수행하기 위해 訓練시켜 놓은 蘇聯共產黨員이며 소련군 少佐인 金日成을 朝鮮人民의 代表者로서 民族的 英雄으로 變造시켰다.

라. 金日成으로 하여금 民主政體를 가장시켜 점진적인 불만을 통해 共產化 方向으로 끌고가게 하여 一定한 時期에 이르러서는 完全히 共產化로 전락시키고자 했다.

마. 經濟面에 있어서도 우선, 重要한 基幹産業, 鐵道運輸, 銀行 등을 國有化의 名目으로 共產黨이 틀어쥐고, 全人民의 勞力을 動員하여 復興發展시킨 것이며, 一般個人의 商工業 등도 처음에는 自由로이 復興發展시킨 후, 점차적으로 이것을 社會主義化의 名目으로 黨有化해 버렸다.

즉, 政治的으로 獨裁權의 確保와 主要經濟를 獨점하는 것은 共產黨으로서 決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바. 美軍이 南韓에 주둔하고 있는 條件下에서 당장 남한까지 全韓半島의 共產化는 不可能하므로, 우선 北韓만을 局限하여, 이

것을 完全히 共產革命基地로 創設하고, 여기에 革命力量을 축적하여 그 힘으로 南韓을 共產化한다는 것이다. 그 革命力量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人民軍隊의 育成이 強調되었다.

사. 蘇聯 사람들은 비록 蘇聯軍政下일지라도 되도록 表面에 나서지 않고 可能的한 金日成을 내세워서 朝鮮人의 이름으로 實行케 하도록 한다. 먼저 (1)北朝鮮 共產黨 首가 되고 (2)北韓 괴뢰정권의 首班이 되고 (3)全朝鮮 共產黨의 黨首가 되고 (4)全朝鮮 共產政權의 黨首가 되도록 한다는 計略이 바로, 蘇聯으로서는 金日成과 그의 一黨만을 잘 統制하면 보이지 않는 上典으로 共產主義朝鮮의 主人이 될 수 있다는 흥계가 도사리고 있었다.

以上과 같은 계획으로 소련군이 北韓에 그대로 실어나른 것이 對北政權이었으며, 우선 支配된 北韓의 共產 예속화의 方向이다.¹¹⁾

이러한 계획을 成就하기 위해서 自己들의 侵略的 本心을 숨기고, 朝鮮人民에게 그들이 解放者요 원조자로서 소련人民에게 모든 것을 넘겨 준 朝鮮人만이 自主的으로 自己의 길을 나갈 수 있도록 政治的 自由를 보장한 것이며, 經濟的 自立을 도울 것이니 朝鮮人民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自己의 企業과 經濟를 復興發展시키라고 呼訴하고, 선전에 熱을 加했다. 解放後 2個月 만인 10月 12日 公布된 北朝鮮駐屯 소련25軍司令官 명령서에서 上將 치쓰차코프 사령관과 同軍 參謀部長 中將 뵘프스키가 共同聲明한 內容 文을 보면,

① 前文一(略)

② 아래와 같이 公布함.

1條：北朝鮮地域에 日本侵略主義의 殘存들을 永久히 根絶시키며, 民主主義 初歩와 公民自由의 鞏固를 自己의 課業으로 내세우는 모든 反日民主主義團體들의 結成과 그들의 活動을 許可함.

2條：北朝鮮 勞動大衆들에게 自由的 職業同盟, 保險会社, 文化啓蒙協會들의 結成權을 줄 것.

3條：聖潔(聖堂)과 其他 教會 들에서 예배하는 것을 禁止 말 것.

4條：第1條, 第2條에서 지정한 反日黨과 民主主義團體들은 自己의 綱領과 規約을 가지고 와서, 반드시 地方自治機關과 소련 軍警務官에 등록하여야 하며, 同時에 自己의 指導機關의 人員名簿를 提出할 것.

5條：北朝鮮地域內에 있는 모든 武裝隊를 分散시킬 것.

모든 武器, 彈藥 및 軍用物資 들을 軍警務官에게 바칠 것. 平民中에서 社會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臨時道委員會들과 소련군 사령부와의 協議下에 規定된 人員數의 保安隊를 조직함을 許可함.

③ 北朝鮮人民들이 自己의 平和的 努力을 계속하며, 產業·商業·公營 및 其他企業들의 正常的 作業을 保障하며, 소련군 당국의 要求와 指令을 實行하며, 社會秩序를 維持함에 있어 蘇當局에 協助하기를 呼訴한다.¹²⁾

以上의 條文에서 當時 政黨團體를 組織하려는 사람들은 共產黨은 別개 問題라 하더

라도 10餘個가 제각기 結黨하고 組團하려고 했다. 13)

이러한 성명서는 4條에서 共產系列이 아닌 것을 탄압하기 위한 것보다, 어떤 사람이 어떤 團體를 조직하려고 하는가를 事前 審査한 후 점차 제거하기 위한 方法으로서 進行하게 되었는데, 얼마 안 가 大部分이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5條에 따라 反共親美를 지향하는 地下組織이나 保安署員이 있을 것을 가상하여 北韓全域에 武裝部隊를 解体하고, 武器·彈藥을 회수한 후, 平民에 의해 다시 保安要員을 확보하는 制度로 전환시켜 놓았다. 이러한 것이 解放 첫해 不過 2달 남짓한 10月 12日의 強力한 조치로서, 소련 軍政當局에 의해 全般的인 간섭과 치밀한 감시 및 体系的인 計劃 속에서, 北韓全域의 소비에트化는 급속도로 進展해 나갔다.

Ⅲ. 北韓政權 樹立의 諸段階

北韓에 있어서 소비에트화를 위한 共產主義政權의 完全한 移植은 불과 1年이라는 짧은 期間을 통하여 定着化되었다. 14)

그것은 韓半島 北半부에 수립된 最初의 共產政權이며, 東方의 唯一한 哨所로서 任務를 부여시키기에 알맞는 條件인지 모른다. 그러나 蘇聯軍政이 끝난 以後 不過 2년도 못되어 北傀政權은 한반도의 公산화를 노려 피비린내나는 同族相殘의 戰爭을 야기시켜 놓기도 했다.

北韓이 共產獨裁政權의 확립을 이루기가

지 그 과정이나 단계는 3~4가지로 時期를 区分할 수 있으며, 各其 學者들의 主張과 基準에 따라 다소간의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15)

筆者는 第1段階를 「建準」解体和 人民委員會의 組織(1945. 8~1946. 1), 第2段階는 聯立의 彈壓(1946. 2~1946. 8), 第3段階는 共產黨의 權力掌握(1946. 8~1948. 9)의 3段階로 区分하였다.

1. 第1段階: 「建準」解体和 人民委員會 組織

北韓에 있어서 소련군의 횡포나 共產黨에 反對할 組織된 民族勢力은 결여된 상태이다. 그것은 日帝의 철저한 民族抹殺政策과 民族主義運動 탄압 때문에, 戰後 韓半島에는 어떠한 政黨도, 조직된 民族勢力도 거의 全無 상태였다. 물론 1925년에 創設된 朝鮮 共產黨은 1928년에 解体되었기 때문에, 해방 당시 国内에는 黨組織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 16)

當時 北韓의 政治的 혼란 속에서 4個의 勢力이 있었다. 즉 国内 共產主義者 集團, 中國으로부터 귀환한 延安派, 소련으로부터 赤軍과 함께 들어온 소련파, 宗敎人 및 知識層으로 구성된 優勢한 集團으로 民族勢力으로 나눌 수 있었다.

當時 日本은 敗亡을 앞두고, 平南道知事로 하여금 民族指導者 중의 한 사람인 古堂 曹晩植 先生에게 平南道 行政權을 이양받게 하였다. 조만식은 8月 17日 「平南建國準備委員會」를 조직하여 治安 및 民生問題를 處理하고 있었다. 8月 26日 소련군사령

부에서 平南建準에 結集하여 曹晩植 委員長以下 민족진영 간부들과 朝鮮共產黨, 平南道黨 代表 玄俊赫을 비롯, 黨幹部를 招致하여 民族, 共產 兩陣營이 同數(各 16名씩)의 연립행정기구로서 平南人民委員會를 組織化하라고 指示되었다. 이 指示會議은 주로 民政長官이라 할 수 있는 로마넨코(Romanenko) 少將이 주관했는데, 소련군이 撤退할 때까지 北韓의 政治(經濟, 文化 포함) 全般에 걸쳐 指導할 責任者였다.

그 자리에 차쓰차코프 司令官도 포함되었는데, “우리는 당신네를 해방시켜 주었으나, 이 나라에 當장 社會主義制度 실시를 强요할 意思는 없다. 모든 것은 당신네가 알아서 할 일이되, 지금은 小資產階級性 民主主義革命 단계이니, 左翼, 右翼, 中間 할 것 없이 모두 힘을 합쳐서 民主主義 完全 獨立國家를 건설하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建準은 너무 右翼民族人士만 集結된 偏頗의 組織이니 그것을 解体하고 共產黨도 같은 比重으로 합친 새 자치행정기구를 만들어 잘해 나가라. 우리는 모든 면에서 당신들을 도울 것이다”라는 그럴 듯한 말로 勸誘하였다.¹⁷⁾ 이것은 바로 勸誘의 限界를 넘어선 指示인 것이다.

그러나 조만식 위원장을 비롯한 建準(民族陣營) 側에서는 “이미 朝鮮사람끼리 大同 團結해서 建準을 만들어 自主的으로 잘해 나가는데 왜 구태여 그것을 解体하고 새것을 만들라느냐”고 강경하게 抗議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蘇軍政下에서 軍政長官의 敕命을 어길 수는 없었던 狀況이었다.

다만 새 機構의 명칭을 共產側(玄俊赫派)은 「人民委員會」로 하자고 主張했으나, 結局에는 平南人民政治委員會라고 正式명칭을 使用기로 한 것이 高작 成果였다. 이것은 平南의 경우에 限한 것이고, 다른 道에서는 모두 다 人民委員會라고 불렀다.

平南人民政治委員會는 8月 26日밤에 成立되어 다음날인 27日 正式으로 發展되었다. 事實은 蘇軍政下에서 맨먼저 「威鏡南道人民委員會」라고 同月 24日에 이미 發足시켜 놓은바 있다. 平南人民政治委員會에서는 表面上 양 진영이 16對16의 同率로 했으나, 민족진영내에서 2명(金洗鎭, 洪箕疇)이 共產側에 買収되므로, 14對18의 優勢을 차지하여 橫暴가 始作되었다. 바로 이것이 소련군정이 북한에 수행한 소비에트化的 첫 단계이며, 첫 政治事業이다.

그러나 소련당국자는 조만식에 대한 신망이 크기 때문에 그를 이용하기 위한 술책으로 同委員會 委員長에 앉혔다. 그리고 16명의 委員들에게 重要部署를 決定했는데, 그중 10명이 共產側이며 主要部署인 特務, 保安, 副委員長, 司法 등을 定해 놓고, 軍政의 앞잡이 노릇을 하도록 조직해 놓았다. 이 같은 形便이니 平南人民政治委員會의 事業은 처음부터 혼란과 對立으로 양측의 毒무대가 되었다. 軍政의 方向이 要求하는 대로 움직여 나갔으며, 10月 8日에 北朝鮮五道會議을 平壤에 召集하였다.¹⁸⁾

한 마디로 소련 軍政下에 五道를 묶어 單一行政體制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서, 分割, 單獨, 예측화하려는 의도의 첫 俱現이며, 나

중(10月 28日)에는「北朝鮮五道行政局」으로 正式 發足시켰다. 이것은 事實上 共產傀儡 单独政權의 始發이다. 五道大會 이틀 후 北朝鮮五道共産党代表熱誠者大會를 개최하여 10月 13日에는「朝鮮共産党北朝鮮分局」이 창립됨으로 막스·레닌主義 原則에 입각한 最初의 조선공산당 조직이 되었으며, 당시 북한의 평양에서 조직되었다. 「朝鮮共産党北朝鮮分局」이라는 이름은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공산당이 있을 수 없다는 국내파 지도자의 주장으로 成立되었다. 이 時代의 北韓共産党은 소련과, 연안파, 국내파의 合作이므로 자리는 고루 配分하였다.

第一秘書에 金日成(소련파), 第二秘書에 武亭(연안파)과 吳琪燮(국내파)이었고, 中央党的 各 部長도 適当히 配合된 상태였다. 1945年 12月 17日~18日에 朝鮮共産党北朝鮮分局 擴大委員會가 개최되어, 金日成은 獨立된 黨중앙기관을 주장, 그때부터 黨명칭이 北朝鮮共産党으로 하자고 發議하자, 국내파 오기섭, 정달현 등이 反對했으나 軍政을 背景으로 金日成과가 승리하게 되었다. '46年 2月 8日 金日成을 委員長으로 하는「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가 조직됨에 따라 소련과는 確固한 勢力으로 登場하였다.

이상에서, 1단계의 Soviet化를 찾을 수 있고, 後에 '47年 2月「臨時」字를 빼내고「北朝鮮人民委員會」로 개편, 1948年 9月 9日에 所謂「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 設立되므로, 소련의 共産勢力이 제국주의의 침략과 더불어 北韓에서 完全히 造作시킨 共産政權이 탄생된 것이다.

2. 제2段階：聯立의 形成

소련공산주의자들은 北韓을 解放과 동시에 黨独裁政權을 수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련은 연합국과 맺은 國際協定들을 形式的으로 위반할 程度로 外交感覺에 둔하지 않았으며, 당시 여론에 예민하였다. 直線的인 소비에트化 政策으로 그곳의 民族感情을 刺戟하는 것은 옳지 못한 판단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一時的으로 共産党和 非共産主義政党和의 순수한 連립정부를 조직케 한다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共産党이 支配하는 政府로 위장할 수 있는 似而非聯立政府를 形成케 하는 것이다.

러시아革命이나 유럽의 人民戰線, 毛擇東의 連립정부와 유사한 行動方式으로, 共産主義者들이 全權力을 掌握할 때까지 사용한 하나의 戰術이었다.

前述한 바와 같이 北韓에서 平南人民政治委員會가 조만식 이하의 自主的 民族勢力(非共産主義者)들과 공산당간부들간의 순수한 連립정부를 形成했으며, 共産党은 保安警察을 장악하였다(이것은 東區의 革命에서도 類似한 과정을 거침). 그러나 非共産勢力들은 '45年 11月 3日까지 自体政黨은 없었다. 蘇聯軍司令部는 北韓의 復數政黨制度를 과시하고, 都市商工業者, 中農基督敎徒들을 組織化하고 포섭하기 위해 反日民主主義政黨的 권유로서 意識적으로 권장, 1945年 11月 3日 조만식을 黨首로 朝鮮民主黨이 창건되었던 것이다. 蘇軍司令部에서는 共産党的 最高幹部였던 崔庸健을 朝鮮民

主党的 副党首職에다 놓고, 金日成派 金策을 金在民이라는 假名으로 書記長겸 政治部長職에 登用하여 党内部에 公式적으로 浸透시켜 놓았다.¹⁹⁾

當時, 朝鮮民主黨이 結黨되고 3個月이 못되어 北韓全域 道, 市, 郡, 面에 이르기까지 地方黨部가 結成되고 黨員數가 50萬을 육박하자, 各 共産黨은 이를 시기 地方黨部會議을 습격하고 폭행을 加하여 허무맹랑한 罪名을 날조, 경찰에 구금·투옥시키는 등 방해공작이 있었다. 曹晚植 黨首와 소련軍政과의 충돌은 대체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1946年 1月 5日 赤軍이 조만식 당수를 설득, 4大國 信託統治案을 지지하도록 工作하였으나 이것이 失敗하자, 信託統治案을 反對한다는 罪名으로 소련군에 의해 평양고려호텔에 監禁되었고, 生死가 不明되었다. 당시 로마넵코 少將은 조만식을 초청, 모스크바 三外相會議의 決定을 反對하는 以上 당신의 生命을 保障하기 곤란하다고 회유했으나, 유혹을 물리치고 志操를 끝까지 지켰다.²⁰⁾

그 後('46年 2月 5日) 朝鮮民主黨 熱誠者大會를 개최, 黨名을 北朝鮮民主黨으로 改稱 康良煜을 임시 黨首로 하더니, 2月 24日에 一次大會를 열어 正式으로 共産黨인 崔庸健이 黨을 장악하였다. 이렇게 북한은 소련에 의한 제2단계 소비에트가 진척되었다. 즉, 1946年 2月 8日 金日成이 委員長으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가 組織되었고, 그것이 臨時的 人民委員會(地方行政機關) 정도가 아니라, 實際에 있어서 北韓의 中央集

權的 主權機關으로, 즉 北韓單獨政權으로 조직되었다는 것을 기정事實化하였다. 金日成은 組織 경위에 대해 「中央行政機關」 즉,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에 대한 의견을 누구보다도 먼저 民主主義的 諸政黨과 社會團體들의 指導者들에게 提出하였다.

이 目的으로 그들은 發起部를 조직하고, 이 發起部의 의견을 소련軍 司令部에 陳述한 結果, 反對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歡迎하였다고 結成大會에서 밝힌 報告內容의 일부이다. 이 때 北韓의 諸政黨이라면, 共産黨 外에 中共系인 朝鮮獨立同盟(金昌滿, 武亨) 등이며, 後에('46. 3. 30) 新民主黨으로 改稱(金料奉 黨首), 主로 小市民, 인텔리, 中産階級 등을 조직대상으로 했다. '46年 4月과 5月에 共産黨과 新民主黨이 合黨하여 7月까지는 道黨까지 合黨을 完了하고, 조만식을 내쫓아 崔庸健이 黨首노릇을 하는 北朝鮮民主黨을 수립하였다. 共産黨이 金達鉉을 회유시켜, 2月에 天道教 靑友黨을 조직하므로 불과 4個의 政黨이 參加하였고, 社會團體로는 職業總同盟, 農民同盟, 民主青年同盟, 女性同盟 등의 共産黨 외곽團體 뿐이었고, 發起部는 金日成 一黨과 같은 무리에 불과하였다.

한편, '46년 7월 22일에는 金日成의 提議에 의해 北朝鮮民主主義 統一戰線委員會라는 (略稱 民戰) 조직을, 4個政黨과 15個 社會團體를 참가시켜 통일전선을 結成하기도 했다.

上記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탄생은 朝鮮歷史에서 처음으로 人民의 政權을 창건

하였다. 同委員會는 표면상 聯立政府의 條件을 갖추려고 했으나, 實質적으로 그 内部에 共産党的 차지로 말미암아 準共産政權의 確立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組織도 金日成을 委員長(共産党), 金料奉을 副委員長(독립연맹), 康良煜을 書記長(北朝鮮民主党)으로 配分, 17명 중 14명이 차지한 人的構成은 바로 完全한 共産政權 樹立의 予備段階이다. 同委員會가 창설된 지 不過 6個月 만에 급격한 變化가 초래되어, 民主改革이란 美名아래 共産改革을 위한 法令, 政綱, 決定書를 公布, 획기적인 전환기를 만들어 놓았다. 主要項目을 보면, 土地改革法令(3.5), 選舉法令(6.4), 農業現物稅制(6.30), 男女平等權法令(7.30), 重要産業 國有化法令(8.10) 등으로, 体制의 大變革으로 돌입한 단계이다.

3. 第3段階：共産党的 独占과 支配

1946年 8月 28일부터 30일까지 平壤에서 北朝鮮共産党和 朝鮮新民党的 合党大會로 「北朝鮮勞動黨 創立大會」가 열렸다. 이것은 北朝鮮勞動黨 創立大會 또는 「第一次 全党大會」라고 하여, 28일엔 兩党的 해체와 合黨이 宣布되고, 29일에는 北朝鮮勞動黨의 創立節次로 들어갔다. 양당은 「북조선노동당」으로 명칭이 統合되고, 黨員數는 約 45 万 정도였다.

합당대회에서 中央委員 選出의 節次에 들어가기까지 共産黨側은 北朝鮮勞動黨의 金日成(소련파), 副委員長 金料奉(연안파), 朱寧河(國內派)를 밀었다. 中央委員會 選出

節次에 따라 첫 토론자로서 朴炳瑞(共産黨 平北道黨宣傳, 煽動部長)가 “北朝鮮勞動黨의 委員長에 英明한 우리民族의 領導者 金日成 동무를 추대하는 것이 定해진 事實이다”라고 열을리자 新民黨側 代表들은 不安한 빛이었으며, 各道代表들도 共産黨으로 흡수하지 않을까 하는 不安에 놓였다. 그러나 蘇聯軍政은 共·新合黨의 地方代表에게 安心을 시키려 努力했다. 반드시 金日成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는 것을 強調, 本會議가 속개되었다. 그리하여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에서 金料奉이 初代委員長에, 金日成과 朱寧河가 각각 副委員長으로 被選되어 3派가 安配되었다.²¹⁾

나중 金日成 一派는 朱寧河를 黨指導部에서 제거, 表面上 宗派主義者라고 낙인찍어버렸다. 다시, 副委員長에 黨組織部長인 許哥而(소련파)가 겸임하게 되었다. 1948年 3月 27日에서 30日까지 北朝鮮勞動黨 第2次大會에서 金日成은 政敵을 공격하기 위한 술책을 전개하였다. 이 가운데 吳琪燮(國內派)이 對象이었고, 그의 鄭達憲, 崔容達, 李鳳洙 등을 宗派主義者로 斷罪하였다. 延安派의 領袖인 武亭도 吳琪燮 못지 않은, 金日成의 政敵이었으나, 金日成派는 作戰上 國內派와 連안파가 同時 공격받으면 두 派가 손잡을 可能性이 있어, 戰術的인 첫단계로 소련파, 연안파 國內派의 三者合作을 꾀하고, 둘째단계는 소련파, 연안파의 同盟으로 國內派 領袖들을 党内 고립시키고, 셋째단계는 연안파를 분열시켜 反金日成分子들을 黨指導部에서 내쫓는 戰術이다. 4단계에

서는 国内派, 延安派 할 것 없이 金日成派에게 무조건 추종하는 者들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모조리 숙청, 바로 2次大会는 둘째 단계에 속한다.

金日成은 연안파의 武亭을 비롯하여 단계적 反金日成分子에 대한 숙청이 대대적으로 展開시켜 왔다. 한 마디로, 北韓의 소비에트인 共産党 1人独裁体制의 確立은 '45年 8月부터 '46年 8月 만1年内에 共産化를 完結시켜 놓았던 것이다. '47年 2月 17日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로부터 「臨時」를 빼내고 「北朝鮮人民委員會」로의 變化는 国号를 가진 公式的政權을 목표로 하는 과정임이 分明하다. 委員會가 發足되자 憲法制定에 착수, 北韓에 公산 단독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서두르기 始作했다.

同年 11月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3次會議에서 헌법초안을 作成하고, 金日成을 위원장으로 朝鮮臨時憲法制定委員會를 構成, 이어 1948年 7月 9日 北朝鮮人民會議 5次會議를 열고 전 조선이 통일될 때까지 同憲法을 북한지역에 실시할 것과 最高人民會議의 선거를 실시하기로 決議했다. 9月 8日 最高人民會議 제1期 代議員會議에서 憲法의 原案을 宣布,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憲法을 公式的으로 確定·發効한 것은 한 마디로 形式的인 節次에 不過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은, 소련의 共産帝國主義 侵略에 따라 北韓을 完全히 自己들 손아귀에서 操作, 单独共産政權을 設立한 것이다.

IV. Soviet化의 要因

北韓의 소비에트化 과정은 前章의 단계를 거쳐 完了했는데, 이러한 期間은 東歐에 비하여 훨씬 짧은 時日內 目的을 達成했다. 즉, 全期間을 解放과 더불어 北韓地域에 共産政權이 수립하기까지는 바로 소련군(붉은 군대)의 進駐와 철수를 意味한다면 不過 1年으로서, '45年 8月 27日 「平南人民政治委員會」 조직에서 '46年 8月 28日 「北朝鮮勞動黨」 結党 1년 만에 公산당의 一黨獨裁체제 形式이 完了되었다. 이러한 短期成就의 背景이 무엇인가에 대한 要因을 大別하면,

첫째: 植民地의 영향

일제 36年이라는 긴 세월을 民族의 抹殺이라는 目標下에 朝鮮人을 完全히 노예화로 전락시켜 놓았기 때문에, 소련군에 대한 저항수단으로 정당조직이나 政治組織이 全無한 狀態이기 때문에, 도전意識보다 오히려 해방자로서 조선인의 환영을 받을 立場이었으니 그들의 政策實施는 한 마디로 順調로운 것이었다.

둘째: 저항세력의 微弱

當時 北韓地域에는 土着的 民族指導者나 기반이 빈약했다는 점에서 東歐의 社會民主黨처럼 조직력이 없었기 때문에, 北韓勞動者나 住民을 “붉은思想으로 무장된 共産主義戰士로 教養”하기에 곤란이 없었다. 이에 대해 金日成은,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사업을 하는 데 한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라과와 같이 노동계급의 대열을 분열시키며, 그의 계급의식을 부르조아사상으로 마비시키는 右翼社会民主主義의 思想的 기반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사상사업이 비교적 덜 복잡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입니다.”²²⁾ 고 했다.

세째 : 赤軍의 統制와 後援이 強力하게 掌握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軍政을 통한 全般的統制는 물론 붉은군대의 주둔으로 인하여 반대세력이나 反共集團의 분쇄·협박 등에 의해 意志와 信念의 주장은 無價値한 것이 되고, 政治·行政·경제 등 전반을 장악하므로 對抗集團이나 個人이 存在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要求나 主張에 따라야 하는 立場이었다.

특히, 国内治安·警察이나 人民軍의 장악으로 비밀활동의 전개를 감행하므로 공포의 분위기를 造成한 것이다.

네째 : 소련의 赤化戰略의 實現

즉, 2次大戰 終末과 더불어 동구의 占領과 極東地域에서의 北韓確保는 전략상의 중요성은 물론, 한반도 전역에 대한 可能性에 비추어 北半部만이라도 조속한 時内に 革命의 基地로서 스탈린의 領域圈을 팽창하려는 데, 그 目的이 있었다.

그 後 불과 1年半 後에 南韓까지 占領하겠다고 6.25戰爭을 야기시켰으나, 目的은 達成되지 않았다. 分明히 소련의 指令과 介入임에도 불구하고 立証할 만한 文書的인 기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政治的 支援이나 軍事的 원조는 북한이 軍政統治下에서 20萬名의 人民軍이라는

이름下에 軍事訓練과 物質的 원조를 아끼지 않았음은 明白한 事實이다.²³⁾

그 外에도, 內在的要因으로서 地理的으로 國境이 인접해 있고, 북한지역 자체가 협소한 點도 重要하다. 그리고 權力의 支配方法으로 소련제 2세의 적절한 活用이 첨가되었다. 이로 인하여 事前에 計劃된 指導者로 金日成을 強力하게 英雄化시킬 수 있는 것 등은 바로, 當時 北韓住民들의 政治文化의 結여와 後進性을 脫피하지 못한 要因도 크게 作用하고 있다.

V. 結 論

以上에서 볼 때, 북한은 極東의 典型的인 農業後進社會에다 Soviet의 政治組織과 統治能力을 確立한 事例이다. 특히, 북한은 소련과 地理的으로 國境을 접하고 면적이 좁았기 때문에 쉽게 占領될 수 있었고, 架空人物로 金日成을 만들어 完全히 英雄化시키고 指導者로서 굳림케 한 것 등은 이미 計劃된 소비에트를 그대로 北韓에다 適用했다는 것이 오히려 妥當한 表現이다. 그것은 短期間 동안 순조롭게 進척될 수 있었다는 事實에서도 해석할 수 있으며, 北韓은 獨立國家를 表面에 내세우면서 모든 權力體制과 裝置를 모스크바에 연관시켜 소련의 意思에 服從하고, 소비에트帝國의 하나의 연방共和國으로 탄생시켜 놓은 것이다.

當時, 소련군의 철수 뒤에도 殘存한 소련 사절단은 북한에 대한 소련의 통제本部로서 北韓의 모든 資源과 産業基地의 確保와 全

權力の 掌握은 바로, 全人民과 國家를 그들의 預속하에 두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共產政權의 수립은 소련이 이룩했다지만, 中共 역시 늦게 시작되었으나 소련의 사주에 의한 6.25의 위기를 살려 준 血盟의 관계로서 200萬名의 사상자를 내면서까지 中共은 그들의 恩人이기도 하다.

이러한 양국의 지원과 협조하에 놓인 北韓의 定着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同質의

막스·레닌主義의 信奉과 이데올로기를 갖고 形成된 共產國家가 그 理念을 달리하므로 中·蘇간의 분쟁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北韓 傀儡政權이 나아가야 할 方向에는 많은 問題點이 남아 있다. 양국의 갈등과 위기 속에 存立하고 있는 北韓이 民族分斷의 異質化가 심화되기 전 結合하여, 自由民主主義를 實現하는 길만이 北韓을 解放시키는 길이다.

註 解 釋

- 1) 康仁德(編), 北韓政治論,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6. 9. 16. 17個國의 共產主義體制는 소련, 中共, 폴란드, 헝가리, 체코, 東獨,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 알바니아, 앙골라, 외몽고, 월맹, 월남, 캄보디아, 쿠바, 북한임.
- 2) Thomas T. Hammond(ed) The Anatomy of Communist Takeovers (Yale University Press. : 1975)의 訳本, 共產主義의 政權掌握類型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7, P13~15.
- 3) 上揭書, 徐大肅, “北韓의 計劃的 소비에트化,” P441.
- 4) 梁好民, “北韓의 소비에트化” 高大亞細亞研究所 共產圈研究室(編), 北韓共產化過程 研究, 서울, 高大出版部, 1973, P I.
- 5) Joseph M. Bochenski, Gerhart Niemeyer, Handbook on Communism,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P161.
- 6) 公報部(編), 現代史와 共產主義 第1集, “韓國에 있어서 共產主義”, 서울, 公報部, 1968, PP44~47.
- 7) 金昌順, 北韓15年史, 서울, 知文閣, 1961, PP44~45.
- 8) 上揭書, P47.
- 9) 韓載德, 共產主義理論과 現實批判 全書 5권, “韓國의 공산주의와 北韓의 역사,” 서울, 内外文化社, 1965, PP 162~163.
- 10) 上揭書, P 162.
- 11) 上揭書, PP 165~167.
- 12) 公報部, 前揭書, PP 53~58.

梁好民, 北韓이데올로기와 政治 1卷, PP61~62.

- 13) 당시 政党組織에는 北朝鮮民主黨, 天道教育友黨, 高麗民主黨, 社會黨, 社會民主黨, 民友會, 朝鮮青年黨, 우리青年會, 高麗青年會 등이 있었다.
- 14) 金昌順: 3 단계 ①합작단계, ②가변적 합작단계 ③공산당 독점단계
韓裁德: 4 단계 ①建導解體와 人委組織 ②人委分裂 ③소련의 약탈 ④북한의 분할과 예측.
徐大肅: 3 단계 ①순수연립의 형성 ②공산주의자 우위와 사이비연립 수립 ③공산주의의 政權創設
梁好民: 4 단계 ①지도자 수입과 黨育成 ②연립정부 ③비공산지도자 제거 ④통일전선 형성
金甲喆: 3 단계 ①人委組織 ②연립의 탄압 ③共産黨 一黨의 權力 完全장악.
- 15) 徐大肅, 前揭書, P441.
- 16) Robert A. Scalapino &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The Movement),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60.
- 17) Ibid, P366.
- 18) 五道會議 명칭에 대해서, 南韓에서 출판된 북한관계 저서에서는 「五道大會」「五道連絡會議」「5도임시인민위원회」 등으로 紹介되고, 북괴조선중앙연감(1949年版)에서는 「五道會議」「五道大會」로 기록되었고, 金甲喆 교수는 「北朝鮮5道行政委員會」로 記述하였다.
- 19) 「朝鮮民主黨」창건에 대한 顛末에 관한 資料는 평양誌(서울, 1964.), 및 梁好民의 北韓이데올로기와 政治(1권), PP94~95.
- 20) 金昌順, 前揭書
- 21) 上揭書, PP98~103.
- 22) 金日成選集 4, 평양, 1964., P138.
- 23) 韓國反共聯盟(編), 共産主義批判全書 2권, 서울, 반공연맹, 1965, PP169~175.

北韓의 對南戰略과 韓國安保

중령 남상열
(제3526부대)

1. 共產主義 戰略 戰術

西方 諸國에 있어서 軍事戰略이란 일반적으로 軍事力 運用의 「術」 또는 科學을 意味한다. 즉 戰爭을 계획하고 그 實施를 통제하며 軍事力 運用의 目標·方向·時期 및 場所 등의 關係를 規定함으로써 國家目標을 達成케 하는 方策을 말한다.

그러나 소련에서는 「軍事戰略은 軍事科學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戰爭과 武力 전투준비와 그 實行에 관한 諸問題를 연구 조사하는 것이다. 軍事戰略은 作戰術과의 關係에 있어서 指導的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戰爭의 政治目的에 일치하도록 戰爭實施의 兵力과 物資를 規定하고 武力 전투의 目的과 이를 達成하는 方策 및 戰爭發展의 기초적 方向을 결정한다. 아울러 全 軍種의 戰略行動을 統合한다」고 規定하고 있다¹⁾.

이를 相互 比較해 볼 때 西方에서는 戰略과 戰術로 구분하고 있으나 소련에서는 戰略作戰術 및 戰術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소련은 1917년의 公산혁명 이후 時代에 따라서 軍事戰略의 개념을 달리하고 있는데 초기의 消耗戰略·擊滅戰略·스탈린戰略 및 제2차 세계대전 후의 核戰略이 그것이다.

共產主義들의 資本主義國家 타도를 위한 戰略 戰術은 대중을 혁명에 動員하고 誘導하는 策略的 運動技法으로서 마르크스의 唯物史觀·階級鬭爭論·暴力革命論 및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에 理論的 근거를 두고 있다.

레닌은 마르크스의 이론을 기초하여 社會主義革命을 위한 「戰爭不可避論」과 「恒久的革命論」을 주장하면서 組織·規律·黨에 의한 大衆의 指導 선동과 社會주의적 경쟁 등을 강조하였다.

레닌의 전략과 전술의 핵심은 「目的을 위해서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말라는 것」이다²⁾.

레닌은 전략적 次元에 대하여 언급하는 경우까지도 모두 戰術이라는 用語로 표현하였으나 스탈린은 그 중에서 持續的 本質부분을 戰略, 그리고 可變的 現象부분을 戰術로 구분하여 定式化하였다.

또한 스탈린은 레닌主義 戰略과 戰術에 대하여 「프롤레타리아의 革命的 階級투쟁을 지도하는 科學」이라고 규정하고 나서 프롤레타리아트의 主攻방향을 결정하고 혁명적 역량의 적절한 配置計劃을 작성하여 當該 혁명단계 全 期間에 걸쳐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鬪爭이라고 하였고 戰術은 「運動의 滿潮와 干潮, 革命의 昂揚과 沈滯 등 비교적 단기간에 걸친 프롤레타리아트의 行動路線을 결정하고 투쟁형태·조직형태 및 標語를 교체하면서 配合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路線을 실천해 나가는 투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³⁾.

中共의 모택동은 「政治는 피를 흘리지 않는 戰爭이고 戰爭은 피를 흘리는 政治이다」라는 式의 政治와 戰爭의 相關關係를 말하면서 「人民戰爭=民族解放戰爭」이라는 等式을 成立시켜 中國革命戰爭을 遂行하였다.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으로 무장된 노

동자·농민계급을 人民의 개념속에 집약시켜 「戰爭의 偉力의 가장 깊은 根源은 民衆속에 있다」는 것을 洞察하고 계급 투쟁·민족해방·사회주의 혁명 및 人民政 수립을 위한 武力抗爭의 구체적인 수단방법으로서 人民戰爭 方式을 취하고 이에 沿한 戰略戰術을 실천해 온 것이다⁴⁾.

2. 共產主義 戰略 計劃

戰略은 혁명단계 중 일관성있게 적용되는 基本計劃이므로 잠정적인 정세 또는 여건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戰略은 그래서 다만 역사적인 전환이나 급전되는 시기에 변경되는 것이며 일정기간 전개되는 階級鬪爭의 단계에서 戰爭에 승리할 때까지 不變이고 戰略計劃은 노동자 계급運動의 基本方向에서 모든 目標를 달성하기 위해 敵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 세워진다. 스탈린은 러시아혁명을 본보기로 해서 戰略計劃을 설명하고 있는데 각국의 政治, 經濟的 발전단계에 따른 革命戰略計劃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나타난 전략계획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武力占領下에 있던 東歐諸國에서 그대로 적용되었고 中共은 물론 北韓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오고 있다.

특히 그들은 「暴力革命」을 전략계획의 根幹으로 삼고 있으며 소위 暴力革命의 輸出을 위해 思想的 武装의 기본으로 삼고 있음을 注視해야 한다.

한편 행동에서 變化無常한 것은 戰術부분

〈표 1〉 혁명과 전략의 類型

| 혁명 유형 | 1 단계 | 2 단계 | 3 단계 |
|--------|-----------|---------|-------|
| 선진국 혁명 | 사회주의 혁명 | 세계 혁명 | ————— |
| 중진국 혁명 | 부르조아 민주혁명 | 사회주의 혁명 | 세계 혁명 |
| 후진국 혁명 | 인민민주주의 혁명 | 사회주의 혁명 | 세계 혁명 |

이며 하나의 혁명전략 단계 중에도 情勢나 여건변화에 상응하여 공격, 후퇴, 방어 및 우회공격 등으로 변모하는 것이 戰術의 단계 전환원리이다. 그러면서도 전술은 반드시 전략의 성공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戰略에 대한 종속성이 있다⁵⁾. 따라서 전술계획은 전략계획에 종속된다고 하겠다.

3. 北韓의 統一理論

北韓은 統一의 원칙에 있어서 自主·平和·民族的 大團結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으며 특히 「7·4 남북공동성명」에서도 「思想和 理念과 制度의 차이를 초월한다」는데 同意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統一의 방안으로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統一問題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南北協商 및 南北交流 등의 提議를 계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主張하고 있는 平和統一이란 国土와 民族이 結合이나 民族成員의 自由意思에 의한 社会制度의 선택으로 解決하려는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세계 공산화의 必然性에 입각한 共產化革命을 이룩하는데 있는 것이다.

北韓의 노동당은 그들의 투쟁노선을 뒷받침하는 黨規約 前文에서 「조선 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는 것이며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⁶⁾」라고 規定 짓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北韓의 궁극적인 統一의 目標가 全 韓半島의 赤化統一에 있으며 그 性格을 共產革命鬭爭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分明히 하고 있다. 北韓은 祖国統一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방도 즉 「평화적 방도」와 「비평화적 방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모두가 결코 폭력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적 방도」란 남한 자체내에서 人民民主主義 革命이 수행된 다음 親北韓聯共政權이 수립되어 남북한 간의 合作을 통해 統一을 실현한다는 方法이다. 또한 「비평화적 방도」란 北韓의 武力을 직접 동원함으로써 본격적인 전쟁을 통하여 南韓을 정복하는 方法인 것이다.

〈표 2〉 北韓의 祖国統一觀

| | | |
|-------|----------------------------|--------------------|
| 최종 목표 | 한반도 전역에 걸쳐 “공산주의 사회 건설” | 남북 합작 |
| 당면 목표 | 공화국 북반부 “사회주의 승리 보장” | 주체사상 무장 |
| | 공화국 남반부 “공산화 혁명 수행” | 민족 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
| 통일 방도 | 평화적 방도 | 남한 내부 혁명 |
| | 비평화적 방도 | 남침 전쟁 도발 |

※ 연구자 개인의 견해를 도표화하였음.

이러한 두 가지의 方途 중에서 첫번째의 경우는 유고, 알바니아, 중공, 월맹 등에서 볼 수 있는 경우이고 두번째의 경우는 東歐諸國과 北韓,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소련이 行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비평화적 방도」 보다는 「평화적 방도」에 주력을 하고 있는 바 즉 戰爭 보다는 南韓內에서의 自主的 革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 의한 統一方案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두 가지 方途를 혼합하는 可能性도 모색하고 있는데 월남전에서 월맹이 「베트콩」을 지원한 것과 같이 「남조선에 있어서 혁명역량이 계속 장성하여 결정적인 대사변이 올 때 북조선의 혁명역량은 이를 지원할 것」⁷⁾ 이라고 호언하고 있다.

北韓이 「평화적 방도」인 南北 内部 혁명에 더 치중하게 된 이유는 現在狀況에서 南侵戰爭이 불가능하다는데 기인하고 있다.

첫째, 韓半島 주변의 4大強國이 自國의 이익에 입각하여 戰爭보다는 平和를 바라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相互 세력균형을 통한 긴장완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強力한 美軍이 南韓에 주둔하고 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방위 공약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南韓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國力이 신장되어 北韓의 단독남침으로는 도저히 승리의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남한 국민들이 스스로 反體制運動과 더불어 反政府 투쟁을 활발히 전개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그들의 「祖国統一觀」을 간추려 보면 〈표 2〉와 같다.

4. 對南革命 戰略

가. 戰略의 基調

北韓의 對南革命戰略은 이른바 祖国統一

政策의 목표 달성을 위한 手段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時代에 따라 戰術的인 變化는 다양한 양상을 보여왔으나 戰略은 불변하고 있다.

그들은 對南革命을 수행함에 있어서 武力과 對話는 야누스의 양면성을 띠고 있지만 재론할 필요가 없이 基本戰略은 「武力에 의한 統一」이며 對話는 오직 전술적 次元에서 선전을 目的으로 하는 偽裝平和攻勢인 것이다.

北韓의 南韓혁명이론의 發展 經緯를 살펴 보면 크게 여섯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1945년에 提示한 「民主基地路線」으로서 北韓地域을 혁명기지화하여 敵에 대한 攻擊基地 및 후방 보조기지로 삼겠다는 것이다

둘째, 1946년에 提示한 「民主統一戰線」으로서 共產黨의 주도 아래 革命의 이해를 같이하는 政黨, 社會團體, 有名人士, 勞動者, 農民, 學生 등의 諸力量을 총결합하여 반정부 반미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北韓의 南侵으로 同族相殘의 비극을 초래했던 6·25戰爭은 南韓内部의 불순세력에 의한 武力暴動에 고무되어 이와 같은 親北韓의 容共勢力과 「民主統一戰線」을 형성하여 북한을 革命基地로서 즉, 攻擊基地로 使用하였던 것이다.

셋째, 1955년에 提示한 「反帝 反封建民主主義 革命路線」으로서 주한미군의 철수 등 外勢의 개입을 배격하고 共產黨의 合法的 活動力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네째, 1962년에 提示한 「四大軍事路線」

으로서 金日成의 主体思想에 입각한 「국방의 자위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 국토의 요새화, 전 인민의 무장화, 군의 간부화 및 장비의 현대화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⁸⁾.

다섯째, 1964년에 提示한 「三大革命 力量強化路線」⁹⁾은 「先革命 後統一戰略」으로서 共和國 北半部の 社會主義 革命力量強化·南朝鮮의 革命力量強化·國際革命力量強化를 말하고 있다.

여섯째, 1970년에 提示한 「民族解放人民民主主義 革命路線」으로서 이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노선」의 발전된 理論이다¹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對南革命戰略은 赤化統一이라는 目標達成을 통하여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나 武力에 의한 革命戰略은 不變하고 있다.

나. 戰略의 분석

北韓의 對南革命戰略은 「民族解放人民民主主義 革命戰略」으로서 이른바 평화적 「方途」와 「非平和的 方途」로서 수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평화적 方途인 南韓内部 革命에 더 치중하고 있음을 앞서 고찰한 바 있다.

北韓의 對南革命戰略을 일반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나 意味없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의 인식을 위하여 「6하원칙」의 分析 “틀”을 통하여 규명해 보고자 한다.

(1) Who(누가)

北韓은 南朝鮮革命을 南韓 内部 문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서 이를 도와주는 立場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혁명의 주력군은 소위 統一革命黨이라는 主力軍과 그 주위에 결속된 勞動者 農民의 同盟軍과 이를 지지하는 학생, 종교인, 반정부 지식인 등을 말하는 것이다.

(2) When(언제)

북한은 혁명의 時期선택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혁명의 決定的 時期를 앞당겨 조국통일의 事變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혁명의 여건을 의도적으로 성숙시키려고 이른 바 「三大革命強化」를 提示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全面戰爭에 의한 革命을 기도하지 않는 한 「三大力量」이 同時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革命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고 보고 있다. 「三大力量」中에서 북한의 革命力量은 이미 目標에 달성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소련을 중심으로 한 共產諸國과 비동맹세력으로부터의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국제혁명 역량」도 달성된 것으로 오관할 수 있겠으나 「남한에서의 혁명역량」은 크게 미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政治·軍事·社會 및 經

濟的 혼란과 세력의 약화를 초래할 목적으로 國論分裂과 테러행위를 선택되면 총 공격을 개시할 것인 바 이는 全面南侵과 武裝蜂起를 意味하고 있다.

(3) Where(어디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물어 보는 것 같지만 북한이 韓半島의 狀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서 그 해답이 주어진다. 즉, 金日成이가 항일투쟁을 하여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北韓을 해방시켰으나 남한은 아직 美國에 의하여 강점되어 있으므로 남한地域에서의 혁명을 의미하고 있다.

(4) What(무엇을)

북한은 남한에 대하여 혁명수행의 불가피성을 두 가지 모순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는 민족적 모순관계이다.

- 남한은 美國과 日本에 政治的·經濟적으로 예속되어 있다.

- 남한의 지배계급인 地主, 매관자본가 및 반동관료계급은 제국주의 앞잡이로 대중을 착취한다.

- 남한의 정부는 민족해방을 염원하는 대중을 무자비하게 탄압한다는 것이다.

〈표 3〉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革命 性格

| 성격 | 목적 | 목표 |
|-----------|----------------|-----------|
| 민족해방 | 한국과 미국을 분리 | 주한 미군 철수 |
| 인민민주주의 혁명 | 봉건세력 및 반공정부 타도 | 인민정권 수립 |
| 민족적 혁명 | 남북 합작 | 공산화 통일 |
| 국제적 혁명 | 국제 공산주의 세력과 연대 | 공산주의 사회건설 |

둘째는 계급적 모순관계이다.

• 남한사회는 지배계급인 地主·매관자본가·반동관료 등과 피지배계급인 勞働者·농민·지식인·학생·소상인·민족자본가 등이 있다.

• 남한사회는 계급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서 人民革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矛盾을 해결하기 위해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 革命」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며 그 내용을 分析해 보면 〈표 3〉과 같다.

앞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이 對南革命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5) How (어떻게)

북한이 革命遂行을 위하여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三大革命力量 強化」와 「決定的 時期造成」이다.

첫째, 북한의 혁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한주민을 金日成 主体思想으로 튼튼히 묶어 세우고 경제적 발전을 통하여 군사력 증강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四大軍事路線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남한의 혁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하세력인 이른바 「통일혁명당」을 중심으로 反政府 세력을 규합하여 反政府활동을 강화하고 혁명의 決定的 時期를 인위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셋째, 국제적 혁명역량 강화로서 對 공산권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증대하고 비동맹권을 中心으로 한 外交的 우위를 확보하며 서방권에 대해서는 人民外交를 통한 반미투

쟁과 주한미군 철수 등의 연대투쟁을 벌려 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三大革命力量이 達成되면 즉시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을 하겠다는 것이다.

(6) Why (왜)

歷史的 使命感 때문인가 아니면 민족적 애국심 때문인가?

첫째, 革命의 필연성에 있다. 즉, 마르크스주의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사회의 몰락과 공산주의 사회의 도래에 대한 필연성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 革命의 당위성에 있다. 공산주의적 戰爭觀과 暴力革命理論에 입각하여 暴力과 鬭爭의 정당성에서 구하고 있다.

셋째, 革命의 不可避性에 있다. 이는 北韓의 왜곡된 정세관에 기인하고 있지만 남한에는 민족적 모순과 계급적 모순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혁명이 불가피하며 혁명은 그들에게 부여된 숙명적 과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5. 韓國安保 對備策

가. 韓國의 強点

한국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當面하여 어떠한 強点을 갖고 있나 살펴 보기로 하자.

첫째, 과거 한국전쟁을 통하여 몸소 체험한데서 나오는 強力한 反共意識이다. 또 다른 反共意識의 重要한 源泉은 宗教이다. 특히 基督教은 日帝時代부터 강력한 반공 세력으로 역할을 하여 왔으며 儒教的 가치

관과 전통이 反共에 기여한 힘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한국정부는 강력한 行政力을 갖고 있으며 그 통치권이 전국 방방곡곡에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對南工作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부의 권력이 미치고 있다.

세째, 急速한 經濟발전을 통하여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資本主義 經濟가 共產主義보다 더 能率的이라는 事實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었다. 남북대화가 열린 이후에 북한대표단들은 남한의 경제성장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남한을 미국과 일본의 經濟的으로 예속된 植民地로 規定해 왔던 것이 實際와 다른 오관이었던 것은 認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네째, 북한이 남한혁명의 主体勢力으로 간주하고 있는 勞働者·農民들의 政治에 대한 참여意識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역사를 통한 政治文化의 소산으로서 그들은 社會運動에 대해서도 대부분 소극적이며 政府에 대한 신뢰와 복종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에 있어서 反共意識·行政力·經濟發展 및 政治文化는 북한의 對南革命에 對應하는 強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나. 韓國의 弱點

北韓의 對南革命戰略에 대한 남한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첫째, 북한의 共產主義와 싸워 이길 수 있는 自由民主主義 理念의 確立이 시급하

다. 즉, 「韓國的 民主主義」를 어떻게 확립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한국이 對共鬪爭을 하는데 있어서 「政治的 自由」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國內的 合意를 보지 못하는데서 오는 政治的 불안정은 國論分裂과 더불어 安保에 큰 취약점이 되고 있다.

둘째, 社會的 도덕성의 타락은 국민이 정부에 대한 不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즉 권력형 부조리, 금전만능주의, 낭비 및 불신풍조 등의 병폐는 官民의 이간을 획책하는 북한에게 이용될 충분한 소지가 있다.

세째, 所得分配의 不平等에서 오는 빈부의 격차는 국민총화를 저해하고 있다. 經濟成長이 반드시 社會安定을 保障하지는 않는다. 全體的으로 못살아도 빈부의 격차가 없으며 社會는 安定될 수 있지만 生活形便이 向上되었다 할지라도 빈부의 격차가 심하면 오히려 갈등과 對立이 격화되어 社會的 不安定이 造成된다.

네째, 지식인과 학생층의 現實的 갈등에서 오는 분출구가 政府에 의하여 마련되지 못할 때 反政府的 感情이 쌓이게 되고 社會的 不安을 造成할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社會的 진출이 有利하고 政治的 先導的 역할을 해왔으나 이러한 가치관이 무너지고 그들의 社會적 진출이 失敗할 경우 現體制를 否認하는 운동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적 狀況에서의 弱點인 政治的 自由에 대한 國論分裂, 社會的 도덕

성의 타락, 소득분배의 격차에서 오는 불만 및 지식인과 학생들의 現實的 갈등은 북한의 對南革命遂行에 동조하는 쪽으로 作用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 對備策

北韓의 對南革命戰略은 소위 「民族解放人民民主主義 革命戰略」으로서 民族을 앞세워 赤化統一을 對話를 내세워 위장평화를 은폐하고 궁극적으로는 武力에 의한 「共產化 統一」을 達成하고자 광분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기도를 효과적으로 분쇄하고 한반도에서의 平和유지와 나아가서는 민족의 盟원인 조국의 平和統一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諸問題를 早速히 補完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범국민적 합의 아래 「한국적 민주주의」의 具體的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國論分裂의 소지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둘째, 社會的 부조리를 척결하고 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한 소득분배를 改善해 나감으로써 국민총화단결을 이룩해야 한다.

셋째, 지식인과 학생층의 現實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政治·社會의 구조적 가치관을 재정립시키으로써 社會進出의 身分이 保障되어야 한다.

네째, 북한의 對南革命의 本質과 陰謀를 전 국민이 다 알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對國民理念 教育이 強化되어야 한다.

다섯째, 現在 추진 중에 있는 戰力增強을 꾸준히 지속하여 무모한 도발은 오히려 패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強力한 意志를 보여주어야 한다.

여섯째, 우리의 「국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국제적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우방과의 협력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일곱째, 南北對話를 끈질기게 전개하여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역사는 후세의 입을 빌리어 오늘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主人이 되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열거한 對備策을 조속히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北韓의 對南革命野慾을 분쇄하고 民族이 盟원하는 平和的 統一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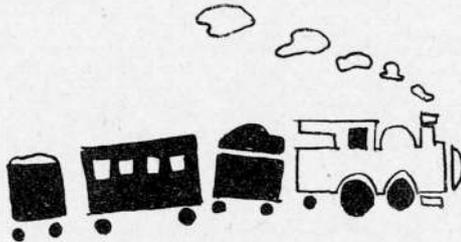
註 解 釈

- (1) 金昌順, 北韓軍事論, 北韓研究所, 1978, p. 84.
- (2) 徐極性, 北韓의 人民革命戰略의 對南適用 可能性 진단, 국토통일원, 1976, p. 9.
- (3) 國土統一院, 民主統一論, 統一研修所, 1985, pp. 81~82.
- (4) 金洪喆, 「戰爭과 平和의 研究」, 博英社, 1977, pp. 154~160.

- (5) 民主統一論, pp. 88~89.
- (6) 民主統一論, p. 99.
- (7) 金炯旭, 공산주의의 활동과 실재, 광명출판사, 1972. p. 823.
- (8) 강인덕, 북괴군사정책 분석, 서울, 공산주의 문제 연구소, 1968, pp. 58~72.
- (9) 북괴의 대남적화전전략 전모, 서울, 자유평론사, 1981, p. 62.
- (10) 북한의 인민혁명전략의 대남적용 가능성 진단, pp. 23~29.

참 고 문 헌

- 1. 金昌順, 北韓軍事論, 北韓研究所, 1978.
- 2. 金洪喆, 戰爭과 平和의 研究, 博英社, 1977.
- 3. 강인덕, 북괴군사정책 분석, 공산주의 문제 연구소, 1968.
- 4. 북한의 인민혁명전략의 대남적용 가능성 진단, 국토통일원, 1976.
- 5. 民主統一論, 국토통일원, 1985.
- 6. 북괴의 대남적화전전략 전모, 자유평론사, 1981.
- 7. 金炯旭, 공산주의의 활동과 실재, 광명출판사, 1972.
- 8. 金仁洙, 김일성 후계문제와 대남전략, 「国防研究」, 국방대학원, 1985. 6 (28권 1호)



北韓의 權力構造 改編과 金正日 후계체제의 位相

증 위 홍 성 범

〈공 군 본 부〉

〈차 례〉

I. 머리말

II. 北韓 權力構造 改編의 推移

1. 水平移動의 黨權力 配分
2. 經濟테크노크라트 부상의 政務院 改編
3. 입법 및 사법기관 現況

III. 金正日 後繼체제의 構築過程

1. 後繼체제 構築의 背景

2. 權力世襲의 合理化 論理

3. 後繼체제 構築의 제도적 장치

IV. 金正日 後繼체제의 展望

1. 金日成 唯一체제 40년의 虛像
2. 불안과 반목 속의 權力力学關係
3. 金正日 時代의 음영

V. 맺음 말

I. 머리말

대개의 공산국가들이 '장막과 밀실' 정치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그들 내부의 권력암투나 개편과정이 서방세계에 신속히 알려지는 일은 드문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대회 등 공식석상의 좌석서열이라든가, 그들의 언론매체에 나타난 현황들을 분석, 유추하는 수 밖에 없다.

지난 '86년 12월 27일 북한의 당중앙위원회 제 6기 12차 전원회의, 12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 8기 1차회의는 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그 이유는 '86년 11월 비록 金日成의 사망설이 세기적인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들의 권력체제 상황을 볼 때, 사망이나 피살설이 나올 정도가 되면 북한권력 내부에 무엇인가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 때문이었다.

특히 그동안 보여 왔던 북한 내부의 심각한 권력암투의 조짐이 드러났던 상황에서 볼 때, 국가주석직이 세습후계자인 金正日에게 이양되느냐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으나 김일성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그렇지만 일련의 당대회를 통해 党政治局과 政務院의 개편, 立法 및 司法의 책임자 선출 등 전반적인 권력구조를 개편하여 金正日 後繼体制 강화를 위한 포석을 여전히 시도하였다.

또 하나, 심각한 경제적 파탄은 결국 金日成父子体制을 와해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점을 감안할 때, 가장 역점을 두고 열을 올렸던 제12차 경제개발계획의 실패는 그들에게 매우 심각성을 대두시켰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심각성은 제3차계획('87~'93년)을 의제로 상정하는 것조차 보류했으며, 經濟官僚가 대거 중용되는 내각 개편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II. 北韓權力構造改編의 推移

1. 水平移動의 黨權力 配分

'8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12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북한권력구조개편 중 가

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의 모든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권력의 핵심인 政治局委員에 지금까지 후보위원으로 있던 李根模와 洪成南을 정위원으로 승격시킨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 노동당의 핵심기구에는〈表1〉소수인원이 점직하는 형태가 북한권력구조의 한 특징이 되어 있다.

어쨌든 李根模와 洪成南의 기용은 李根模가 정무원총리로 기용되고 洪成南이 제1부총리로 등용되는데 따른 핵심적인 정책참여를 위한 승격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당정책을 집행하고 지도감독하는 비서국을 개편하여 지금까지 정무원총리로 있던 姜成山과 제1부총리로 있던 延亨默, 교육위원장으로 있던 崔泰福과 田炳浩를 당비서로 등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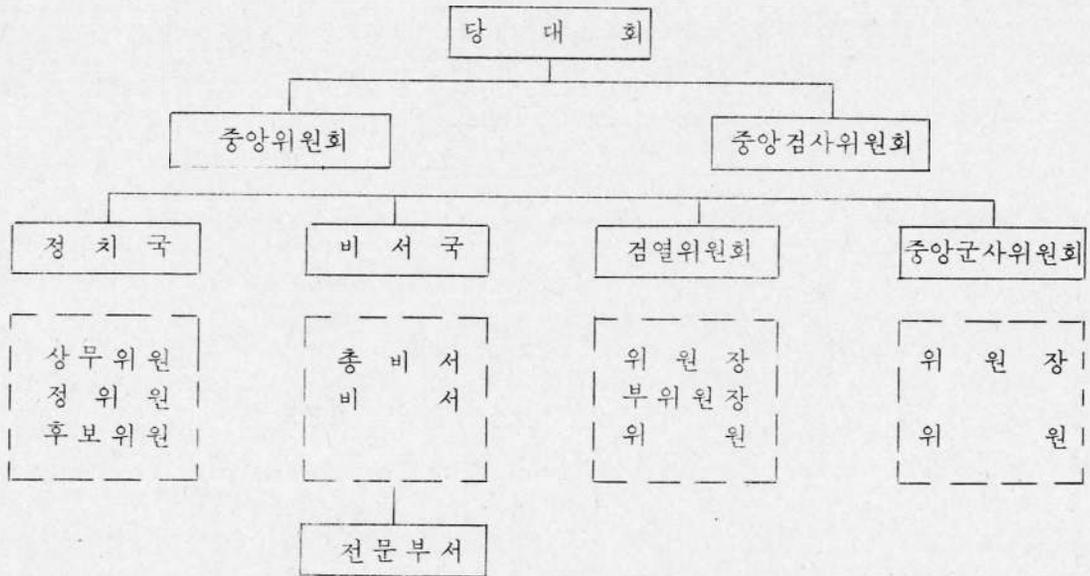
정무원으로 이동되는 李根模와 金煥, 朴南基 등을 비서에서 해임시켰다. 이 밖에 당조직 개편에서는 崔泰福·한성용·지창익 등 13명을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서 정위원으로 승격시켰고 김경봉·최학근 등 17명을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기용하였다.

아울러 당의 재정을 총감사하는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으로 김응철과 김천필을 새로 기용하는 조치를 병행하였다.

특히 李根模, 洪成南의 정치국원 승격과 당비서 및 부총리로는 황장엽, 허정숙, 박남기, 김윤혁, 김창주가 두드러지게 부상되고 있으며, 반면 전문섭(국가검열위원장), 백학림(사회안전부장), 최영림(전부총리)이 당정치국원에서, 김중린(전당비서), 김두

〈表 1〉

북한 노동당 기구도



남(당군사부장), 김강환(당부장), 정경희(당대남연락부장)가 당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탈락되고 당비서 채희정도 비서직에서 해임되었다.

과거 몇 번에 걸친 당서열의 변동에서 나타난 특징은(表 2 참조) 崔賢, 吳百龍, 金一 등의 사망으로 인한 당 서열이 일반적으로 상향조정되었으나, 경제전문가의 부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간 실각설까지 나돌던 合營法입안자인 尹基福의 재부상은 그 후속조치에 대한 북한의 정책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白鶴林, 金江煥, 金斗南, 鄭敬姬 등 일부 군출신 및 대남사업담당자의 당정치국원, 후보위원 탈락은 당정치국 내의 軍출신 발언권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물론, 그동안 사망설, 쿠데타설 등 온갖 소문의 대상이 되어온 인민무력부장 吳振宇

의 당직(정치국 상무위원)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金日成-金正日-吳振宇를 정점으로 하는 북한의 권력구조가 대체적으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吳의 유임은 집권층 내부에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될 수 있다.

또 吳克列(총참모장)도 金正日과의 밀착으로 부상하는 이중적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치국원 14명중 吳振宇, 吳克列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소련 및 동구유학과 등 전문관료출신이 장악하고 있고, 이들이 '80년대 이후 북한대외정책,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金日成의 강력한 후원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북한당조직구성을 도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表 3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6년 1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 6기 12차 전원

〈表 2〉

党 序 列 变 动 内 容

| 区 分 | 성 명 | 最高人民會議 제 8 기대의원 후보자발표시 (86. 10. 28) | 最高人民會議 제 7 기대의원 후보자발표시 (82. 2. 19) | 第 6 次 党 大 会 (80. 10. 10) | 備 考 (6 次 党 大 会 기 준) |
|--------------------------|-------|--|---|--------------------------------|---------------------------|
| 政 治 局 員 14 名 | 金 日 成 | 1 | 1 | 1 | |
| | 金正日 | 2 | 4 | 4 | +2 |
| | 吳振宇 | 3 | 5 | 3 | |
| | 姜成山 | 4 | 17 | 18 | + 14 |
| | 朴成哲 | 5 | 7 | 6 | +1 |
| | 林春秋 | 6 | 9 | 8 | +2 |
| | 李鍾玉 | 7 | 6 | 5 | -2 |
| | 徐哲 | 8 | 10 | 9 | +1 |
| | 延亨默 | 9 | 13 | 15 | +6 |
| | 金永南 | 10 | 12 | 12 | +2 |
| | 許鏞 | 11 | 20 | 20 | +9 |
| | 金鏞 | 12 | 14 | 14 | +2 |
| | 吳克列 | 13 | 18 | 16 | +3 |
| | 徐允錫 | 14 | 32 | 30 | + 16 |
| 政 治 局 候 補 委 員 12 名 | 李根模 | 15 | 24 | 31 | + 16 |
| | 桂應泰 | 16 | 28 | 17 | +1 |
| | 全炳浩 | 17 | | 109 | + 92 |
| | 洪成南 | 18 | | 135 | +117 |
| | 洪時學 | 19 | 39 | 35 | + 16 |
| | 金福信 | 20 | 43 | 非中央委員 | |
| | 崔光 | 21 | 25 | 22 | +1 |
| | 鄭浚基 | 22 | 26 | 26 | +4 |
| | 玄武光 | 23 | 21 | 32 | +9 |
| | 姜希源 | 24 | 33 | 75 | + 51 |
| | 趙世雄 | 25 | 23 | 23 | -2 |
| | 李善實 | 26 | 35 | 34 | +8 |
| 秘 書 | 黃長燁 | 27 | 36 | 37 | + 10 |
| | 許貞淑 | 28 | 37 | 54 | + 26 |
| | 朴南基 | 29 | | 非中央委員 | |
| | 徐寬熙 | 30 | 38 | 38 | +8 |
| 副 總 理 | 金潤赫 | 31 | | 59 | + 28 |
| | 金昌柱 | 32 | 44 | 非中央委員 | |

〈表 3〉

북한의 당 조직 구성

| 부 서 명 | 정원(명) | 구 성 원 | 신임 등용자 |
|------------|-------|--|--|
| 총 비 서 | 1 | 金日成 | |
| 정치국 상무위원 | 3 | 金日成·金正日·吳振宇 | |
| 정치국 정위원 | 16 | 金日成·金正日·吳振宇 姜成山·朴成哲·林春秋 李鍾玉·徐 哲·金永南 許 鏞·吳克列 등 | 李根模·洪成南 |
| 정치국 후보위원 | 10 | 田炳浩 등 | |
| 비 서 | 10 | 金正日 | 姜成山·延亨默 崔泰福·田炳浩 |
| 검열위원회 | 7 | 徐 哲·강현수·주창복 등 | |
| 중앙군사위원회 | 15 | 金日成·金正日·吳振宇 吳克列·白鶴林 등 | |
| 중앙위원회 정위원 | 169 | 金日成·金正日·吳振宇 등 | 崔泰福·한성용 지창익·계형순 김충일·김철명 김봉률·김상호 김영춘·이필성 최복연·최룡해 백인준 등 (131명) |
|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 122 | | 17명 |
| 중앙검사 위원회 | 15 | 이낙빈 | 김응철·김천필 |

회의에 나타난 권력개편은 정치위원 2명, 당비서 4명을 비롯, 당중앙위원 13명, 그리고 당중앙위 후보위원 17명을 각각 승진 보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지난 '81년부터 정무원을 이

끌어 오면서 제2차 7개년 경제계획을 지휘했던 姜成山の 당비서로의 전보는 문책의 성격보다는 黨쪽에 대한 경제전문가 보강 필요성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총리로서의 그동안 경험을 살려 앞으로 실시

될 제3 차경제계획 운용과정에서 당과 내각의 조정역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金日成은 경제난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권력세습작업을 강행하는 것은 큰 모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따라서 권력핵심부에 손을 대지 않고 테크노크라트 중심의 정무원 개편에 역점을 둔 것은 金正日에의 권력이양을 보다 완만히 진행키 위한 整地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장 최근에 나타난 북한당요직의 서열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당정치국 정위원

① 金日成 ② 金正日 ③ 吳振宇 ④ 朴成哲 ⑤ 林春秋 ⑥ 李鍾玉 ⑦ 姜成山 ⑧ 徐哲 ⑨ 許鎔 ⑩ 金永南 ⑪ 延亨默 ⑫ 金洙 ⑬ 吳克列 ⑭ 徐允錫 ⑮ 李根模 ⑯ 洪成南

▲ 당저치국 후보위원

① 桂應泰 ② 田炳浩 ③ 洪時學 ④ 金福信 ⑤ 崔光 ⑥ 鄭浚基 ⑦ 玄武光 ⑧ 姜希源 ⑨ 趙世雄 ⑩ 李善実

▲ 당비서국

① 金日成 ② 金正日 ③ 姜成山 ④ 延亨默 ⑤ 田炳浩 ⑥ 黃長燁 ⑦ 崔泰福 ⑧ 徐寬熙 ⑨ 桂應泰

2. 經濟테크노크라트 부상의 政務院 改編

政務院 개편에서는 국가주석인 金日成과 부주석인 朴成哲, 林春秋, 李鍾玉 등 3명 모두가 그대로 유입되어 있으며, 총리에는 李根模가, 제 1부총리에는 洪成南, 부총리

에는 金永南, 金福信, 崔光, 鄭浚基, 金昌柱, 金潤赫 등이 임명되었다. 또한 정무원 부서는 종래 26개 부서에서 35개 부서로 확대시켰다.

특히 정무원 구성에서 軍을 장악 지휘하는 인민무력부와 정치사찰기관인 국가보위부(이진무)는 당소속으로 그대로 두면서, 일반행정경찰인 사회안전부는 이들로부터 떼어 내어 정무원 소속으로 개편된 것이 눈에 띈다.

또한 종래는 정무원 부장격이면서도 정무원 조직에 편입하지 않았던 중앙자재총연합상사와 체육지도위원회, 중앙은행, 중앙통계국이 정무원에 포함되었다.

이번에 새로 개편된 정무원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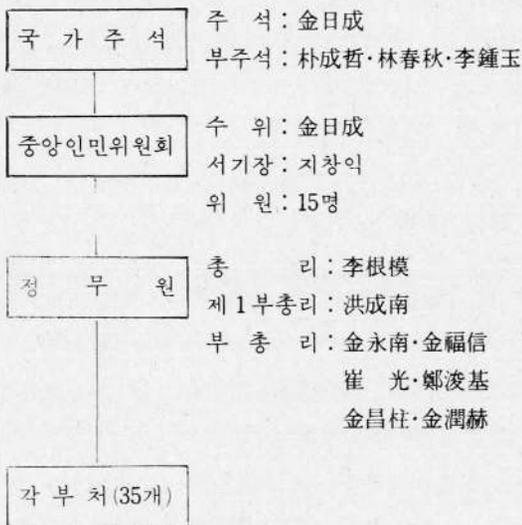
즉, △ 외교부(김영남) △ 대외경제위원회(김복신) △ 농업위원회(김창주) △ 건설경제공업위원회(김운혁) △ 국가계획위원회(박남기) △ 금속 및 기계공업위원회(계형순) △ 채취공업위원회(조창덕) △ 교통위원회(이길송) △ 전력공업위원회(이지찬) △ 화학 및 경공업위원회(김환) △ 수산위원회(최복연) △ 인민봉사위원회(공진태) △ 국가건설위원회(김응상)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자방) △ 사회안전부(백학림) △ 자원개발부(김세영) △ 원자력공업부(최학준) △ 선박공업부(이 석) △ 체신부(김영채) △ 철도부(박용석) △ 무역부(최정근) △ 대외경제사업부(정송남) △ 임업부(김재울) △ 노동행정부(김봉률) △ 교육위원회(변영립) △ 문화예술부(장 철) △ 재정부(윤기정)

△ 과학원(김경봉) △ 보건부(이종률) △ 상업부(한장근) △ 중앙자재총연합상사(이필성) △ 체육지도위원회(김유순) △ 중앙은행(변승우) △ 중앙통계국(신경식) △ 정무원 사무국(정문산) 등이다.

최근 내외통신에 따르면 이 중에서 금속 및 기계공업위원회가 금속공업부와 기계공업부로 바뀌었으며, 화학 및 경공업 위장에는 김환에서 김달현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원기구표는 다음 <表 4>와 같다.

<表 4> 政務院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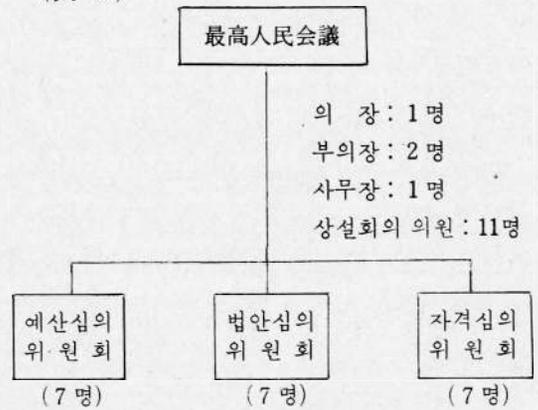
3. 입법 및 사법기관 현황

한편 '86년 11월 2일 선거한 최고인민회의의 8기 대의원 수는 7기 대의원보다 40명이 많은 6백55명이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한 최고인민회의의 개편에서는 최고인민회의의 의장인 양형섭과 부의장인 손성필, 여연구, 사무장인 김봉주가 그대로 유임되었

으며, 3개위원회 중 예산심의위원회 위원장은 尹基福, 법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桂應泰로 교체되었으며,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인 林春秋는 그대로 유임되었다.

또 11명의 상설회의의 위원 중 6명이 새로 교체되었으며, 다른 위원회 위원들도 절반가량이 새로 임명되었다. 최고인민회의기구표는 다음 <表 5>와 같다.

<表 5>



사법기구인 중앙재판소장 방학세와 중앙검찰소장인 한상규도 그대로 유임되었다.

Ⅲ. 金正日後繼体制의 構築過程

1. 後繼体制構築의 背景

북한의 金日成이 金正日을 후계자로 승계시키기 위한 이론적·실제적 작업을 시작한 것은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김일성은 1973년 2월, 약 5만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3大革命小組>를 조직하고 북한의 모든 공장, 기업소, 농장, 각급 기관에 3대혁명소조원을 파견, 이들을 통해 金

正日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73년 9월 개최된 당전원회의에서 최용건(당시 부주석, '76. 9 사망), 김일(당시 부총리, '84. 3 사망)의 제창으로 金正日은 金日成의 후계자로 지명되었으며 그때부터 실권강화작업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1973년 9월 김정일측근 인물인 임춘추(당시 당중앙위원), 오백룡(당시 노동적위대사령관), 전문섭(당시 당중앙위원), 오극렬(당시 공군사령관) 등을 당정치국 내지 비서로 승격시키는 반면, 김일성의 동생 金英柱를 비롯, 김동규(당시 부주석), 이용무(당시 군총정치국장), 유장식(당시 정치국 후보위원) 등 권력세습을 반대하는 당료 및 군부인물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80년 10월, 노동당 6차대회에서 김정일은 김일성과 함께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정치국위원, 비서, 군사위원을 겸직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명실공히 〈제2인자〉로 부상되었다.

1983년부터는 김정일을 통치실권자로 부각시켜 오다가, 그해 2월 16일 김정일을 “主体血統의 後繼者”로 선포하였으며, 10월 17일에는 〈党的 首位〉, 〈金正日時代〉를 공언하였다.

金日成이 이처럼 그의 정치권력을 아들 金正日에게 세습시키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자신의 死後를 보장해 줄 측근이 없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金日成은 소련의 지원에 의해 집권한 이후 수많은 정적들을 숙청했을 뿐만 아니라

‘스탈린格下’라는 충격적 사태를 목도한 이후부터는 자신의 경력을 잘 알고 있는 甲山派, 軍事派 등의 자파요인마저 숙청해 버림으로써, 믿고 의지할 심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김일성이 부자세습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자신의 퇴진 후 예상되는 金日成格下운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의 사상과 권위를 계속 절대화해 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데 있다.

이 때문에 金日成은 권력세습을 용인치 않는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 ‘主体思想’을 더 강조하고 세습후계의 정당화 이론을 개발하면서 세습권력체제구축에 혈안이 되어 왔던 것이다.

2. 權力世襲의 合理化 論理

북한은 그들이 발행한 각종 사전에 세습제도를 〈반동적 제도〉, 〈자본주의에 남아 있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동제도를 부정하면서도 1973년 金正日을 후계자로 내정, 권력세습화를 시도함으로써 부자세습 체제의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었다.

따라서 金日成父子의 권력세습을 교묘히 호도하고, 후계지위의 正当性을 인식시키기 위한 理論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형편이다.

즉, 북한의 권력세습은 소위 〈指導者論〉이란 교리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革命繼承論〉, 〈世代交替論〉, 〈血統承繼論〉, 〈歷史的 準備段階論〉, 〈金日成化身論〉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革命繼承論

북한 공산집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위업은 여러 세대에 걸쳐 수행되는 장기적 사업이며, 이러한 혁명의 長期性和艱苦性이 후계자 문제를 제기한다.”라는 논리에 기초하여 “계승성이 보장되지 못할 때 黨이 변질될 수 있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마저도 커다란 시련에 부닥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代를 이어 혁명을 수행하고 충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 世代交替論

세대교체론은 “후계자는 같은 世代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世代에서 나와야 한다.”는 논리로서 이는 혁명원로들이나 연장층에서는 후계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못박고, 권력투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다. 血統繼承論

혈통계승론은 “수령의 핏줄을 이어 받은 자가 후계자로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서, 이는 金正日의 권력이양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논리로서 “수령의 혈통을 계승하는 후계자는 누구보다도 인민대중의 기대와 신뢰를 받으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歷史的準備段階論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이 지니고 있는 사상과 이론, 영도예법을 배우고 이어 받을 역사적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로서, 지금까지 공산권 국가에서 후계자를 미리 지명하여 성공한 사례가 없음을 인식하고 金正日의 사후후계지명을 합리화 시키면서

김일성의 절대권력을 배경으로,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장기적 안목에서 확대하려는 저의를 나타내고 있다.

마. 金日成化身論

이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사상과 이론을 완벽하게 체득한 지도자임을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서 “金正日동지는 수령의 혁명사상, 불멸의 수체사상과 탁월한 영도예술,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체현하고 계시는 사상의 천재, 영도의 천재이며, 인민자애로운 스승”이라는 등 그를 극도로 미화하고 있다.

3. 後繼體制構築의 제도적 장치

북한공산집단은 김정일을 권력세습자로 결정한 이래 8년간, 후계자로서의 象徵化段階를 거친 다음, '80년 10월 6 차당대회를 기해 후계자로서 실체화하는 단계로 이행하였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습권력체제의 구축과 김정일 정치기반의 조성을 위해 집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 주민숙청과 3대혁명소조의 발효

김일성은 김일체제 整地作業을 위해 그를 후계자로 결정하기 약 1년전('72년 2월)부터 전주민을 ‘半信半疑者’, ‘變節者’, ‘믿을 수 없는 者’로 재구분하고, 이를 다시 13개 계층으로 세분하는 “住民了解事業과 公民証檢閱事業”('78년 9월까지 지속)을 추진하였다.

또한 '73년초에는 “黨証再交付事業”을 통해 10여만 당원을 산간벽지로 강제 이주시켰고, 아울러 ‘3大革命小組’를 구성하여 대대적인 숙청사업에 착수하였다.

북한판 紅衛兵인 이 3대혁명소조는 약 5만의 黨核心, 대학생, 근로자로 조직되어 '생산과제 완수와 사업작품진작'을 독려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 등에 파견, 세습체제에 대한 잠재적 반항자들을 가차없이 제거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70년대 말부터는 軍部에까지 파견되어 중대급 이상에 배치된 1~2명 썩의 소조원들로 하여금 군인에 대한 사상동향 감시를 강화토록 하고 있다. 이로써 軍은 총정치국, 국가보위부, 3대혁명소조의 3중감시체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같이 全黨, 全軍, 全民에 대한 감찰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3대혁명소조는 '84년 9월 현재, 46,000명이 김정일의 친위대로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

나. 권력상층부의 숙청

김일성父子는 후계자상징화 단계인 '70년대기간에 金正日을 반대해온 계모 김성애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고, 제2인자인 金日成의 동생 金英柱를 숙청했는가 하면('75년 4월 당조직부장에서 부총리로 강등 후 숙청) 오태봉(당정치국후보위원), 이용무(북괴군총정치국장), 노태석(부총리), 유장식(부총리) 등을 제거하고 남일(부총리)과 한익수(당검열위원장)를 극비리에 致死케 하였다.

또한 1973년 12월(국가보위부) 창설 이래, 10년간 부장직을 역임해온 김병하를 비롯, 전부총리 김경련을 소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로 몰아 숙청하였으며(1982년초), 특히 군부에 대해서는 세대교체를 단행, 제1부

참모장 김철만을 비롯, 무력부부부장, 군단장 등 군부원로들을 도태시키고 김정일의 동창인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을 군수뇌부에 대거 등용시켰다.

따라서 김정일은 '80년 10월 6차당대회를 기해 만경대학원과 김일성대학출신 중 자신의 심복들을 당정치국에 30%, 당군사위원회에 32%, 당중앙위원회에 20%를 진출시켰고, 그 자신도 '84년 5월부터 당상무위, 비서국, 군사위에서 각각 2位の 서열을 차지하면서 黨事業 全般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원로급은 주로 자문위원으로 전락되어 대거 후퇴하고 黨을 중심으로 金正日파워그룹이 형성되었으며, 또한 군단장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단장이 해방 후 세대로 교체되었다.

다. 金正日의 指導者像 浮刻策動 強化

북한공산집단은 김정일의 지도자적 자질 및 권위의 창출을 위해 그를 '金日成 品性 및 能力의 具現體'로 묘사함으로써 그에게 김정일의 권위를 이전시키려고 광분해 왔다.

그들은 김정일생일을 휴무일로 지정('75년)하는 한편, 주민들 중 '정일'이란 이름을 가진 자에게 改名을 강요하였고, 종전에는 김일성사신만 들어 있던 黨証을 金父子가 함께 있는 당증으로 교체('81년)하는 한편, 도처에 '김정일 사적관'과 '김정일 석고상'을 세우는 등 김일성에 대해 추진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金正日 偶像化措置를 강행하였다.

이상과 같은 지도자상 부각책동은 黨, 사

회단체, 학교 등에서 조직적으로 교양시키는 사업과 병행되어 왔는 바 ‘金正日 말씀’ ‘金正日 德性實記’, ‘金正日 唯一思想’ 등의 학습과 金正日에 바치는 충성의 노래 보급 등으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

라. 후계체제를 위한 정치 및 사회통제 강화

북한공산집단은 金父子세습체제 확립을 위해 숙청과 교양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한편, ‘國家保衛部’(1973년~)와 社會主義法務生活指導委員會(1977년~)를 발족시키고, ‘社會安全’을 내각에서 분리시켜 인민무력부와 함께 ‘국가정책의 최고지도기관’이라는 중앙인민위원회에 직속시키는 등(’86년 12월 사회안전부만 다시 내각에 환원), 정권보위를 위한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金日成父子 세습체제 확립노력이 경제·사회적 모순이 증대되는 추세 속에서 강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보위 차원에서 대처하지 않으면 부자세습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북한 공산집단은 이와 함께 체제를 보위하기 위하여 ‘온 社會의 主体思想化’(’74년 2월)를 제시하고 「人間改造’, ‘社會改造’ 및 ‘自然改造’를 목표로 하는 大衆運動을 강력히 촉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IV. 金正日後繼体制의 展望

세습체제를 확립한 김일성은 그의 통치시

대를 총결산하는 ‘朝鮮勞動黨建設의 歷史的 經驗’(’86년 6월)을 발표함으로써 김정일 에의 정권이양이 임박했음을 예고했으며, ’86년 11월 김일성사망설 이후 김정일의 부주석 선출 등 제 8기 1차회의(’86. 12)를 계기로 후계체제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추측되었으나, ’86년 12월 29일 북한최고인민회의 제 8기 1차전원회의는 예측과는 달리 김정일의 부주석 선출,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후계체제 마무리는 일단 유보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북한권력 내부에, 특히 후계문제와 관련 적지 않은 갈등이 상존해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결국, 김정일 에의 권력세습을 달가와 하지 않는 세력이 무시 못할 힘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리를 해나가면서까지 이에 손을 댈 필요가 없다는 전략인 것 같다.

1. 金日成唯一体制 40年の 虚像

‘權不十年’이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故事도 북한에서만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근대사에 있어 30여년을 통치해온 장기독재자들을 쉽게 꼽아볼 수 있지만, 40여년간의 장기독재에다가 권력세습까지 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

30년 이상의 장기독재자들을 보면 스탈린이 31년, 티토가 35년, 프랑코가 36년, 팔레비가 38년 등이고, 40년 이상은 북한 김일성과 알바니아의 호사(41년), 그리고 니카라구아의 소모사 一家(45년) 등이다.

이같은 독재자의 말로는 거의 대부분이 제명을 다하기 보다는 비참한 최후를 장식하였다는 것이 하나의 공통된 점이고 비록 제명을 다했다 하더라도 死後에 格下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공산주의 사상 그 유례가 없는 父子세습책동이 북한에서만은 과연 성공될 수 있는 것인지는 세계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통치형태나 앞으로의 정책전개 및 권력판도의 변화는 그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북한의 통치형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은 다른 공산권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二元的 構造를 띠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金日成의 영도' 金正日의 지도' 체제라는 이원적 구조는 표면적으로는 권력이양의 과도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내면적으로는 원로를 포함하여 김일성치하에서 권력핵심층에 등장한 기존세력들과 소장 중견간부층과 김정일지지의 준비세력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궁여지책의 소산물이라 할 수 있다.

2. 불안과 반목 속의 權力力学關係

김정일 후계체제의 정권적 기반이 첫째, 통치이데올로기가 세습후계체제라는 정치권력의 시너로 전락한 기본 모순을 내포한 채, 밑으로부터의 혁명이나 관료체제적 리더십의 행사를 크게 제한할 수 밖에 없는 토대 위에서 있고, 둘째,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후계체제의 권위창출 내지 세습정권의 정통성 확립에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세

째 김정일의 정치행태마저 최대동원, 최대착취를 무리로 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향후 북한의 정치 및 권력체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환경요인으로 경제발전 요구와 주민의 복지향상욕구 등의 내적변수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추이 내지 남북대치상황 등 외적변수가 결코 북한정권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김정일이 3대혁명소조를 비롯한 사회저변층으로부터의 지지기반을 구축하면서 '80년대에 공식적으로 등장, 중앙무대에서 본격적인 정치활동과 역량을 확대시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알력과 마찰을 일으켰다.

그 중에서도 軍部長악문제가 김정일후계기반확립의 결정적 요체가 되고 있으며, 북한 내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과 그의 통치형태를 보아 커다란 취약점이 되고 있음은 쉽게 짐작이 간다. 즉 비록 북한당국이 바깥 세계에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으나 '80년대 김정일등장 이후, 군부소장파들의 중공탈출설 및 '86년 11월 김일성사망설과 관련한 인민군전선부대의 확성기방송 등 3~4 조에 이르는 軍部の 反金正日사건들이다. 그리고 아직은 여러 모로 보아 金正日보다는 높은 대우를 받아야 할 인민무력부장 吳振宇가 측근보좌관 모양으로 金正일을 일일이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軍部가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점이다.

실제로 北韓軍部는 크게 老壯派와 少壯派,

그리고 親蘇派와 親中共派로 세력판도를 나눌 수 있는데, 이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세력은 金日成父子의 권력세습을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던 강경少壯派. 현재 북한 노동당군사위원회 위원들인 白鶴林, 金斗南, 金江煥, 李乙雪, 朱道日 등이 이에 속한다 (김두남과 김강환은 최근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탈락되었음). 다만 현재 북괴군총참모장인 오극렬은 少壯派의 우두머리격이지만 反金正日派가 아니라는 점에서 특이한 위치에 있다.

또 하나의 내면적, 잠재적 反金正日派로 떠오르는 집단이, 이른바 테크노크래트라 불리우는 청·장년기술관료들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동향은 간단히 연령만 보고 金正日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김정일은 선대를 뺨칠 정도로 비합리적, 비과학적인 관념론적 방법을 강조해 온 반면, 이들 테크노크래트들은 소련 및 동구권 유학 등으로 그런대로 과학적 방법을 중시한다고 볼 때, 어느 한 시점에 이르면 북한의 테크노크래트들에 의한 개혁운동은 金日成父子세습체제를 송두리째 비판하는 방향설정을 나타낼 가능성이 없지 않다.

3. 金正日時代의 음영

비록 내면적으로는 反金正日의 불씨가 감춰져 있다 하더라도 외면적으로 나타난 金正日의 통치기반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86년 권력개편을 통해 김정일에게 전권은 넘어가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김정일 후계기반을 강화시켰다. 우

선 당비서에 전총리인 姜成山 및 김정일과의 거의 행동을 같이 해오던 전제1부총리 延亨默 등이 기용되고, 金正日을 직접 보필하고 당비서로 있던 李根模가 총리로 임명되어 행정과 경제를 총괄함으로써 김정일 정책주도를 보좌하게 했다는 점이다.

또 당중앙위원 13명과 후보위원 17명의 승진도 대체적으로 젊고 새로운 인물들이 등용되었으며, 이는 '80년 6차당대회때 '金正日時代'를 주도해 나갈 많은 세력을 당 핵심에 기용한 것과 병행하여 계속적인 세대교체를 진행하여 金正日 中心體制로 완성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 하겠다. 당중앙위원도 종래 150명 수준에서 169명으로 후보위원도 104명에서 122명으로 크게 증가해 내부적으로 대폭적인 세대교체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시킨 李根模내각도 사실상 북한이 오늘의 경제난국을 타개할 수는 없다.

우선 새로운 정무원 구성에서 총리를 비롯, 제1부총리 등 정무원구성원을 많이 교체했지만, 이들이 대부분 오래 전부터 북한의 경제를 주도해온 자들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내각개편은 통상적으로 새로운 내각 구성이나 경제계획이 끝나고 새로운 경제계획을 시작할 때 총리 등을 교체하는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하며, 북한의 권력구조가 항상 그러하듯이 경제각료 또한 늘 그 얼굴이 그 얼굴인 자리바꿈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떠한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수도 없

을 것으로 보인다.

V. 맺음 말

권력세습으로 출범하는 金正日体制는 김 일성사상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독자적 지도 이념의 점진적 정립 내지 이미지 고양책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政治的 權威와 正統性의 확보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金正日이 만약 金日成의 지도원칙으로부터 이탈을 피한다 하더라도 이는 長久한 세월이 지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내외환경의 압력을 감내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金正日 후계체제작업은 '80년 말이나 되어야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되는데, 그것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최소한 5년에 한 번 실시하며, 이때 국가 주석을 선출하는 것으로 미루어 金日成의 신변에 급작스런 변고가 없는 한 그의 '국가주석' 위치는 '80년대를 넘길 것이기 때문이다. 또 '86년 7 차당대회를 개최하겠다는 金日成의 언질은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 당총비서직의 이양이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우며, 이렇게 볼 때 金正日의 후계체제는 좀더 뒤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金正日의 후계체제 기반은 계속 학고히 다져나가겠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권력투쟁과 숙청의 바람을 몰아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상황은 주민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통제와 감시, 긴장을 가져올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성격이 몹시 난폭하고, 사생활이 형편없이 문란한, 유치한 영웅주의에 집착해 있는 그는 일단 독재의 全權을 차지할 때 폭군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그같은 행태는 金正日을 빨리 제거하려는 당간부들의 음모를 부채질하게 마련일 것이다. 김정일축출사태를 상정해 볼 때 이는 북한의 개혁 기운 내지 자유화운동에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북한정치사는 그 자체 내부에서 불타오른 自由化運動의 뚜렷한 기록을 갖고 있다.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56년 그리고 '58년 金日成독재정권을 뒤엎으려는 自由化運動과 '87년 5월에 일어난 군중폭동 등을 비롯, 끊임없이 反金日成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숙청작업도 엄청나게 가혹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공산권 내의 自由化運動은 불사조와 같은 것이다. 그 불씨는 꺼지지 않고 언젠가는 다시 잿더미를 헤치고 요원의 불길을 이루게 될 것이다.

선제공격 개념의 수용문제에 대한 소고

중령 권 재 상

(공군대학)

I. 문제의 제기

이 글은 항공기습공격에 의한 선제공격의 개념을 국가방위의 전략으로 수용하고자 할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논의해 보기 위하여 쓴다.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소위 6일전쟁이라고 불리는 제3차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이 보여 준 항공작전의 시범적 사례와, 이를 모방하여 개전의 한 방법으로 채택한 다른 전쟁들이 보여준 실패의 사례를 통해서 전략의 상황성을 새삼 인식하였기 때문이다.¹⁾

전쟁을 시작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이 처한 지리전략적 위치(Geostrategical Status)와 국제적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현대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기초로 하여

자국의 전쟁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필요시는 선제공격의 방법을 구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간접적 방법을 택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현시대의 국가들이 갖는 방위구조의 특성상 기습공격의 위험성은 공방 양측에 결정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²⁾ 공격자의 측면에서는 기습공격의 가치성 문제를 제기하게 하고, 방어자의 측면에서는 대응(Response)의 문제를 고심케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과학기술 발전의 군사적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항공력과 같은 기습공격에 효과적인 도구/수단들이 크게 발전하여 기습적 선제공격의 효용도를 급증시킨 것이다.

그러나 기습적 선제공격이 항상 긍정적 결과만을 낳는 것은 결코 아니고, 개전 전보

다 못한 상태를 만들 수도 있다. 논자는 이러한 관심의 배경에서 출발하여 선제공격의 의의를 검토하고자 (1) 전격전 방식의 선제공격은 과연 어떤 성질의 전략이며 (2) 분쟁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특정한 수단으로서의 훌륭한 전략개념인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II. 선제공격의 일반적 고찰

1. 선제공격의 개념

여러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기습적 선제공격의 정의는 적의 기습이나 개전의 의도가 명백하게 되었을 때에 자위권을 준용하여 적의 기습을 제압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격행위라고 할 수 있다.

기습이란 방어자가 적이 과연 공격해 올 것인가의 여부와 만일 공격해 온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인가에 관한 정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방어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받는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다.³⁾ 이러한 기습이 과거에는 주로 작전적, 혹은 전술적 관점에서 취급되어 전쟁 차원에서의 기습, 즉 개전시의 기습에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전에 있어서 완전한 의미의 기습은 전쟁 전체의 국면을 좌우하게 하므로 전략적 차원

에서 취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다. 따라서 기습에 관한 한 그 대비책이 제 아무리 고도로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것이 될 수 없으며, 오직 “많을수록 좋다”(The More, The Better)는 원칙에 따라 보다 다양한 대비책을 준비함으로써만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게다가 기습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은 거의 모두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과 조직구조상 의사결정과정 등 수량화할 수 없는 무형의 것들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선제 또한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먼저 공격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의 의미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위적 방위행위”로 사용하여 일종의 “전쟁을 시작해도 좋은 권한”으로 까지 확장된다.

결국 기습적 선제공격이란 먼저 공격을 개시하되 기습적으로 행하는 것이며, 이의 작전적 이점(Advantage)이 전략적 차원으로 승화되어 자국의 현재적 취약점이 적에게 이용되기 전에 현재의 상대적 우위를 먼저 활용한다는, 결과에의 낙관적 판단에 따른 적극적인 전략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위권의 위치⁴⁾

선제공격은 제2차 세계대전까지만 하여도 보편적인 개전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국제연맹규약 및 부전조약 등에 의해

군사지식

서 전쟁이 한정적으로 금지되기도 하였으나 생존을 위한 전쟁은 정당성이 인정되었고, 때로는 침략전쟁도 생존을 위한 전쟁으로 주장되기도 하였다. 또한 전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였었고, 전쟁에서의 군사적 승리는 상당한 유효성이 인정되어 전쟁에 의한 국제문제의 해결은 국가 고유의 권리로서 합법적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작전상의 일반원칙인 기습적 선제공격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침략을 당하고 난 후에 대응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극히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선제공격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대전 후 전쟁의 성격이 변모되고 국제환경이 옛같지 아니하여 전쟁의 문제는 억제에 주안점이 두어져 선제공격은 부정되었으나,⁵⁾ 근래와서는 기습의 애매성, 기습의 시한성, 선제기습공격의 유동성 등으로 중소 국가의 국지적 분쟁에서 다시 선택될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의 자위권행사라는 측면에서 군사수단에 의한 자위적 선제기습공격에 대한 객관적 판결은 이로써 더욱 곤란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다분히 해당 국가의 처지나 의지에 따라서 전쟁을 도발하거나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적 계획에 지배되는 주관적 주장의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선제공격 분석

1. 작전적 차원

○ 기 습 : 능력과 의도의 유인

기습이란 통상적이 예상치 못한 장소, 시간 및 새로운 방법으로 공격을 감행하여 충분히 대응할 만한 심리적,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충격여파로 인해 본래 자신이 가진 능력조차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이는 보통의 공격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를 노리는 공격방식이다. 이때의 충분한 여유란 적이(방어자) 완전히 모르게, 즉 전혀 눈치 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을 때는 이미 때를 놓치고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습은 숫적인 면에서나 능력적인 측면에서 적보다 약하지만 공격할 의도가 있는 자가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며(전력증폭기 : Force Multiplier), 공격자측에 거의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법이어서 유사 이래로 전쟁수행방법으로 기습이 선호되어 왔으며, 소위 시간적 기습, 기술적 기습, 방법상의 기습 등의 다양한 형태로 그 전쟁상황에 적절하게끔 각색되어 왔고, 전투의 기초적 방법이 되고 있다.

우리는 근대항공전에서 좋은 예를 보고 있는데, 6일전쟁에서의 이스라엘이 아랍

을 공격한 데에서, 의도가 분명한 소수가 열세의 전력으로 다수의 적을 일거에 격파한 것이 현대기술전의 신화로 창출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선 제 : 지리전략적 환경의 유인

전쟁은 통상 국토, 국민, 주권 또는 국가 위신, 국가이익, 국가행동의 자유, 문화적 의미 등으로 구체화되어 표현되는 한 나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수행된다고 볼 수 있다(적어도 이성적인 지도자가 전쟁을 수행한다면).

이러한 여러 가치체계가 지리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방치되어 있거나 방위가 곤란한 지경에 있고, 그것이 그 국가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공격자의 공격유혹은 증대될 것이다. 공격하여 일거에 장악하거나 파괴함으로써 상대방국가에 미치는 실질적으로나 상징적으로 타격이 크면 할수록 이에 대한 공격유혹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동전쟁에서의 사례에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는 이집트 공군의 4분 이내의 공격 거리에 있었고, 주요산업시설, 항구 등은 방어에 이용할 만한 지형지세가 거의 없는 국경근처에 노출된 채로 펼쳐져 있었으며, 주요 전투력인 전술항공기와 지상군 전차전력은 주기장과 격납지에 노출된 채로 방열되어 있었다. 그러한 상황은 곧 아랍의 기습을 받는다면 일거에 전체전력이 파괴될

위험한 상황이었다.⁶⁾ 이집트의 나세르는 이러한 시정을 잘 알고서 유엔군의 철수를 요구했고, 주전투력을 시나이반도로 전진배치했으며, 미그전투기를 동원한 위협 비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이집트의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갖게 했다. 즉 중심의 결여로 경보시간이 짧아 선공을 흡수·완충할 여유가 없음을 스스로 판단하고 이집트의 공격군이 출격하기 이전에 선제공격을 취한 것이다.⁷⁾

또 다른 사례로서는 1971년의 인도 - 파키스탄 전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동파키스탄(East Pakistan)의 내전을 핑계로 서파키스탄(West Pakistan)에 대해 공격위협을 가하는 인도를 파키스탄은 공중공격을 통한 선제공격을 가하여 일단 제거하려고 하였다. 즉 동파키스탄을 최대한 장시간동안 지탱하면서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의 개입을 통해 전쟁을 종결짓자는 구상인 것이다. 파키스탄이 그같은 전략을 구상한 이유는, 그들의 주요산업인 농업용 관개수로를 비롯한 여러 국가시설들이 아무런 방어상의 유리점이 없는 평원에서 국경으로부터 25km거리 이내에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인도가 먼저 공격한다면 피해는 지대하여 회복할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 확실했으므로 선제기습하여 인도의 공격예봉을 미리 와해하고 재편성하는 동안 미국의 중재개입을 노렸던 것이다.⁸⁾

이러한 사례에서 보더라도 지리전략적 취

군사지식

약점은 선제기습공격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너무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의 정치적 가치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서울은 북한의 장거리화력의 사정거리 내에 있고, 공중공격으로부터는 5분 이내의 거리에 있으므로 지리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취약점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공격을 먼저 흡수한 후 반격을 통한 회복은 군사작전상 지극히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뿐일 것이다.

○ 선제기습 :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유인(Incentive)

과학기술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은 통상적으로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먼저 그 하나는 파괴력의 증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유지 및 지원의 문제이다.

파괴력의 증가는 화력자제-폭발력-뿐만 아니라 그것의 운반수단, 정확도, 통제방법 등이 함께 발달함으로써 — 비록 부분적인 과다파괴(Overkilling)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 그 치명도는 크게 향상되었다. 다시 말해서, 파괴력의 신속도와 정확도가 크게 발달함으로써 먼저 공격하는 측이 큰 이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운영유지와 지원의 문제가 오늘날 중급국가들의 전쟁에 있어서 커다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분쟁하에 있는 대부분의 중소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적 능력이나 산업기술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고도기술의 최신장비로 무장한 군사력을 “동원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그것도 대개의 경우 공격형으로 구성-배비하고 있음으로써 적절한 방호조치가 부족한 형편이고 짧은 수명주기(Life Cycle)에 신속하게 적응해 나가기에 급급해하는 실정이다.⁹⁾ 이러한 현상은 또 관련된 두 가지의 문제를 촉발한다. 첫째, 그것은 기습공격에 취약하여 일단 파괴되면 그만한 전투력을 재구성하기까지는 불확실한 환경적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 즉, 국내기술수준을 능가하는 기술을 요구하는 무기와 장비들이므로 국외도입이 불가피한데, 이는 공여국의 정치적 결심을 비롯하여 수송문제, 수령 후의 교육소요 등 유관 유발문제들이 많이 작용하여 시간적으로나 의사결정상의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첫번째와 관련된 문제점으로서 그러한 장비 및 무기, 물자들에 대한 막대한 댓가의 지불부담은 전쟁이 승리로 종결된 후라 할지라도 커다란 충격으로 계속 남게 될 것이다.

환언하면, 과학기술수준의 발전이 중소국가들의 전쟁에 미치는 영향은 파괴위력과 파괴속도의 증가로 기습의 기회와 효과를 증대시켜 기습에의 유혹을 크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점에 못지

않게 부수되는 위협도 아울러 증가하여 경제적인 부담감과 국제적 외교관계 측면에서의 위협, 즉 동맹국이나 중립국과의 관계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 분석 :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이상에서 작전적 차원에서의 기습은 전통적 전쟁의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중소 국가들의 분쟁상황은 기습이 꼭 유리한 상황을 창출한다고만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작전적 차원의 성공이 꼭 전쟁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작전적 수준에서 판단할 때 어떠한 목표물을 어떻게 공격해야 그것이 곧 전쟁에 긍정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적이 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중한 여기는 가치가 집중된 목표물은 과연 무엇이며, 그러한 목표물은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 상황성을 지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을 어떠한 수단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파괴해야 하는가라는 작전전략의 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요약전대, 기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공격수단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즉 전술(Tactics)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 현대전에서는 항공전력의 신속

성, 기동성, 융통성 및 다양성을 그러한 문제의 해결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2. 전략적 차원

○ 기 습 : 선제와 예방

위협에 대한 인지(Perception)가 곧바로 폭력을 유발시키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것을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 또는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이라 부른다.¹⁰⁾ 이러한 공격의 목적은 상대방이 공격해 올 기회를 갖기 전에 선수를 친다는 것이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제 혹은 선수를 치는(Foretelling) 공격은, 적의 군대가 곧 공격을 개시하려 하거나 공격을 막 시작한 것을 탐지한 국가에 의해서 개시되는 공격이다. 즉 전쟁의 임박성이나 높은 가능성 상태하에서 선수를 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제공격이나 예방공격의 차이는 매우 애매하다. 대체적으로 그것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시간장경에 두고 있으나,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는 질적인 차이도 있다. 예방공격은 양국간의 군사력 균형상의 전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국이, 전쟁은 일단 불가피한 것으로 인지된 상태에서 적국에 대한 공격을 시작함으로써 전쟁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¹¹⁾ 좀더 자세하게 말해서, 전쟁이 궁극적으로 불가피하고 환경이 아직 일방에 유리할 때 먼저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현재의 전망에 대해서

군사지식

는 낙관적이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입장의 공격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심사숙고한 침략행위로 하나의 기정사실화된 상태를 창조하려는 시도이며, 그것은 현상을 유지하려는 궁극적 방위노력이라고 이론상으로는 아직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군사적 행위/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예방공격은 그 자신이 기선을 취하는 행위인 반면에, 선제공격은 적의 기선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된다.¹²⁾ 예방공격과는 달리 선제공격은, 일반적으로 냉철한 계산이나 계획의 산물이 아니고 오히려 최종적인 절망의 순간에 취하는 응급적 조치로서 시행된 예가 많다. 이때의 공격목적은 임박한 적의 타격능력(공군력, 기동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즉각적으로 행동을 개시하지 않으면 파괴될 수 밖에 없는 자국의 군사력을 사용할 마지막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일단 취약점을 인식한 국가는 강력한 공격동기(Motive)를 갖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지리전략적 위치가 불리하고,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자원면에서 장기전에 불리할 때 등, 상대방의 동원(Mobilization) 이전에 또는 동맹국의 지원이 있기 전에 신속히 승리를 획득해야 한다고 판단한 국가는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제공격 또는 예방공격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선제공격이든 예방공격이든 둘 다 일단 공세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자위적 전쟁, 혹은 방어적 전쟁으로 부르는데는 문제가 있다. 그 실제적인 예로써 6일전쟁때의 이스라엘의 입장을 다시 보면, 아랍의 증가되는 위협에 대해 선제기습공격을 감행하여 개전 170분만에 이집트의 항공기 300여대를 파괴하여 우선 당면한 위협을 제거하고, 나아가 지상군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6일 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나 “전쟁도발자” 또는 “침략자”라는 지탄을 받아 군사력의 재건에 크게 지장을 받는 등 국제무대에서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격이 심각하였다.¹³⁾ 즉 군사작전차원의 이익은 훌륭하게 획득하였으나 군사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인 전쟁목적에의 기여에는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 선 제 : 전쟁의 목표와 전쟁수단의 조화

프러시아의 군사전략사상가인 클라우제비츠는 그의 저서 “전쟁론”에서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¹⁴⁾ 이라고 하면서, “전쟁은 사회활동의 한 영역에 속하여 유혈에 의해서 해결되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투쟁이고, 다만 유혈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다른 수단과 구별된다”¹⁵⁾ 고 하여, 전쟁은 분쟁의 필연적 결과는 아니며 하나의 가능한 선택임을 나타내고 있다.

공동사회의 전쟁, 더군다나 문화국민의 전쟁은 거의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촉발된다

고 볼 수 있다. 즉 전쟁이란 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정치라는 상위개념하에 있는 국가간의 교섭의 한 형태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지도자 또는 전략가는 분쟁해결의 한 수단으로, 전쟁을 택할 때는 먼저 전쟁에 호소하면 과연 특별한 정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과, 또한 이들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국가이익이 충족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들 목표와 이익은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달성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는 목적은 전쟁이라는 방법을 정책의 한 수단으로서 선택한 경우 그 전쟁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그 무엇”, 즉 정치적 목적인 실제적 이해관계 - 국가의 생존, 국가이익 등등 - 를 취득하는 것이며, 전쟁 목표는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군사력이 성취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인 것이다. 또한 국가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선택으로서의 전쟁목표는 전략적 선택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군사력이 추구해야 할 최종목표이고, 군사력의 성공적인 운용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군사전략은 군사력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전쟁목적 달성에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된다.

클라우제비츠는 “전략이란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투를 운용하는 것¹⁶⁾ 이라 하여 전쟁중심으로 전략을 정의하였고, 리델하트는 “정책의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수단을 배분하고 운용하는 기술”¹⁷⁾ 이라고 하여 전투력의 운용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들이 뜻하는 바는 모두가 다, 전략이란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어떠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최선이나 하는 것이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략은 하나의 사고방식”(The Way of Thinking)이며, 그 목적은 각각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배열해서 그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가장 효과적인 행동방책을 선택하는데 있게 된다.¹⁸⁾

그러므로 각각의 상황에는 그것에 알맞는 특별한 전략이 있을 것이며, 주어진 전략은 어떠한 상황에서는 최선이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최악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전쟁목적과 전략과의 관계에서, 전략은 전쟁목적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합목적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일전쟁 때의 이스라엘이나 3차인파전 때의 파키스탄은 군사작전의 궁극적 목적이 국가생존권을 보존해야 하는 방위활동이므로, 적을 파괴하지 못하면 자신이 파멸한다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이들 두 국가가 대산업폭

군사지식

격이나 대도시폭격(Counter City Bombing)과 같이 적의 후방에 대한 타격이나 압박을 통한 적의 파멸을 추구하지 않고, 수단의 한계능력을 고려하여 당면한 직접 위협만을 항공전략목표로 선정하였던 것은 그들의 전략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적 승리를 추구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끔으로써 전후처리문제를 주도하려는 이스라엘의 경우나, 전쟁의 승리에 군사적 행동이 결정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적 사정을 정확히 직시하고 다만 패배의 가능성을 유보함으로써 전쟁을 자신의 주장대로 조절하려던 파키스탄의 경우에서나, 양국의 군사전략은 정치목적에 지향하는 수단으로서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잘 조화된 상태로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분석 : 무엇이 문제인가?

결국은 선제공격이 아축의 장점과 강점을 최대로 활용하여 일거에 적의 덜미를 쥐어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을(Target) 공격해야 전쟁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즉 앞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상호대결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거나 전쟁의 위협이 임박한 국가들처럼 전진배치되어 있는 전력의 크고, 방어설비 또한 방대한 경우에는 전선의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파괴하여 누적

적 파괴효과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적의 모든 전쟁수행능력을 상대로 체계적 파괴를 추구할 것인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집약적으로 말하면, 파괴력과 신속성이 크고 운용상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는 항공력은 전쟁목표 달성에 좋은 수단이다. 하지만 그것은 고가이고 소모적이어서 충분한 자산의 확보운용이 쉽지 않고,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전쟁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기 위해 그 운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이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다.

3. 정치적 차원

○ 선제의 여건 : 국제관계의 측면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국제연맹규약이나 부전조약 등에 의해 전쟁이 한정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생존전쟁이라는 미명하에 개전권이 남용되기도 하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전쟁은 불가피하고, 전쟁에서의 군사적 승리는 국제관계에서 상당한 유효성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군사상의 이점인 선제공격이 유리하고, 침략을 당한 뒤 방어한다는 것은(군사적으로) 극히 불리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제2차대전 직후에는 핵무기의 실전배치와 함께 전쟁 후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전쟁의 정치수단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무력에 의한 국

제분쟁 / 국가간의 문제해결은 국제법상으로 “침략”으로 간주되고 선제공격을 불법화하였다.¹⁹⁾

그러나 최근의 동향은 그렇지만은 않다. 이른바 저강도전쟁 (Low Intensity Warfare)로 불리우는 또 하나의 전쟁형태가 현대전의 개념을 애매하게 만들었다. 상대국에 대한 직접적 무력행사 뿐만 아니라 테러·게릴라활동 등과 같이 한계가 불분명한 무력행사는 강대국간의 힘이 교착된 상태에서 유력한 투쟁방법이 되었다.

그 결과 전쟁은 그 빈도와 애매성이 증대하였다. 또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달 역시 선제공격의 동기 (Incentive)를 고무시킴으로써 중소국가간의 국지적 분쟁에서는 선제공격이 개전수단으로 새로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선제공격이나 예방공격이냐는 다분히 주관적인 해석일 수가 있는 “판단의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위협이 곧 폭력을 유발할 때 발생하는 것이 선제 또는 예방공격이고, 그것은 시간장경 즉 위협의 임박성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위협의 인지가 주관적 판단이어서 선제나 예방이냐는 당연히 주관적 판단이 된다는 것임을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의적 판단을 통해 공격한 후 적의 위협을 과대선전하여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주장한다. 즉, 선제공격의 자위권을 남

용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제2차대전 이후 뉘른베르그 및 동경 국제재판의 판결에서 자위의 여부는 최종적으로 국제적 심사와 판정에 부쳐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인 자위권 발동의 적법성과 타당성은 국제판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현대전의 여건상 선제공격의 합법성 여부판단에 앞서서 선제공격의 군사적 유리함이 확실시되는 이상, 일단 선제를 통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후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쪽으로 국제적 분위기를 유도하고 지탱해 나간다면 결과는 패한 자만 서러운 꼴로 남게 된다. 아울러 반응행동이 더딘 강대국의 지원행동이 시작되기 전이나, 적의 동맹국이 간섭을 시작하기 이전에 전쟁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고자 함이 선제공격의 일차적 목표가 되고, 그것의 장점이 되며 그 단계까지 전과를 확대하지 못한다면 선제공격의 의의는 없는 것이다.

○ 선제의 여건 : 국내적 측면

특히 선제공격을 군사전략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측은 국내정치 측면에서, 군대는 물론 국민의 전투의지와 저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서 전쟁의 당위성, 즉 선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제의 불가피성을 선전하여 여론의 일체감을 형성함이 필요하다. 분명한 전쟁목적과 방법, 수단상의 범국민적 인정 등에서 일체감은 출발할 것이다.

군사지식

○ 분석 : 무엇이 문제인가?

정치적 차원에서의 선제공격이 갖는 문제점은 국내적 국민여론의 통합과, 국제적 여론의 이탈방지-적어도 비난은 않도록-에 귀결된다. 전자는 전쟁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인정이고, 후자는 자위권으로 대표되는 국제법상의 합법성의 문제이다. 이것은 공격의 시기, 즉 Timing에 따라서 합법성이 인정되기도 하는 선제공격이 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예방공격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일단 선제의 장점을 취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군사적 지속력과 정치적 기정사실화의 배짱이 절대 필요하다. 하지만 우방국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문제가 잠재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IV. 선제공격개념 수용상의 선결요건

선제공격문제의 분석은 공방 양측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본고의 목적이 선제공격개념 수용상의 문제점을 일견하는 것이므로 공격자측의 입장을 중시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앞의 세 가지 측면의 분석에 이어 선제공격개념을 수용하기 전에 선결하여야 할 전제조건들을 공격자 측면에서 논의하고

자 한다.

1. 능력적 측면

군사전략은 국가전략의 실현수단이므로, 군사전략에 의해 지침을 받는 군사전력(Military Capability)은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Grand Strategy)에 봉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군사전략의 실체는 전시(War Time)에는 작전전략(War Fighting Strategy)이 되고, 평시에는 군사력 구조에 방향을 제시한다. 한편 군사력은 해당국가의 국제적 위치, 즉 국제적 힘의 관계에 있어서 능력적 배경이 되고 의지(Will)의 발원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의지의 구체적인 표현인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인 군사력은 그 편제, 편성, 장비 및 운용하는 교리면에서 합목적적 구조역량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군사력 구조를 설계하는데는 통상 두 가지 방법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것은 취약점 보완방식과 목표지향방식이다.²⁰⁾ 먼저, 취약점 보완방식은 당면한 위협의 크기와 형태를 전제로 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일대일 대응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며, 도달목표의 분명화와 자원배분의 편리성은 있으나 군사력 구조 설계상의 주도권은 항상 적이 갖게 되어 끊임없는 군비경쟁(Arms Race)의 상황으로 나아갈 위험과 피동의 위험이 상존한다. 반면 목표지향방식은 자신이 달성코자

할 특정수준의 목표를 두고 이에 필요한 군사력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군사력 건설상의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자국의 전략구상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적의 인내와 합리성을 믿어야 한다.

선제공격개념은 하나의 전략적 목표이다. 따라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는 적의 능력을 충분히 분석한 다음 자신의 도달목표를 한정하고, 이에 알맞는 수단(Means)으로서의 군사력 구조를 가져야 한다. 즉 공세적 전략을 택하고자 한다면 무기체계 역시 공세전투에 필요한 수준만큼 갖추고 그에 따르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 선제공격개념을 수용하고자 하면서도 준비된 전력(Mobilized Forces)이 동원잠재력보다 중요시되지 않는다면 선제공격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습공격은 동원에 필요한 심리적, 시간적 여유를 허용치 않을 것이므로 방어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이 된다. 공격자에게 있어서도 충분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기습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도는 숨기고 기도비닉을 달성해야 한다. 그것은 동원잠재력보다 준비된 전력, 즉 동원되어 이미 훈련된 전력에 의해서만이 기대되는 효과인 것이다.

결국 선제공격개념을 수용하고자 한다면 군사역량면에서 충분성을 필요로 하고, 구조면에서도 동원된 군사력의 준비상태가

선결요건이 된다.

2. 의지적 측면

한 나라의 방위구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

- ① 전략적 공세 — 전술적 공세
- ② 전략적 공세 — 전술적 수세
- ③ 전략적 수세 — 전술적 공세
- ④ 전략적 수세 — 전술적 수세

이같은 매트릭스는 이론적 측면의 구분이기는 하나, 실제적 측면에서도 가능한 패턴이다. 다시 말해서, 한 나라의 의지가 국가보위라고 했을 때 표면상으로는 (전략적으로는) 수세를 취하더라도 실제적 행동에서는 공세적일 수도 수세적일 수도 있으나, 현실적 실천안으로서의 전략은 그 국가의 상황적 판단에 의거한 최선의 것이어야 하므로 여건의 가부에 따라 공세안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제공격과 같은 공세적 개념을 전쟁구상으로 수용하고자 할 때 그것이 전략적 수준으로 수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차원의 전쟁을 수행하고자 하면서 전술적 수준의 방어를 주된 전투방법으로 택한다면 너무나 위험부담이 큰 개전방식이 될 것이고, 단순히 먼저 가격했다는 의미 외에는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전쟁수행능력은 “실질적인 힘과 의

군사지식

지의 승수”로 나타나고, 선제공격을 해야겠다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충분한 능력에 의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황에 따른 최적판단으로서 건전한 전략을 수립하려면 의지표현상의 금기가 없어야 특정이디어가 전략으로 채택될 때 적합성과 실현가능성 및 수용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V. 결 론

선제공격은 결국, 작전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방법(Tactics)의 문제와, 전략적 측면에서의 무엇(Target)의 문제와 언제의 문제(Timing), 즉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작전적 차원에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고전적 교훈대로 공격의 시기·방법·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점 및 효과적 선제공격으로 적 주력에 대한 심대한 타격

으로 적의 공격력을 파괴 또는 지연하여 군사적 불패를 보장할 수 있는 반면, 정치적 차원에서 국제적 여론의 악화와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적국을 지원할 외부세력에게 개입할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선제공격을 가하는 국가의 동맹국 및 집단방위체제내의 국가들 간에 불화와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더 중요한 것은, 미숙한 정보관리(수집, 처리, 활용)로 사태를 오판하여 전쟁을 먼저 발발케 하여 확전을 유발하게 되면 전쟁도발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적의 의도적인 계획에 기만당할 공산도 크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사정과 같은 경우 아측이 선제공격개념을 기본전략개념으로 수용하고자 한다면 그같은 세 가지 측면의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능력과 의지의 적절한 조화가 절대적 선결요건으로 요구되어진다.

— 주 해 석 —

- 1) 1971년의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파키스탄의 실패와, 이란-이라크전쟁에서 이라크의 실패 등에서 복제된 전략의 무모성을 볼 수 있다.

Jhon G. Stoessinger, Why Nations Go to War, N. Y. Martin Press, 1982., p.135.

- 2)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국가수준에 힘겨운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것의 대부분은 고도기술이 축약된 장비를 획득하고 유지하는데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그들 중 대부분은 상존하는 분쟁하에 있기 때문에 방어구조상 융통성이 결여된 상태의 군구조를 갖고 있음으로써 취약점이 크고, 기습에 노출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3) Richard K. Betts, Surprise Attack, 전사편찬위원회 역(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p. 13.
- 4) 이 부분은 Michale Walzer의 Just and Unjust War (N. Y. Basic Book)를 참조하였다.
- 5) 유엔헌장 제51조 참조
- 6) 지리전략적 측면의 논의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였다.
 - Michale Brecher, The Foreign Policy System of Israeli Yale Univ. press, 1972.
 - Edgar O'Ballance, The Third Arab-Israel War, London, Faber and Faber, 1972.
- 7) Chaim Herzog, The Arab-Israel War, Tel-Aviv, Steimatzky, 1985., p. 151.
- 8) 服部実, 인도-파키스탄의 14일전쟁, 동경, 원서방, 1973., p. 111.
- 9) Stephanie G. Neuman eds, Defense Planning in Less-Industrialized States: The Middle East and South Asia, Tronto, Lexington Books, 1984., p. 213.
- 10) Dean G. Pruitt, Recharad C. Snyder, Theory and Research on the Causes of War N. Y. Printice-Hall, 1969., 전쟁원인론, 서울, 국대원 안보문제연구소 역, 1980., p. 46.
- 11) Y. Harkabi Nuclear War and Nuclear Peace, Israeli Program for Scientific Translations Jerusalem, p. 43.
- 12) Ibid. pp. 43, 44.
- 13) 불란서의 금수조치로 Mirage III를 타기종으로 갱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 14) Carl Von Clausewitz, On War: eds and Trans by M. Howard and p. Paret,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6., p. 87.
- 15) Ibid. p. 149.
- 16) Ibid. p. 128.
- 17) B. H. Liddle Hart, On Strategy; 전략론, 강창구역, 서울, 병학사, 1978., p. 358.
- 18) 앙드레 보프르, 전략론, 안보총서 3(서울; 국대원, 1975.), p. 16.
- 19) 1950. 6. 25. 북한의 남침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의 사례가 있다.
- 20) 주간국방 제84-42호, 한국국방연구소, 1984. 7. 30.

日本の 防衛力 增強實態와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

대위 정 주 석

(제3526부대)

1. 序 論

第2次大戰後 美國의 對日占領政策의 하나가 日本의 非軍事化였다 함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러나 1950年 북괴의 南侵에 의한 韓國戰爭은 日本의 非軍事化에 修正을 가하는 決定的인 계기가 되었으며 國內治安維持를 目的으로 警察予備隊가 創設되었던 것이다.

이 予備隊는 1954年 自衛隊로 탈바꿈하고 日本의 獨立과 平和를 維持하며 國家安全을 보장하는 防衛力이 되었다.

日本의 自衛隊는 처음부터 對內外的으로 관심의 對象이 되어 있는 가운데 成長하여 오늘날 核保有國家를 除外한다면 在來式 通常戰力의 側面에 있어서 相當한 水準에 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美國은 아시아 太平洋地域에 있어서 日本이 役割分擔함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防衛力을 保有하고 있지 못하다는 意見이었다. 즉 美國은 日本이 이 地域의 安保를 위하여 좀더 많은 防衛費 책정이 필요하다고 主張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日本의 실천을 要求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日本은 諸般與件, 特히 國內事情을 감안하여 現水準의 防衛費로도 그들의 責任을 다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美·日兩國의 見解의 차이는 심각한 마찰로까지 에스컬레이트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가 소내政權의 출범 이후 歷代 어느 首相보다도 積極적인 防衛費 增加에 의해 이러한 마찰은 해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役割增大가 이룩되고 있다.

全世界가 多元化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共產圈과 自由陣營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國土가 分단되어 있는 우리나라로서 인접국

가인 日本의 軍事的 움직임이 우리나라의 安保와 統一問題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며, 특히 日本의 軍備強化는 언제나 우리나라의 安保問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중요한 歷史的 敎訓이 있다.

따라서 本 小考는 일차적으로 日本의 對 東北亞 및 對韓半島 軍事戰略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日本 防衛力增強의 배경과 실태를 파악하여 이것이 韓國安保에 미칠 영향이 어떠한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日本의 對東北亞 및 對 韓半島 軍事戰略

가. 軍事戰略의 變遷

日本은 4面이 바다인 海洋國家의 特殊性으로 因하여 그들의 生存을 爲한 基本戰略으로 때로는 大陸으로의 進出을 위한 北進策과 때로는 南方地帶의 資源獲得을 爲한 南進策을 根本적으로 追求해 왔다. 旧日本 時代인 1868年 明治建軍 以後 大東亞戰爭까지는 日本은 假想敵國을 노서아로 하여 軍備의 重點을 守勢를 위주로 한 연안防衛에 두었으나 露·日戰爭 以後 帝國 國防方針을 守勢에서 攻勢로 전환하였다. 即 明治 39년에는 노·일戰爭 結果 日本의 領土가 확대되어 大陸經營의 必要를 생각하였기 때문에

攻勢作戰에 依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이다¹⁾. 또한 1936年 昭和 國防方針에는 比較的 明確하게 政策과 戰略이 区分되었으며 現代化된 軍으로서 整備를 갖추기 위한 政策과 戰略을 수립하였고, 領土擴張을 위한 攻擊戰略으로 轉換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第2次 世界大戰 以後 日本은 國防目的을 直接 및 間接侵略을 未然에 防止하고 만일 侵略이 있을시 이를 배제하며, 民主主義를 기조로 하는 日本의 獨立과 平和를 抑制하는 專守防衛 戰略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70年代에 와서 소련의 極東 위협증대와 對內的인 民族主義性向은 물론, 고도로 발달된 科學技術과 세계 第2의 經濟力을 바탕으로 積極的 守勢戰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1976年 10月 29日 防衛力整備의 指針으로서 “防衛計劃의 大綱”이 國防會議 및 閣議 決定에 의해 策定이 되는데, 여기에서 “侵略의 未然防止”라고 하는 側面과 “侵略對處”라고 하는 두 가지 側面의 새로운 방위개념이 提示된다.

即, 侵略의 未然防止를 위해서는 “日本 스스로 적절한 규모의 防衛力을 保有하고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運用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고, 동시에 美國과의 안전보장체제의 信賴性 維持 및 원활한 運用태세의 整備를 도모함으로써 如何한 樣態의 侵略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위체제를 構成한다”는 것이며 또한 核의 威脅에 대해서는 美國의 核

군사지식

抑止力에 依存한다는 것을 大前提로 하고 있다.

한편 侵略對処에 있어서 “限定的이고 小規模인 侵略에 대해서는 原則적으로 獨力으로 排除하는 것으로 하고, 侵略의 규모, 樣態 등에 따라서 獨力으로 排除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도 모든 方法에 의한 강인한 抵抗을 계속하고, 美國으로부터의 協力을 기다려서 이를 배제한다”는 것으로서 현재 '80年代의 防衛概念으로 存在하고 있고 또한 日本의 軍事政策 戰略의 基本前提가 되고 있다.

나. 對 東北亞 戰略

日本의 對 東北亞 戰略의 基本은 對美關係에 基調를 두고 對蘇 軍事的 위협에 效果的으로 對処하는데 있는 것이다. 日本이 東北아시아에서 차지하는 經濟的, 政治的, 軍事的 重要性만큼 그 이해관계도 多樣하고 重大하다. 예를 들어 東北亞 安定을 위한 세력균형, 日本의 安保 및 經濟發展을 위한 美國과의 關係維持, 東北亞 經濟開發 參與, 그리고 東北亞에서의 영향력증대 등이다.

이러한 관계를 基礎로 하여, 日本은 短期的으로 美·日 安保條約에 기조를 두고 美·日·中共의 對蘇 연합체제를 強化하여 對蘇 威脅을 배제하고 美國의 핵우산 保護下에 經濟우선정책을 계속 追求하여 自國의 国力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東北亞 地域에서의 安定을 도모하고 北方領土 解決을

위한 對蘇外交를 強化하는 한편 中共과의 經濟的 紐帶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다.

다. 日本의 對韓半島 戰略

韓·日관계의 歷史的 關係를 볼 때 日本은 그들이 積極性을 갖게 되면 韓半島를 하나의 勢力 신장기지로 利用하고자 하였고, 오늘날과 같이 대륙으로의 진출이 거부된 상황하에서는 근본적으로 소극적인 정책을 추구하여 大陸勢力의 위협에 대한 방위진지로서 戰略的 이익을 追求하여 왔다.

오늘날 平時의 日本의 對韓軍事問題에 대해서는 國內의 合意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東北亞의 세력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美國·蘇聯·中共의 태도와 韓半島의 안정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北韓의 반응을 감안하여 유연한 政策을 선택할 것이다. 이에 따라 日本이 취할 對韓半島 軍事政策·戰略은 다음의 다섯 가지를 중점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²⁾.

(1) 韓半島의 긴장완화와 現狀維持를 위한 安保外交努力

日本의 가장 기본적인 對韓半島 利益인 韓半島의 긴장완화와 現狀維持를 위해 日本은 은밀하고 신중하게 活動하고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첫째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美國에 종용하고 說得할 것이며³⁾, 둘째는 日本의 한국안보에 관한 公開的인 관

심을 漸進的으로 強力히 表明하게 될 것이며, 세계는 韓半島 현상유지를 위해 두 개의 韓國을 現實化시키기 위한 對北韓接近을 慎重하게 모색할 것이며 끝으로 日本은 北韓의 全面南侵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韓國軍의 強化를 원하고 있으나 核武装이나 압도적인 對北韓優位能力的 確保는 또 다른 불안의 요인이 된다는 판단 아래 이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表明하게 될 것이다 4).

(2) 直接的인 對韓 軍事協力の 排除

첫째로 日本은 美·日 安保條約이 쌍무적인 군사동맹관계에 있자 않기 때문에 현단계에 있어서는 韓國을 포함한 여하한 國家와도 직접적인 軍事同盟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둘째로 韓國과의 軍事協力は 가능한 限 選別的으로 美國을 경유하는 방식을 모색할 것이며 셋째로 日本의 정부기관 및 自衛隊가 수집하는 군사정보도 美國을 통하여 提供될 것이다.

(3) 韓半島 軍事情勢에 관한 정보수집 努力의 強化

韓國安保에 대한 관심증대와 병행하여 日本은 韓半島의 군사정보에 관한 정보관단자료의 수집활동을 強化해 나갈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日本은 첫째로 군사교류의 확대, 둘째로 陸大를 包含한 教育派遣을 추진할 것이며, 셋째로 武官機能 및 活動의 強化를 追求할 것이다.

(4) 間接的이고 은밀한 海軍協力の 摸索

蘇聯의 極東地域에서의 海軍力強化에 따른 스스로의 필요성과 美國의 강력한 중용에 따라 現在에도 추구하고 있는 海·空域의 境界 및 監視地域의 広域化와 이에 대한 活動強化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에 따라 日本은 다음과 같은 한국과의 海軍分野에 있어서의 協力을 은밀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모색하고 확대해 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遠洋訓練艦의 相互訪問으로서 初期에는 海士訓練艦의 訪問과 같이 非軍事的이고 儀典的인 側面에서의 交流形式을 밟으려 할 것이다. 둘째로 海軍人士들과의 접촉 및 交流의 追求이다. 세계는 소련 및 북한 함정의 활동에 대한 情報交流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初期에는 美軍을 經由하는 형식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5). 끝으로 日本의 해상자위대와 한국해군과의 合同訓練에 관한 것으로 兩海軍의 合同演習은 회피할 것이나 이것이 美海軍의 主管下에 실시될 경우에는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日本 防衛力 增強의 實態

가. 自衛隊의 存立과 基本性格

1950年 自衛隊의 創設은 크게 對內外的인

군사지식

必要性에서 의미를 가진다. 对内的인 필요성은 1950年 6月 韓國戰爭의 勃發이 그 계기가 되었으며 韓國戰으로 인해 駐日美軍이 빠져나가고 그에 따라 日本国内的 治安維持가 긴급하게 되어 創設을 보게 된 것이다.

1947年 요시다首相 이래로 日本政府는美·蘇간의 紛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를 가졌으며, 따라서 日本이 자체의 軍事的 安保를 美国에만 의존한다든지, 中立的으로 되어서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⁶⁾. 당시 정부수뇌들은 蘇聯이 일본내 共產主義者들을 선동, 지원하여 暴動을 일으키게 하거나 혹은 흑카이도를 통한 日本北部地方을 위협, 공격함으로써 美国과의 結束을 포기케 하여 日本을 社会主義陣營으로 끌어 들일려고 한다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

이에 요시다首相은 日本外部的인 安保는 美国의 海·空軍力 우세로 인해 소련이 공격을 억지할 수 있다고 보고, 軍과 유사한 경찰예비대를 창설한다면 内亂정도는 제압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对外的인 필요성은 美国에 의해 제기되었다. 中国大陸의 共產支配와 소련의 존재는 極東아시아에 있어서 日本의 戰略的인 位置를 크게 부각시켰으며, 또한 2次大戰의 終結 이후 美軍政도 끝남에 따라 1951年 美国을 포함한 48個国의 調印에 의해 日本平和條約이 체결되었다. 이 條約締結로 日本은 다시 独立國임을 인정받았다.

이어서 체결된 美·日安保條約은 성격상 美·日관계를 敵對關係로부터 同盟關係로 전환시키는 의미를 가지며, 韓國戰爭이 계속되는 가운데 日本은 美国으로 하여금 美軍을 日本 및 주변에 배치함으로써 自國의 安全을 보장케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美·日安保條約의 체결은 이러한 日本의 要請을 수락하는 前提로서 日本이 자체방위를 目的으로 한 軍事力強化를 제시하고 이를 추진키로 한다는 美国의 決議를 표명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美·日安保條約은 1952年 4月부터 구체적인 効力を 발생하였으며 同年 8月 경찰경비대가 自衛隊로 명칭을 바꾸고 1954年 7月에는 自衛隊法과 防衛庁設立法案이 마련되어 日本의 防衛体制 정비는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自衛隊의 基本性格을 살펴보면 自衛隊의 任務를 규정한 自衛隊 第3條는 『日本의 平和와 安全, 獨立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 및 간접침략에 대하여 國家를 방위하는 것을 主任務로 하며 필요에 따라 公共의 질서를 맡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自衛隊의 출동범위는 同法 第76條에서 『內閣總理大臣은 外部로부터의 무력공격의 위험이 있을 경우나 무력공격시 國家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国会의 승인을 얻어 自衛隊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동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⁷⁾.

〈表 1〉

| 구 분 | 1 차 방 (’58~’60년) | 2 차 방 (’62~’66년) | 3 차 방 (’67~’71년) | 4 차 방 (’72~’76년) |
|------|---------------------|---------------------------|--|-----------------------|
| 목 표 | 공간 방위력 정비 | 국지전 대처능력 확보, 장비근대화 기동력 증강 | 국지전에 대비한 최고도 유효대응력 확보, 통합전력화, 장비국산화 (일부) | 전략수세능력 확보, 장비의 완전 국산화 |
| 소요예산 | 13억달러 | 39억달러 | 65억달러 | 162억달러 |

(자료 : 육대 전략예습교재 128p)

나. 防衛 整備計劃

日本은 1957年 5月 閣議 議決에 따라 國防에 관한 基本方針을 制定하고 防衛力 整備計劃을 수립하였다. 基本方針內容은 UN의 活動을 지지하고 國際的 協調를 도모하며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戰爭時 安全과 愛國心의 고양으로 국가 安全保障 기반을 확립하고 自衛를 위해 必要한 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防衛力을 점진적으로 정비하며, 外部 侵略時 UN에 의한 沮止機能 발휘시까지 美国과의 안보체계를 基調로 이에 대처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設定된 基本政策은 平和憲法上의 專守防衛에 局限하고 非核 3原則을 견지하는 등 扎实的 방위력 정비에 노력하는 것이며 美·日 安保体制의 원활한 운

영과 社會保障, 教育문제 등 종합 안전보장 政策을 추진하는 것 등이었다.

(1) 防衛力 整備 增加추세

(가) 1次~4次 防衛力 整備計劃

(나) ’77年~’79年

이 기간에는 “防衛計劃의 대강”(1976. 1. 29 國防會議 및 閣議決定)後 그에 의거 단년도 整備計劃을 작성하였으며 이 기간에는 노후화된 주요 장비에 우선권을 두고 防衛力 전체의 向上을 도모하였다.

(다) 第5次 防衛力 整備計劃(’80~’84)

“防衛 諸計劃의 作成 등에 관한 訓令”(1977. 4)에 기초를 두고 주요사업에 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래의 방향을 설정해 둘 必要性에 따라 “防衛計劃의 대강”의 테두리 안에서 “중기업무전적”(1979. 7)을 작성하였다. 기간 중 整備重點은 기간部隊의 早期

군사지식

整備, 裝備 近代化로 陸上自衛隊의 火力과 機動力을 향상시키고 海上自衛隊의 對潛, 對艦, 對空能力을 향상시키며 航空自衛隊의 요격전투력, 저공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전반적인 개전能力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以上과 같은 과정을 거쳐 증강되어온 日本의 軍事力 수준은 陸上自衛隊가 兵力面에서는 세계 26位이나, 海上自衛隊는 保有艦艇屯數에서 세계 5位, 航空自衛隊는 航空機台數에서 세계 5位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국방비도 GNP의 0.9% 밖에 안되나 그 절대액에 있어서는 세계 8위를 점하고(表-2) 있으며 이는 국방비 전체액수면에서 韓國에 비해 約 2.5배나 되는 규모이다.

以上의 일반적인 군사력 수준은 어디까지나 量的인 면에서의 軍事力으로서 평가된 것이지만 보다 더 客觀的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保有戰力의 質的인 면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였을 때 日本의 軍事力은 그 以上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다. 防衛力 增強의 要因

“安保無賃乘車”(Free-Ride Security)라는 安保政策을 유지하여 경제성장과 富의 축적을 즐기며 軍事費의 1% 증액을 터부시하여온 日本이 최근 들어 “防衛費의 1% 증액에 대한 美國의 압력과 防衛政策의 全面 수정

의 必要性을 주장하는 일부 여론에 편승하여 軍事力을 점차로 增強하고 있다⁸⁾.

日本의 防衛力增強에 직접 작용하는 要因으로서는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日本의 国内的 要因, 둘째, 蘇聯의 軍事的 위협, 셋째, 美國의 對日要求이다.

(1) 国内的 要因

오늘날 日本의 政당에 따라 부분적인 立場의 차이는 있으나 共産黨을 제외한 모든 政당이 憲法 第9條의 制限事項에도 불구하고 自衛隊의 存在를 사실상 認定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自衛隊의 增強과 美·日 安保條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있다는 것이다⁹⁾.

“明治以來 日本의 軍事化를 推進하여 온 힘은 外部로부터의 위협을 名分으로 하는 체제 내부의 주도권쟁탈전에서 연유”하고 있는데 어느 국가간 간에 “國防力增強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집단은 軍隊組織”으로서 日本에서도 軍部는 주변의 諸政세를 들어 軍備強化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要求를 가장 환영하는 집단은 日本의 財界 특히 軍需産業界이다. 歷史的으로 財界는 防衛에 대하여 강력한 입장을 취했고, 国力에 상응하는 방위체제의 確立과 自主國防体制의 구축을 주장하였으며, 또한 무기의 自給自足과 戰略政策의 基本目標를 문제시하여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防衛政策의 確立을 강조해

〈表 2〉 상위 20개국의 국방비(1982년도)

| 국명 | 추정 순위 | 국방비 (억단) (1982년도) | 1인당 국방비 (천단) (1982년도) | 국방비대 세출 예산비 (%) (1982년도) | 국방비대 GNP 비 (%) (1982년도) |
|---------|-------|----------------------|--------------------------|-----------------------------|----------------------------|
| 소련 | 1 | 불명 | 불명 | 불명 | 불명 |
| 미국 | 2 | 490,091 | 211 | 27.0 | *6.5 |
| 서독 | 3 | 71,021 | 115 | 28.2 | *4.1 |
| 사우디아라비아 | 4 | 67,549 | 698 | 29.6 | 17.7 |
| 영국 | 5 | 60,645 | 109 | 11.4 | *5.3 |
| 프랑스 | 6 | 56,216 | 104 | 18.1 | *4.2 |
| 이란 | 7 | 38,422 | 96 | 46.9 | 14.2 |
| 일본 | 8 | 25,861 | 22 | 5.2 | 0.9 |
| 아르헨티나 | 9 | 25,208 | 88 | 불명 | 불명 |
| 중국 | 10 | 23,623 | 2 | 15.8 | 4.2 |
| 이태리 | 11 | 22,689 | 40 | 5.9 | *2.6 |
| 이라크 | 12 | 20,286 | 145 | 불명 | 불명 |
| 동독 | 13 | 18,251 | 108 | 8.4 | 3.7~6.5 |
| 이스라엘 | 14 | 17,170 | 427 | 44.6 | 35.7 |
| 폴란드 | 15 | 15,561 | 43 | 7.1 | 3.6~4.0 |
| 캐나다 | 16 | 15,431 | 63 | 9.8 | *2.1 |
| 인도 | 17 | 13,868 | 2 | 27.6 | 3.3 |
| 오스트레일리아 | 18 | 12,550 | 83 | 10.1 | 3.2 |
| 스페인 | 19 | 11,305 | 30 | 14.3 | *2.5 |
| 오ランダ | 20 | 11,142 | 78 | 9.0 | *3.3 |

출처 : Military Balance (1984~1985)

군사지식

왔다¹⁰⁾.

防衛力增強을 促進시키는 또 하나의 国内的 要因은 新國家主義理念의 擡頭와 日本 外務省, 防衛 등의 전문관료들의 世代交替를 들 수 있다. 새로운 세대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민감하여 美国이 계속해서 外人部隊 役割을 해줄 것으로는 믿지 않고 있으며, 日本이 더욱 積極的이고 独自の 安保政策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¹¹⁾.

(2) 蘇聯의 軍事的 威脅

日本国内人士들이 들고 있는 日本의 軍事力增強主張中 가장 큰 理由와 하나는 계속되는 소련의 對아시아·西太平洋 軍事力增強이다. 즉 日本은 소련이 그들 주변지역에 있어서 “質·量 兩面에 걸쳐 一貫된 軍事力の 增強을 실시하고 있으며 日本에 대한 潛在的 위협을 增大시키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더우기 “北方 四個島에 배치한 소련의 兵力은 상당한 기동력과 火力을 보유한 사단 규모로 발전되었으며, 海洋에서 極동소련해 軍作戰과 「베트남」의 「다낭」과 「캄란」만에 있는 항구의 사용이 배가되었으며 “約 85機의 「백파이어」폭격기와 約 162基 以上の S-S-20 「미사일」이 日本의 射程圈內에 전개되어 있다”¹²⁾.

以上の 極동소련軍의 증강과 직접적인 軍事威脅은 日本의 軍事力을 增強하는데 作用

하는 主要因이라고 보는 것이다.

(3) 美国의 對日要求

日本으로 하여금 自主的 防衛政策과 이에 따르는 軍事力增強을 촉진시킨 또 다른 要因은 美国의 役割減少에 따른 日本의 分擔을 要求하는 것이다.

1969年 「닉슨독트린」 발표 이후 美国이 「아시아」地域에서 軍事的인 힘을 減縮시켜 나갔는데 「아시아」지역에서의 美国의 後退는 美国에 대한 信賴性을 감소시켰으며 自主的인 安保意識을 提高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81年 美国의 「레이건」行政府가 登場하여 對蘇軍備強化政策의 一環으로 日本의 防衛役割增大 要求를 일층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日本은 軍事力 增強要求를 감수해야 할 立場에 처하게 된 것이다.

日本은 美国의 이러한 要求를 “國益追求라는 積極적 次元에서 받아들여야 하고 있음”¹³⁾이 최근의 추세이다.

以上の 日本의 国内的 狀況과 蘇聯의 威脅, 美国의 對日 防衛分擔要求는 日本의 軍事力增強을 더욱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4. 日本의 防衛力 增強이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

오늘날 日本의 軍事力 增強에 관해서는 對外的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事實이며, 日本 軍事力增強이 國際的으

로 미치는 영향을 볼 때 美國의 淸아시아 防衛부담을 감소시키고 東北亞에서의 淸蘇 견제역할을 가능케 할 것이나 한편으로 日本의 軍國主義 復活에 따라 주변국가들 또한 軍事力 경쟁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

日本이 韓半島를 자신의 安保와 관련지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60年 美·日 安保條約이 체결된 이후로 봐야 한다. 1969年 11月 21日 「닉슨·사토」공동성명에서 『韓國의 安保는 日本安保에 매우 重要하다』라고 선언했으며, 1970年 3月 21日에는 사토首相이 『한반도의 有事時 日本憲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日本人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自衛隊를 파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日本의 淸韓認識은 1975年 「포드·미키」공동성명에 이르러 『韓國의 安全은 韓半島의 평화유지에 重要하며 韓半島의 평화유지는 日本을 포함한 東北亞의 平和와 安全에 重要하다』는 이른바 「新韓國條項」으로 변형되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日本의 淸韓安保認識은 첫째, 日本으로서 韓國安保가 日本安保에 절대적인 前提가 되지 않는다는 原則論을 확인하는 것이며 둘째, 韓國防衛에 대해서는 日本이 美·日 安保條約상의 기본적인 협력체제유지의 범위 내에서 美國에게 협조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日本이 자체의 防衛를 韓國의 防衛와 연관시키는 경우 軍備부담은 물론 反戰 여론을 자극하게 되고 더우기 共產勢力의 불필요한 적대의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日本의 淸韓安保認識은 防衛力增強과 관계없이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超強大國으로서의 美·蘇와 強大國이자 潛在的 超強大國으로서의 日·中이 유럽과 아시아를 각각 균형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면 長期的 眼目으로 볼 때 日本의 防衛力增強은 韓國安保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韓國安保의 一次的인 課題는 첫째, 韓國의 경제성장 및 國防力 強化를 日本의 그것과 어떻게 調和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와 둘째, 日本의 防衛力增強을 北韓이 共產陣營을 결속하는 계기로 이용치 못하게끔 하는 것에 焦點을 모아야 할 것이다.

5. 結 論

日本의 防衛力增強은 크게 나누어 ① 憲法 第9條에 관한 해석상의 伸縮性과 그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여론 動向 ② 軍部 및 經濟界의 필요성에 입각한 增強論 主張 ③ 국제정세적 諸要因 등이 防衛力의 強化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

군사지식

으로 분석되었다. 즉 防衛力增強에 대하여 긍정적인 對內的 要因이 소련의 極東軍事力 強化, 中共의 現代化 推進 등 對外的인 주변정세의 변화와 결합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日本의 防衛力增強은 보다 구체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美國의 世界戰略 및 對日政策과도 접근되는 것으로 日本의 防衛力增強은 그 기본성격상 美·日 共同防衛体制의 強化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日本의 役割強化도 이 범위 내에서 수행되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日本의 防衛力增強은 日本의 발언권을 한층 강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東北亞 세력균형과 韓半島安定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지만,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日本의 防衛力增強과 美·日·中共의 和解에 따라 소련의 對韓半島政策은 긴장조성

또는 완화 등의 兩者択一式 選擇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현실로 보아서 韓國은 長短期對策을 강구해야 하는데, 基本前提가 돼야 할 것은 첫째, 현재의 경제성장과 國防力 強化를 계속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강한 勢力이 존재하면 자신의 힘도 강해야 하는 것이 국제정치학의 교훈이다. 힘 사이의 완충지대도 존재할 수 있겠으나 남북분단이라는 한반도실정과 戰爭抑止의 필요성은 어느 누구보다 韓國에게 절실한 것이다. 둘째, 對美, 對日協力관계의 적극적인 강화이다. 이에선 國內政治, 外交, 經濟, 軍事安保 및 對韓輿論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협력강화의 強化策이 모색되어야 한다.

— 註 解 釋 —

- 1) 軍事企劃制度: 국대원(1979)
- 2) 金宗輝, 日本의 군비증강 전망과 가능한 韓國軍事協力관계, 정책연구보고서 81-9(국대원 안보문제연구소)
- 3) 金徹凡, 日本의 對韓安保協力 可能性 分析, 政策研究報告書 '82~6, 통권 제41호, p. 46.
- 4) 朝鮮日報, 1986年 9月 18日字, 4面.
- 5) 朝鮮日報, 1986年 9月 6日字, 4面.
- 6) 국통정 78-12-1483, p. 53.
- 7) 韓相一, “戰後 日本의 防衛政策”(國際政治論叢 第15輯, 1975), p. 185.
- 8) 白奉鍾 “日本의 再武装, 어디까지 왔나”, 國際問題 1980. 10. p. 26.

- 9) 國際政治論叢, 第21輯 1980, pp. 115~131 참조.
- 10) 韓培浩外, 日本政策決定의 해부(서울: 正音社, 1984), p. 193
- 11) 韓培浩, 前掲書, pp. 194~197.
- 12) 每日新聞, 1986年 8月 8日字, 2面.
- 13) 金秀雄, “日本の復古主義 思潮 발전방향과 파급효과”, 月刊政策研究 第64호('84. 7), p. 51.

〈参 考 文 献〉

1. 自由公論, 日本「재무장론」과 東北亞, 1982. 9.
2. 國際研究 第24권 2호 外 5권(国大院)
3. 崔敬洛·曹喜完, 韓·日關係論·서울: 大旺社, 1985.
4. 安全保障理論(I), 国防大学院 参考書誌, 1984.
5. 韓培浩外, 現代日本の 解剖·서울: 正音社, 1984.
6. 韓培浩外, 日本政策決定의 解剖·서울: 正音社, 1984.
7. 統一政策 第6권 3호(1980): 日本の 防衛力논쟁 및 韓半島에 미치는 영향.
8. 陸大軍事評論 第233호: 日本の 軍備增強과 대비책.
9. Military Balance (1981~1982)

蘇聯 外交行態와 對蘇 接近摸索

이 상 선

〈중위·제3578부대〉

1. 서 론

국가간의 교섭, 서로간의 이익조정, 심지어 전쟁까지도 외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국이 타국과 외교관계를 맺을 때, 혹은 외교정책을 수행할 때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선행조건은 상대국의 외교형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국의 여건이나 전통 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자국의 외교정책만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마찰과 잡음, 심지어 전쟁까지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유우방국들과는 순조롭고 자연스런 외교관계를 맺어왔고 상대국의 습성, 전통 등에 비교적 관심을 쏟고 연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산권국가가 특히 소련에 대해서는

그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며 실무자선에서도 전혀 소련에 대한 외교습성,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물론 그러한 외교행태를 결정짓는 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더욱 소련과 공식적 비공식적 접촉이 다분할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이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2. 蘇聯의 外交行態 및 交涉 習性

소련의 외교행태나 교섭의 습성은 소련과 가장 많이 협상과 교섭을 통해 외교적 접촉을 가진 미국의 외교관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미국 외교관들이 발표한 내용을 약술해 보았다.

가. 一般的 觀察

미국 무기통제 및 군비축소국장(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이며 협상전문가였던 Fred C. Ikle 박사는 1977년 1월 4일의 상원외교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협상을 위한 초안을 작성할 때는 정확하고도 분명한 어휘를 사용해 소련인들에게 악용당하지 않도록 정확한 문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상세하고도 세밀한 본문이 없이는 무엇을 협정했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장차 해석상의 논쟁에 빠질 우려가 있다. 조약문의 어휘사용에 대한 소련측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항상 어려운 투쟁을 해야 한다.

……소련은 항상 상대방에게 대화와 제안의 이니셔티브를 준 후, 그 제안에 대해 수락할 여지가 없는 반대제안을 하는 방법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끝에 가서는 이쪽이 혼자서 자기끼리 협상을 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종용하는 경향이 있다. 1975년 가을부터 1976년 초봄 사이에 미국은 크루즈 미사일과 백파이어 폭격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5가지의 상이한 제안을 했으나 소련은 계속해 반대를 고수했다. 결국 미국은 소련에게 미국이 지칠 때까지 소련이 기다릴 수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너무 많은 제안을 했던 것이다.

……소련은 옛날 Litvinov외무상의 시장 흥정식의 낡은 수법을 전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든 협상에 있어 정확한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 모든 협상에 있어 소련은 항상 일방적인 자기 이익만 주장하기 때문이며 이는 SALT 회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SALT의 초기협상에서 미국이 해외전진기지에 설치해 놓은 핵장비에 대응하기 위해 소련은 더 많은 전략무기를 보유해야만 한다고 소련은 메를 썼고 이는 블라디보스톡협정에서 최종적인 타결을 보았다. 동 협정에서는 상호 동등한 공격용 핵무기보유의 원칙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곧바로 크루즈 미사일과 백파이어 폭격기 협상에도 적용되었다. 즉, 소련은 처음부터 과도한 요구를 내세웠다가 후에 이 요구를 후퇴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그 댓가의 보상을 받으려는 낡은 시장흥정식 외교전술을 쓰고 있다』

나. 具體的 觀察

「카터」행정부의 초기 SALT-Ⅱ 회담의 재개설이 대두되었을 때, 당시 삼국관계 위원회의 의장이었던 「제랄드 씨. 스미스(Gerald C. Smith)」대사는 소련과의 회담을 앞두고 새 대통령 「카터」에게 다음과 같은 10개의 원칙을 제시하며 소련과의 협상에서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

군사지식

체화하였다.

첫째 원칙으로서 정상회담을 너무 갈망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협상장소를 소련 내로 양보함으로써 그들이 지역적 사정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스미스」대사는 말하였다.

SALT-I 회담을 모스크바정상회담과 연결시켜 함께 처리함으로써 시간적 타이밍이 좋지 않았고 SALT-I 회담 본질 자체에 손상을 입혔다고 그는 주장했다. 처음부터 「닉슨」대통령은 SALT-I 회담에 초점을 맞추어 정상회담을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1971년 회담계획이 좌절되었을 때, 소련인들은 조기타결에 별로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은 그들에게 유리했었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협상상의 고지를 이용해 협상에 의해 제한하기로 되어 있던 발사대의 수를 전략무기에 추가해 증가할 수 있게 했다. 「스미스」의 견해로는 1972년에 체결된 협정은 미국측이 소련측을 정확히 이해했더라면 1년 더 일찍 체결될 수가 있었다.

이 문제 밖에도 모스크바에서 회담함으로써 미국은 소련에게 홈코트의 잇점을 제공하였다. 전략무기처럼 복잡다단한 기술분야 문제를 놓고 협상한다는 것은 무척 난해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키신저」는 모스크바에서 자기가 때때로 누구와 만나야 할 것인지,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야 좋을지를

전혀 몰랐다고 「헬싱키」에 있던 「스미스」에게 전신을 보낸 일이 있다. 소련은 미국인에게 생소한 자국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항들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잘 터득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미·소 양국의 수도 가운데 한 곳에서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할 경우에는 가능한한 「워싱턴」에서 협상회담을 가지라고 「카터」대통령에게 「스미드」는 충고하였다.

「스미드」대사는 두번째 원칙으로 이원적 협상체널을 피하라고 충고하였다. 즉 하나는 협상테이블에서의 협상대표단의 회담이고 다른 하나는 백악관이나 크레믈린궁에서의 고위관리들의 회담인데 이 두 가지 회담체널을 함께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ABM망에 관한 협정은 격이 낮은 협상사절들 간의 회담에서 1972년에 합의되었으며 새로운 공격용 미사일에 대한 잠정적인 동결은 대체로 격이 높은 고위관리들간의 회담에서 합의되었다. 전자의 회담은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가 충분한 의견교환을 한 기록을 갖춘 진중한 회담인데 비해 후자회담은 「닉슨」, 「키신저」, 「도브리닌」 주미 소대사와 소련지도층이 참여한 비공식적인 회담으로서 SALT 회담대표단을 위한, 적어도 미국대표단을 위한 기록조차 남겨 놓지 않은 그런 회담이었다. 그 결과 미국대표들은 어떤 때는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

는 경우가 있다고 「스미드」대사는 불평하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지휘하에 움직이는 단일협상체널을 활용해야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즉 복수체널을 사용하면 「그래샹」법칙같은 것이 적용되어 낮은 차원에서의 문제해결을 점점 어렵게 할 뿐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세번째 원칙으로서 소련과의 협상에서는 성급한 결과를 기대하지 말라고 「스미드」는 말했다. 회담의 진행속도가 늦은 것은 주로 체질화되어 있는 소련인들의 要秘密習性과 관료주의적 지연성 및 시간을 요하는 세심한 협상계획 때문이다.

SALT 회담에서 소련대표들은 적어도 非군인 민간인 대표들은 자기들의 무기체제에 대해서도 무척 한정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회담을 지연시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더구나 정치국을 제외하고는 소련 정부기관들 간에 정책조정기구가 없었다. 따라서 소련측은 이니셔티브를 먼저 취하기 보다는 미국측이 이니셔티브를 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보이는 것을 전통적인 그들의 협상형태로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회담지연 외에 미·소 양측대표들에게 부여된 폭좁은 자율권이 또 다른 회담지연 이유였다. 이로 인해 양측은 모국 정부와 여러 차례의 협의를 해야 하고 대사관에 모여 회합을 갖는 등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또한 협상대표 전체 회담을 위한 발언준비작업은 많은 인력의 소모를 요해 회담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대소 회담에서 성급한 결과를 기대함은 금물이다.

「스미드」는 네번째로 불공정한 제안이나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말라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는 SALT 회담에서 미국이 처음에는 미국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ABM 협정안을 내놓았다가 끝에 가서는 각측이 공히 2개 기지라는 협정에 도달했던 사항을 예시하면서 이 문제를 위해 경과된 시간을 소련측이 더 선용한 결과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현명한 일이 못 된다고 경고하였다. 1969년 「헬싱키」에서의 SALT 예비 회담에서 미국이 소련과의 대화촉진을 위해 도해적인 조건들을 내놓은 것은 유효한 테크닉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예시였지 제안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협상이 진행되면서 ABM 제한에 관한 여러 개의 대안들을 제안함으로써 소련측으로 하여금 그들이 어떤 선택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주장할 만한 근거를 허여했다.

그리하여 그들의 선택이 미국정책과 상충되었을 때 혼동과 지연이 야기되었다. 이 때문에 협상은 학술세미나가 아니며, 우리가 반드시 지지하기로 결정한 분명한 입장을 협상테이블에 내놓아야 한다고 「스미드」는

군사지식

역설하였다.

그의 다섯번째 원칙은 소련의 상이한 협상스타일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인에게는 논쟁을 불러 일으킬만한 사실도 소련인에게는 한낱 스타일의 차이정도로 반영되고 있다. 많은 회담대표들에 의해 지적된 것으로써 미국인들이 특수한 기술적인 면을 강조하는데 반해 소련인들은 모든 일반적인 제안을 반드시 정치적 중요성과 연결시켜 생각한다.

소련인들에게 있어 무기제한문제는 기술분야로 연관되어 있을 뿐 어디까지나 국제정치적인 제1차적 의미를 지니는 반면 미국인들은 그것의 고도의 정치적 의의를 인정은 하지만 오히려 세력균형과 무기의 특성을 국제협정에 의해 조정하는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를 위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쪽에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스미드」의 여섯번째 원칙은 소련은 그 국가가 갖는 유리한 입장에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SALT 회담에서 보듯이 소련인들은 공개적인 정보원에 의해 미국의 전략무기의 배치장소 수와 향후 배치될 수를 알고 있으며 자신들의 전략무기계획 또한 잘 알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와는 반대로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는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향후의 발전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스미드」는 「그들

은 얼마나 많은 미국 미사일들이 다탄두를 부착할 것인지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MIRV(個別再突入多彈頭) 발사계획의 폭을 겨우 어림짐작하는 것이 고작이다」라고 말하였다. SALT-I의 협정에 의한 잠정적인 전략무기 제한협정으로 인해 미국은 겨우 1977년에 소련미사일의 총 수가 얼마쯤 되리라고 상세한 수치에 접근할 수 있는 형편이다.

일곱번째의 원칙은 미국이 불확실한 「새어나온 정보」에 지나치게 과장된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이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발언과 미국방위력에 대한 초라한 발언을 피하라는 것이다.

미국의 회담계획이나 행동방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는 오히려 미국언론에 누설된 내용을 통해 소련측에 넘어가는 형편이다. 백악관의 고위관리들이 회담기록을 안 남겨 SALT 회담대표들을 필요한 정보로부터 격리시켰던 사실도 其實은 워싱턴관리들이 기밀을 지키기 위해 입을 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스미드」는 말했다. 누설되었다거나 흘러나온 정보의 중요성은 보통 과장되기 일쑤였지만 사실상 누설자는 회담의 방향이 유리한 쪽으로 흐르게 되길 바라며 언론인들에게 작전상 그러한 정보를 주었을 뿐이라고 그는 인정하였다.

미국측이 SALT 회담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예견할 때마다 소련은 좀더 신중히 협

군사지식

상업점을 숙고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협정을 기대하여 서두르는 행동이 회담이나 협상에서 반드시 유리한 입장을 가져 온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 국방성의 제안이 회의의 인준을 받기 위해 미국의 대소국방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초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스미드는 말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발언은 대외적으로 미국의 이미지를 손상시켜 협상대표들이 소련인들과 회담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미드대사는 그의 여덟번째 원칙에서 일단 협상이 시작되면 그 협상진행에 누구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지도급 관리들은 회담전체가 결렬될 우려가 있는 극한 상황에만 회담진행에 간섭을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고위층회담에서 회담진행이 조심스럽게 취급된 것 이상으로 회담진행에 조심을 해야 한다고 「스미드」는 말하였다.

「스미드」의 아홉번째 원칙은 불만족스런 회담결과에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미드」는 SALT 회담이 회담쌍방에 주는 교육적인 기능을 강조하였다. 처음으로 소련의 민간인관리들이 핵무기계획과 같은 어렵고도 중대한 문제에 깊게 관여했으며, 쌍방의 관리들이 전략무기와 그 통제방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며 여러해를 보낸 것은 커다란 소득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SALT 회담이 갖는 특수한 가치 뒤에는 과정 그 자체의 커다란 가치가 있다. 장기간의 회담결과 전략적인 양국관계는 더욱 개선되었으며 협상을 더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마지막 열번째 원칙으로 「스미드」는 SALT 회담을 계속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무엇보다도 소련이 일단 협상에 응해 시작한 사실을 돌이킬 수 없는 진행과정으로 만들어 그들이 후퇴하지 못하고 회담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왜냐하면 소련과 대화와 협상이 없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보다는 여하한 형태로라도 회담을 갖는 것이 더욱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소련의 외교행태는 소련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모든 나라에게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한반도의 통일과 안보에 있어 이해관계가 깊은 소련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며 대소접근모색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그들과의 접촉을 시도함에 있어 절대적으로 소련인들의 교섭성과 외교적 특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 对蘇 接近摸索

국제정치에 있어서 그 구성요소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간의 관계는 복잡하고 어렵게 된다. 한반도를 圍繞한 4강국과 남·

군사지식

북한의 사정이 바로 그런 것이다.

세계는 5극화된 국제사회에서 미·소가 대결을 피하며 미·중공이 화해하고 중·소가 분쟁을 계속하며 서구와 일본이 계속 현재와 같은 親共的이기보다 친서방적인 노선을 걷는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다.

한편, 미·소가 화친체제를 깨뜨리고 다시 격렬한 적대행위를 하여 세계평화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조건을 설정해 볼 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실로 판단된다. 전후부터 1960年代 중반까지는 세계가 미·소를 양극으로 하는 동서진영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미·소간에 상당히 자유로운 행동결정이 가능했지만, 현재와 같은 다극체제의 국제정세 속에서는 그것이 무척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미·소의 무력대결의 위험은 특히 極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들까지도 위험 속에 밀어 넣는 결과가 되어 이 나라들은 각기 미·소에 압력을 넣어 현재의 화친책을 계속 유지하도록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현재의 국제정세가 한동안 계속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한국의 안보를 위한 대소접근의 모색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국제관계를 지배하는 주요요인들에 의해 분석해 봄이 좋을 것이다.

가. 勢力均衡의 原則

어느 나라든지 적대관계나 경쟁관계를 갖는 他국가들이 있게 마련이다. 이 때에 물론 자국 자체의 힘으로 이들을 견제할 수 있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대개의 경우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제3국과 우호동맹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국의 힘을 보충하여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견제하게 되는 법이다. 이것을 가리켜 세력균형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인접국은 자연적인 적국으로 될 가능성이 많게 마련이다. 「마키아벨리」나 인도의 「카틸리아」 등 전략가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인접국의 힘을 견제하기 위하여 인접국의 후방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에 이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분단된 현실 속에서 북한이 한국의 자연적국이 되는 것은 물론 인접국인 중공과 일본이 한국과 자연적으로 적대적 또는 경쟁적 관계를 가지게 된다.

한편 한국이 우호관계를 계속해야 할 나라들은 일본의 후방에 있는 미국과 북한과 중공의 후방에 있는 소련과 인도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이 세력균형을 구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까지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일이다.

군사지식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련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탐색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부터 소련이 아시아에 있어서 세력균형을 위해 일본의 힘을 제지하는데 인도의 힘을 빌리려 한 사실과 1971년의 인·파키스탄전쟁으로 인해 더욱 더 소련에 밀착된 인도를 통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며 소련의 미움을 사고 있지만 그런대로 소련이 곤란하고 까다로운 국제문제의 중개자로 생각했던 루마니아의 「초우세스쿠」같은 인물을 통해서 노력해 봄도 한국의 대동구 관계개선과 더불어 가능한 방법일 것이다.

한편 지정학적으로 북한도 한국의 입장과 비슷하여 소련과 우호관계를 강화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같은 공산국가들이기 때문에 더욱 긴밀한 협조관계를 굳히고 한국의 대소접근 노력을 방해해온 사실은 한국의 대소정책수행에 커다란 문제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하나의 전술적인 문제이고 대정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때 반드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유능한 정치가가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은 물론 꼭 따르고 있다.

나. 軍事力과 經濟開發의 原則

한 국가가 강력한 경제력을 갖게 되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하고 그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경제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즉 경제와 군사는 상호의존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원칙을 한국의 경우에 적용시킨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충분한 안보능력을 보유하는 일이다. 역사상 한 나라가 힘을 결여하고 있을 때는 외세의 농락을 받기 일쑤이고 희생물이 되기 쉽다. 아무리 現今 국제적으로 화해무드가 지배한다고 해도 공산주의가 근본적으로 침략적이라는 데는 아무런 변함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북한에서 한국을 무력으로 통합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힘의 배양이 극히 중요한 것이다.

한국이 인구의 수나 경제적 능력에 있어 북한보다 월등히 우수하다고 하지만 병력 및 장비 특히 공군력과 해군력에 있어서는 북한이 한국보다 2배 이상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공군력과 중장비에서 미국에 고도로 의존하고 있는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독자적으로 공군력과 중장비에 있어서 북한과 대등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잠재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군사지식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한국이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을 지양해야 하지만 미국의 원조없이 한국군의 충분한 장비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원조를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힘을 배양하는 정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의 원조를 받는 것은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소련과의 접촉으로 북한의 대남호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편도 병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소정책의 필요성은 여기서도 볼 수 있다.

다. 隣近國家間의 相互共同利益增進 原則

이것은 최근의 국제추세에 합치하는 말이지만 한 국가는 인접국가간에 상호공동 이익이다. 어느 일방에게만 유익한 일은 타방에서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공동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과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7·4 공동성명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어느 일방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쌍방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중공, 일본, 소련과도 공동이익

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정치에 있어서 공동이익에 토대를 둔 합의만이 준수 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한 합의는 단기적으로는 일방에게 유리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래 가지 못하고 곧 파기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언급은 곧 단기적인 목적도 중요한 것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제를 접근해 가야 함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에서 소련과의 접근은 어떠한 공동이익추구사업을 제안 합의하느냐 하는 문제와 함께 대소접근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라. 平等·互惠의 原則

국제관계는 주권과 평등 특히 호혜의 원칙을 준수할 때 원만하게 유지된다. 국제사회에는 경찰이 없고 또 강제력이 있는 사법기관이 없기 때문에 항상 1대1의 관계이다. 일방에서 나쁘게 하면 타방에서 보복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갑이라는 나라에서 을이라는 나라의 외교관을 추방하는 식의 관계가 성립된다. 이러한 예는 수년간 영국과 소련이 상호 외교관을 추방한 사실이다.

작은 나라에도 호혜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데 있어서는 그다지 큰 곤란이 없다고 볼 수 있을 때, 한국도 독자적으로 1대1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원칙과 遠親近攻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 북한의 뒤에 있는 중공과 손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할

군사소식

때 소련의 경우와는 좀 다른 문제가 있다. 중공은 북한의 뒤에 있다고 하지만 遠國이 아니라 한반도와 긴 국경선을 나눈 近國이며 자칫 잘못하면 한국은 중공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중공의 지배권 속으로 말려들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한반도의 긴장을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완화시켜야 한다는 단기적인 견지에서는 미·중공 화친에 힘 입어 중공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근거가 제시될지 모르나, 한반도가 역사상 장기간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온 사실과 대만무기 원조 문제로 미·중공 화친의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 사황을 고려할 때 한·중관계의 전망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를 더 많이 갖춘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이 소련과 동구 등의 나라와 접근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물론 미국과의 전통적인 우방관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중공과는 달리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에 그 영향력을 증대시키기가 더 용이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커다란 영향력을 이미 미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적인 협력은 좋지만 그것이 너무 심해져서 대일 경제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일본은 그것을 외교적 영향력으로 이용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한국은 대일관계에서도 신중성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해 볼 때 소련은 한국이 접근해야 할 최적의 국가로 판단된다. 이 경우 한국이 소련과 우호관계를 맺기 위한 어떠한 상호 공동이익의 토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토대가 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그 자체가 소련에 유익한 것이다. 소련으로서는 한국이 일본이나 중공의 영향권 밑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일관계나 역사적으로 경제적이고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소련으로서는 한국이 일본이나 중공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한·소 관계개선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양국간의 문화교류나 무역 또는 정부고위관리간의 상호방문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 중, 문화교류가 가장 가능성이 강하다고 하겠다.

4.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대소 접촉은 국제정치적 세력균형과정에서도 또한 한반도의 안보와 나아가 통일을 위해서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과 접촉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반드시 그들의 외교정책의 원리와

군사소식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사전에 그들 특유의 교섭태도 및 저의를 알아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전제조건이 구비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정책개발 및 도출을 위한 건의를 할 수 있다.

가. 외교적인 면

(1) 소련정부에 직접 한국고위층이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의 희망을 전달하거나 양국고위층의 상호방문을 제안한다.

(2) 위의 것의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인도 등의 제3국을 통해 제안을 하거나 한국의 외교부만 가 있고 북한의 외교부는 가 있지 않은 제3국의 소련대사관을 통해 제안한다.

(3) 대동구의외교강화와 더불어 소련의 경제 가운데도 중공과 외교를 하며 어려운 문제의 중재의 명수로 알려져 있는 루마니아의 「초우세스쿠」같은 인물과 접촉하여 제안한다.

(4) 사할린의 한국교포문제의 해결을 언제까지나 일본정부의 선처에 의뢰하지 말고 직접 해결의 노력으로 사할린에 한국연락부의 설치를 소련에 제안한다. 미·중공 국교 정상화 직전에 중공의 북경에 미국연락부를 설치했던 전례로 보아서 이를 제안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5) 여러가지 국제회의로 소련국민이 한

국을 방문할 경우 민간외교의 차원을 떠나 정부차원적인 호의와 배려를 아끼질 말아야 할 것이다.

나. 문화적인 면

(1) 소련·동구권의 최신자료를 수집하여 번역하고 시사적인 해설을 위한 정기간행물을 국내연구소가 발행하여 대비 적성국정책을 직접 연구하는 정부기관에 제공하도록 하여 향후의 대공산권 접근정책에 도움이 되게 한다.

(2) 학술교류를 위해 국내의 적당한 연구소들이 소련의 연구소 및 대학에 개별적인 학술자료 교환을 제안한다. 특히 어느 국가나 자국의 언어를 타국민이 학습하려 할 때 가장 협조하는 타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러시아어 학습자료부터 시작한다. 이 경우 소련내 다수의 동방학연구소들이 한국을 연구함에 있어 자원의 고갈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책을 우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출판된 한국학에 관한 서적들의 書誌目錄을 러시아어로 만들어 그들에게 보내야 한다.

(3) 대소관계의 개선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소련문제전문가들의 양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2개대학에서 러시아어만을 교육하는 차원을 넘어서 소련·동구 연구학과를 큰 대학들에 설치하고 많은 인원소를 입학시켜 언어, 문학, 정치, 사회,

군사소식

역사 등을 본인의 선택에 의해 전공하도록 하되 러시아어는 누구나 필수과목으로 수강하도록 해야 한다.

다. 經濟的인 面

(1) 연구전문기관을 통해 소련과 교역할 수 있는 상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양국 간의 교역을 제안한다.

(2) 시베리아개발에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기술 및 노동력을 연구·조사하여 소련에 제안한다.

이상의 제안들이 비록 소련에 의해 거절된다 하더라도 한국의 대소문화개방을 상대

방에게 분명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한국정부의 현실적이고도 집요한 태도를 소련에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크게 잃을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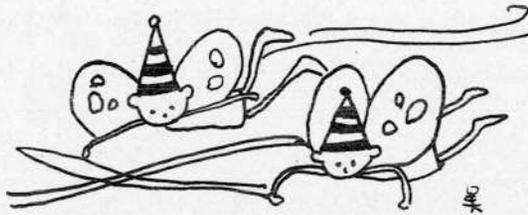
미국의 노련한 외교관 「스미드」대사의 충고처럼 소련과의 대화촉진노력은 절대로 성급한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집요하고도 고집스럽게 꾸준히 반복하여 위의 제안들을 지속해야 하며 그들의 비밀주의적 편향을 고려해 절대로 이와 같은 제안이나 그에 대한 소련의 반응 등을 언론은 보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Adda B. Bozemaam, Politics and Culture i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2. Fritz Ermath, Internationalism, Security, and Legitimacy : The Challenge to Soviet Interests in East Europe, 1964~1968, RAND Memorandum RM-5909-PR, (Santa Monica : The RAND Corporation, March, 1969)
3. George F. Kennan, "A Note on Russian Foreign Policy." Encounter, VO I XXXUI, NO. 2 (FEBRUARY, 1971)
4. Gordon A Craig "Techniques of Negotiation" in Ivo J. Lederer, ed. Russian Foreign Policy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62)
5. Karl Radek, "The Bases of Soviet Foreign Policy." Reprinted in Philippe Mosely, The Soviet Union, 1922~1962 : A Foreign Affairs Reader New York : Frederiek A. Praeger, Publisher, 1963)

군사소식

6. Louis J. Halle, The cold War as Histosy (New York Harper and Row 1967)
7. Quoted in Abram Tertz (Andrei Sinyarsky), "On Scialist Realism" Dissent vol. VII. NO. 1 (winter, 1960)
8. Richard Pipes, "Russia 's Mission, America 's Destiny, The Premises of U. S and Soviet Foreign policy, "Encounter, vol. XXXV. NO. 4 (October, 1970)
9. Smith, Geraid C. Negotiatiny with the Soviets. New York Times Megazine, Fed, 27. 1978.
10. Testimony of Robert Conguest, International Negotiations, Hearings before the Subcommittee on National Security and International Operations of the 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 V. S senate, 91st Congress, First Session Part I (Washington :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0)
11. V. 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and the Subcommittee on Arms Control, onean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United states/Soviet Strategic Options. Hearings, 95th COIG, 1st Session (Washington, D. C, V. S Government Prining Office, 1977.)



시

조 소 경 할 머 니

중 령 林 寬 栄

(제6751부대)

아이는 어머니 가슴에서 잠이 들고
새근 새근 잠이 들고
남편은 아카시아 꽃속에 꿀벌처럼
일을 끝 내고
단 꿈을 꾸고 있었지
아내는 남편 곁에서
콧숨을 들이어 보고 있었지
단란한 가정에 첫 딸을 낳고
둘째의 해산을 기다리고 있었지.

아아,
그러나 단란한 꿈은
돌연 찢겨져 나갔지.

경상북도 달성 동네 백서방댁

1940년 10월 16일
풀벌레 소리 가득한 밤에
아이들도 울음을 끝인다는
칼을 찬 순사들에게
남편은 끌려갔지
동생도 끌려갔지
붓짐도 없이
노자도 없이
목 축일 겨를도 없이
어머니의 당부도 없이
아버지의 격려도 없이
개처럼 끌려갔지.

—해방이 되어
마침내 해방이 되어도
남편은 오지 않았지
아니,
오지 못했지
凍土 사할린에서
29만 2천명 일본인들
속속 귀환을 해도
오지 못했지
조센징이라고 오지 못했지.

귀환선에

매어달리는 애잔한 목숨들

끌어내렸지

조센징이라고 끌어내렸지.

총알받이 보국대로 끌려갔다가

귀환선은 가고 오고 오고 가고

살아서 더 더 비탈진 생애

等外品이 되어 等外品이 되어

갯바람 마시며 주저앉았지

뱃길의 부두는 눈물로 젖었지.

— 남편 없는 시집살이

아, 어린 것들 데리고

빨아도 빨아도 배가 고프은 아기와

길가 풀밭에 앉아 목놓아 울었지

어두운 골목길 새도록 울었지

어린 것들 데리고

업어줘도 껏껏

안아줘도 껏껏

성치 않은 아기와

방물장수 나아갔지

식모살이 나아갔지

돌에 걸려 픽 픽 쓰러지는 아이와
타는 해 어지러운 땡벌속에서
공사판에 나아갔지

모진 곡예 45년
쪼그랑 할머니
할머니가 되었지.

아아, 우리들의 할머니
경상북도 달성 동네 백서방댁
조 소경 할머니
전설 같은 할머니!

—1981년 11월 27일

두손 모아 빌었지
가슴이 뻗듯하여
법정으로 갔지
찾고 싶어 찾고 싶어
잃은 꿈을 찾고 싶어
잃은 날을 찾고 싶어
울렁 울렁 법정으로 갔지
처음으로 열린 사할린 재판소
그러나 어찌랴
법정에 서도

법정에 서고 서도
서러움만 가득하였지

내나라, 내와!
내 남편과 내 동생!
내나라, 내와!
지금 당장
아니면 날 죽여라
떨리는 체온으로
법대를 치며
가슴을 치며
칠순을 주름이 꿈틀거렸지
온몸으로 울었지
만 십년 목이 메었지
몸쓸 자리 45차례
답답하였지
갑갑하였지
문풍지처럼 속으로 울었지

한 멧힌 기다림
기다림은
원점만 돌았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원점만 돌았지

요지부동 원점만 돌고 돌았지

허울 좋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대며
조센징은 일본 국적을 상실했다.

송환의 의무가 없다.

헛소리만

되풀이 되풀이 되었지
소송은 재판의 시효가 넘었다.

각하돼야 한다.

각하돼야 한다.

잔소리만

녹음테이프처럼 돌고 돌아
핏줄만 더 아프게 죄는 데

내 나라 내 땅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너끈하게 살아가고

아니, 꺾꺾꺾 살아가고

넌 모래 동동

명복이나 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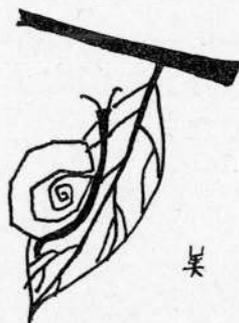
빌줄도 모르며 너무들 하지

오늘까지 흘러

평생 두고두고 한 맺힌
눈빛을 봐야지
소금빛 충정으로 봐야지
원목처럼 버려진 우리네 목숨들
러시아 중국땅 산문 밖에서
흠을 찾아 흠의 고향을 찾아
헤매이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노을 끝에 골골 하늘의 길

울음보다 분한 세상에서
가장 아픈 조 소경 할머니

오늘도 산 접동새 울음을 안고
자꾸만 눈계를 찍어내고 있다.



시

苦 悶

최 성 례

〈단국대 국문과〉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날엔
반쯤 열린 창으로
묵은 한숨을 몰아내고
대지의 합창을 듣는다.

소리없는 소리들.

바람자고 어둠 벗겨질 때
온밤 지새우며 긴장한 가슴은
마름모꼴 물결위에
무겁게 젖어드는 흑두루미 울음.

새벽으로 떠난 것들을
슬퍼해야 하는 시간.

이제 지나온 세월에
意味의 설레임을 加減하고
살아서 숨쉬는 체온으로
사랑하고 싶은
젊은날의 故郷

머언 하늘은
꿈이 자라는 자유며
욕심없는 영혼으로
새해를 맞게 하는 힘

머언 하늘은
거칠은 황무지에
코가 시린 젓나무
푸른 내음이
싱싱한 태양을 낚아가는
정의로운 苦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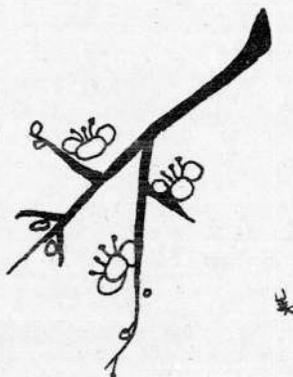
거침없이 움켜잡은 주먹엔
또 다른 미래가 있다.

이제
땀에 젖은 肉身이
삶을 체험하고 돌아와

해야 하는 일.

뜨거운 피로
지축을 불사르며
해야 하는 일

우리 무딘 부리로
굳이 다듬고 지켜 나아가야 할
이땅의 겨레
숨쉬는 조국.



편집
후기



사랑이 가면 사랑이 오고
미움이 가면 미움이 온다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이기주의,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개인주의가
만연된 사회속에
우리네 세상은 점점 답답하고 메말라간다.
테러, 유괴, 폭파, 납치, 폭행……
지난해 무수한 일들이 우리를 혼란케 했다.
그러나 우리는 용하게도 견디어냈다
아름만큼 성숙해진다고 했는가?
이제,
50억의 축제가 서울에서 열린다
정말 잘해내야 하겠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주자
그들의 가슴에
따뜻한 미소와 훈훈한 사랑을
가득 담고
떠날 수 있도록.

표지화

제 목 : 응 시 (凝視)
작 가 : 안곡 장 재 운
국전 3회 입선, 독수리그림
전문가. 현, 미술협회 회원
* 재향군인회 회관 신축기념으로 공군에서
기증한 작품임.

영문

1988년 제 1 호 (통권 제 204 호)

1988년 3월 25일 인쇄

1988년 3월 31일 발행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인쇄처 : 공 군 교 재 창

원 고 모 집

금속성의 폭음속에 촌각을 다루는 영공초
계 임무,

최첨단의 과학기술 장비를 다루는 작업속
에서 젊음을 불태우는 보라매들.

사색과 낭만을 즐기기에 너무나 각박한
시간들이기에 자칫하면 정서생활을 잃어버
리기 쉽습니다.

장교 전문교양지인 「공군」은 여러분들의
고귀한 생활속의 글들을 모집합니다.

오래전에 놓아버린 붓을 다시 잡고 원고
지 한칸 한칸을 메꾸어 보십시오. 잃어가던
문학세계가 다시금 새로와질 것입니다.

힘들고 바쁜 생활속에서 나온 글들이기에
더욱 소중하며 값진 것입니다.

☆ 모집대상 : 장교 및 그 가족

☆ 모집부문 : 군사지식, 교양, 생활수기
등 문학작품 전 부문

☆ 마감일자 : 제한없음(연중무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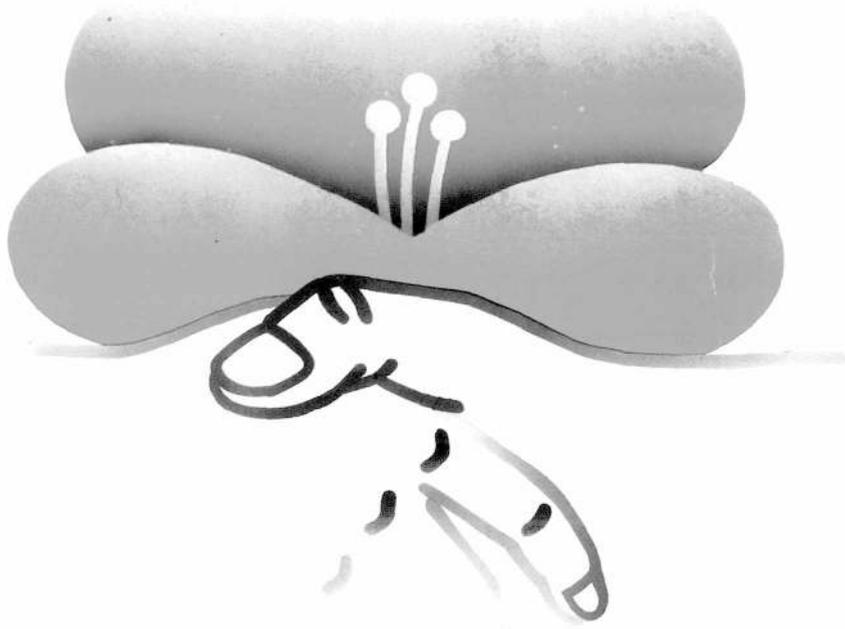
☆ 원고매수 : 30매 내외 (200자 원고지)

☆ 제출처 : 서울 동작구 대방동 사서함
10호

☆ 기타사항 : 제출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
를 지급하며, 게재된 작품
은 연말 종합심사후 시상함.

☆ 문의전화 : (호) 5115, 5388

(직) 813-2691



범민협 '87표어 ④

서울서 베푼 친절 세계에 꽃핀 한국

한국의 수도, 서울은 이제 우리들만의 서울이 아닙니다.
제24회 올림픽이 열리는 개최지이며, 세계인을
초대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1988년, 신기록에 도전하는 각국의
선수들과 문화사절단, 언론인, 관광객 등이 대륙과
바다를 건너서 서울의 높푸른 9월의 하늘 아래서 만날
것입니다.

또한, 16일간의 대제전은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을 우리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정성들이 세계인에게 깊이
전달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 중에서도 우리 하나 하나가 주인이 되어
베푼 친절은 그들이 돌아가 머무는 곳곳에서 또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다시 가고 싶은 나라 한국, 인정넘친
도시 서울을 세계인의 가슴에 심어 줍시다.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공군

AIR FORCE QUARTERLY

1968년 제1호(통권 제204호)